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

2006. 11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이 자료집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제작·
발간하였습니다.

제 출 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본 보고서를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11. 4

연구책임자 : 김세훈(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조현성(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재희(부천시립도서관 수서팀장)
정현태(상명대학교 강사)
최원태(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 강승연(홍익대학교 석사 졸)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
1. 연구 내용	2
2. 연구 방법	3
제2장 작은도서관과 도서관서비스	5
제1절 작은도서관 논의 배경	5
1. 작은도서관 전사(前史)	5
2. 작은도서관 활동의 전개	8
제2절 작은도서관 정의 및 유형	11
1. 작은도서관 정의	12
2. 작은도서관 유형	15
제3절 공공도서관 분관으로서의 작은도서관	21
1.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21
2. 공공도서관 분관의 일반적 유형	22
3. 분관으로서의 작은도서관	26
제3장 작은도서관 관련 실태 및 외국 사례	27
제1절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실태분석	27
1. 작은도서관 현황 및 운영 실태	27
2. 공공도서관 현황 및 운영 실태	38

3.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 실태	43
4. 작은도서관 관련 인식 및 수요	48
5. 시사점	64
제2절 국내 작은도서관 운영 사례분석(부천, 순천, 창원)	67
1. 작은도서관 설립 전개유형	67
2.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현황	70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력 시스템 및 내용	76
4. 시사점	88
제3절 외국 운영 사례 분석	92
1. 외국의 작은도서관	92
2. 외국의 작은도서관 운영사례	95
3. 외국의 작은도서관 운영, 협력지원 및 서비스 분석	109
4. 작은도서관 활성화 프로젝트 및 유인책사례	120
5. 시사점	122
제4절 총괄 시사점	124
1. 종합 시사점	124
2. 분관화 관련 시사점	126

제4장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 133

제1절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133
1. 기본 방향	133
2. 추진 전략	134
제2절 분관시스템 기본 구상	136
1. 기본 체계	136
2. 기능구분 및 추진방식	140
제3절 주요 추진과제	148
1. 지원협력을 위한 내부 역량 조성	148
2. 지원협력 시스템 구축	150

3. 지원협력 콘텐츠 개발	155
4. 제도적, 정책적 지원기반 마련	157
 참고문헌	 158
<부 록1>	161
<부 록2>	177

표 목차

<표 1>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추진단계	10
<표 2>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유형	11
<표 3> 도서관 및 문고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	14
<표 4> 한국도서관기준(한국도서관협회, 2003)의 ‘공공도서관기준’	15
<표 5> 작은도서관 활동의 목적과 범위에 따른 운영주체별 구분	15
<표 6> 새마을문고 지원에 대한 근거 법령	16
<표 7> 전국 새마을문고 현황	17
<표 8> 새마을이동도서관 현황(2006년 9월 기준)	18
<표 9> 중앙관과 분관의 업무 분담비교	25
<표 10> 전국 등록문고 현황(2005.12.31 기준)	28
<표 11> 운영주체 현황	29
<표 12> 1관당 연간예산지출내역	30
<표 13> 1관당 연간예산수입내역	31
<표 14> 1관당 인력현황	32
<표 15> 장서현황	33
<표 16> 1관당 컴퓨터 및 시청각 기기 보유현황	34
<표 17> 문고의 평균개관시간	34
<표 18> 문고에서 실시중인 운영프로그램	35
<표 19> 1일 평균 이용현황	36
<표 20> 이용자 연령별 구성비율	37
<표 21> 공공도서관 현황	39
<표 22> 유형별 공공도서관 규모 사례	39
<표 23> 분관의 담당업무 사례	41
<표 24> 복권기금 활용 조성 작은도서관 평가 결과	47
<표 25> 실태조사 대상	48
<표 26>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태파악 정도	48
<표 27> 도서관 관련 조례 및 지원계획 수립여부	49
<표 28>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및 지원계획 수립여부	49
<표 29> 문고 및 작은도서관 지원 실적	50
<표 30> 문고 및 작은도서관 지원근거	50
<표 31> 문고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방식	50
<표 32> 문고 및 작은도서관 지원내용	51
<표 33> 문고 및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여건	51
<표 34> 공공도서관 분관기능으로서 작은도서관의 바람직한 역할	52

<표 35>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방침수립유무	52
<표 36> 작은도서관 지원계획 없는 이유	53
<표 37> 작은도서관 지원실적유무	53
<표 38> 작은도서관 지원내용	53
<표 39> 작은도서관 지원시 근거	54
<표 40> 앞으로 작은도서관 지원계획 유무	54
<표 41> 지원할 계획내용 1순위	55
<표 42> 작은도서관 지원이 어려운 이유	55
<표 43> 작은도서관으로부터의 지원요청 유무	56
<표 44> 현상황에서 작은도서관 지원가능분야 1순위	56
<표 45>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 및 지원시스템의 형태	57
<표 46>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위한 중요사항 1순위	57
<표 47> 공립문고의 공공도서관 분관화시 바람직한 역할	58
<표 48> 귀 문고에 대한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의 관심	58
<표 49> 정기적 자료수집 및 도서기호 부착	59
<표 50> 문고의 기능	59
<표 51> 공공도서관 문고지원 필요성	59
<표 52> 우선지원이 필요한 1, 2순위	60
<표 53> 공공도서관 지원요청과 지원유무	60
<표 54> 공공도서관의 지원내용	61
<표 55> 문고활성화를 위한 외부요인 1순위	61
<표 56> 문고이용률 향상을 위한 내부요인 1, 2순위	62
<표 57> 공공도서관과 문고협력시스템의 바람직한 형태	62
<표 58> 공공도서관 소속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63
<표 59> 부천시립도서관 시설 및 자료현황	70
<표 60> 부천시 작은도서관 현황	72
<표 61> 창원시 시립도서관 현황	73
<표 62> 창원시 마을도서관 현황	74
<표 63> 순천시 시립도서관 현황	75
<표 64> 순천시 작은도서관 현황	75
<표 65> 2005년도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비 현황	80
<표 66> 2006년 부천시 작은도서관 예산 현황	81
<표 67> 2006년 부천시 작은도서관 운영비 세부내역(1개소 기준)	81
<표 68> 부천시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 개발 전후	83
<표 69> 부천시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실적	84
<표 70> 미국의 규모별 도서관 봉사권역과 봉사인구 입지기준	94
<표 71> 샌프란시스코에서 분류하는 공공도서관 분관 유형	94

<표 72> 서비스 내용에 따른 분관 형태	94
<표 73> 미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정의	95
<표 74> 자료대출을 위한 연회비	103
<표 75> 지역도서관, 자동차도서관, 지역중심관의 서비스 내용	105
<표 76> 덴마크도서관의 가상서비스	108
<표 77> 각국의 ‘도서관의 친구’ 활동 현황	110
<표 78> 국가별 ‘도서관의 친구’ 국가조직	111
<표 79> 뉴욕공공도서관의 ‘도서관의 친구’ 사례	111
<표 80> 프로그램 교육과정	114
<표 81> 협력 내용	115
<표 82> 성인과 어린이 · 청소년 서비스	120
<표 83> 공공도서관 본관 및 분관 조직규모 사례	127
<표 84>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작은도서관의 면적	129
<표 85> 공공도서관서비스개발을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	129
<표 86> 미국 위스콘신주 공공도서관기준(Wisconsin Public Library Standard) ...	130
<표 87> 켄싱턴 도서관 분관 운영시간	132
<표 88> 비전 및 목표	133
<표 89> 분관연계 대상	139
<표 90> 분관연계 방식	139
<표 91> 분관지원 내용	140
<표 92> 중앙관과 분관의 업무 분담비교	140
<표 93> 가중치 할당 평가방식(예시)	144
<표 94> 상호대차시스템 메뉴 구성안	155

그림 목차

<그림 1> 디지털 자료실 지원센터를 통한 학교도서관 지원 시스템(경기도)	46
<그림 2> 부천시 작은도서관 배치 현황	73
<그림 3> 부천시 약대주민자치센터 내 신나는 가족도서관	77
<그림 4> 부천시 심곡복지회관내 복사꽃필무렵도서관	78
<그림 5> 창원시 남산복지관내 남산마을도서관	78
<그림 6> 낙안읍성 작은도서관	79
<그림 7> 부천시 상호대차시스템 구성도	84
<그림 8>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력내용	87
<그림 9>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 기본 방향	134
<그림 10> 분관시스템 기본 구상도	136
<그림 11> 상호대차시스템 구성도	153
<그림 12> 상호대차시스템 운영 형태	15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근래 들어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운동은 멀게는 1960년대 이래로의 마을문고 운동과 맥이 닿아 있으며, 가깝게는 1990년대부터 나타난 주민독서실 등의 지역운동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여기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 차원에서 일상 생활권의 소규모 작은도서관 운동에 주목하면서부터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때늦은 바 없지 않다. 도서관서비스가 정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영역의 주요 서비스로 일찍부터 자리잡은 서구 선진국가와 달리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서비스는 과거부터 민간영역에서 담당한 비중이 적지 않았다. 도서관이 부족한 과거 민간영역에서는 자발적 운동의 형태로 마을문고 운동이 전개된 바 있으며, 현재에도 지역의 소규모 공간들을 통하여 문고, 주민독서실, 작은도서관과 같은 형태로 많은 민간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소리 없이, 그러나 폭넓게 확산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도서관정책에서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평가는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를 ‘작은도서관’ 진흥이라는 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들은 현재 작은도서관의 건립이나 운영에 대해 설립비 및 리모델링비 일부 지원,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콘텐츠 개발, 보급 등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작은도서관의 의미나 개념 정의, 이 용어가 포괄하는 도서관의 범주 및 지원활동의 범위 등에 대하여 여전히 합의된 틀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는 작은도서관 활동을 우리사회 도서관서비스 체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면서, 이러한 활동이 보다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활성화되어 우리사회의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풍부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공공도서관서비스 체계와의 연계성속에서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소규모 도서관운동은 역사적으로 그러한 활동이 발생하게 된 초기 단계에서는 일정 부분 활성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지만,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마을문고 운동이 19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활성화되지만 오늘날 그 모습이 여전히 열악한 현실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국가적 관심의 부족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자발성에 기초한 소규모 민간활동이 가지는 근본적 제약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진흥 활동이 현 단계에서 낙후되고 열악한 문고규모 도서관 활동들에 대한 지원의 의미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넓은 공공도서관서비스 체계에서 고려되지 않고 작은도서관 범주 내의 활동으로 머물게 될 경우 그 지속적인 활성화를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작은도서관 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공공도서관서비스 범주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의 직/간접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계체계의 구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연계체계가 구축될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어야 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작은도서관진흥 정책에 정책적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의뢰하여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별개의 연구팀에서 추진 중인 과제 「작은도서관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작은도서관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발전 방안은 위 연구 과제에서 다루어질 예정인 바, 이 연구에서는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그 가운데서도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 안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해이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논의는 일반 도서관 가운데 그 규모가 작은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경향과, 작은도서관은 그와 같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도서관이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경향이 존재한다. 전자의 이해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현행 도서관법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 가운데 그 규모가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현행 도서관법에서는 도서관의 일반 기준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문고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도서관은 그것이 ‘도서관’인 한에서 도서관법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키는 도서관 가운데 작은 규모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은 도서관 기준에 충족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대부분 도서관 기준에 미달하는 문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의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에서는 그 용어를 ‘작은’ 도서관이 아닌 ‘작은도서관’의 고유명사로 사

용하고 있다.

도서관법의 기준에 따라 현행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대상을 분류하자면 ‘문고’가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의 대상에는 이 외에도 어린이도서관이나 병영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을 중장기적으로 포함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의 개념과 그 범주를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그것이 지칭하는 정책 대상의 범위를 관련 분야에 대한 검토에 기반하여 제시하였다.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의 작은 규모 도서관 운영 사례를 검토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 지원운영 방향 및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에도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 활동은 일부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장단점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다른 도서관서비스의 역사적 발전 경로를 거친 외국에서는 이러한 작은 규모의 도서관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외국 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지원 유형을 제시하였다. 작은도서관 규모 및 역할, 기능의 다양성에 비추어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 유형은 하나의 모습으로 제시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맞는 협력/지원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계 운영 체계가 안정적인 기반위에 운영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연계에 필요한 내용들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의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상호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바,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들을 설문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 증가에 힘입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의 협력 방안에 대한 모색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그 동안 작은도서관 관련 사례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져 왔던 부천시와 창원시, 순천시의 작은도서관 운영사례를 검토하였다. 이 세 국내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유형이 갖는 특징 및 주요 내용 그리고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연계 운영 유형 및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외국의 사례는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연계운영 방안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미국과 덴마크의 사례를 검토하였고, 미국, 일본, 영국 등에 거주하는 현지 조사원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운영 사례들을 분석하였다.¹⁾

이 외에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이 현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수준 및 단계, 조건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다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기관/단체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작은도서관진흥팀이 설치되어 그동안 적지 않은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였고, 이 연구의 결과가 작은도서관 진흥 정책 및 관련 사업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것인 바, 연구 결과물의 실질적 활용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진흥팀과의 협의 또한 중요한 연구과정으로 포함되었다.

1) 미국의 사례는 前 미국도서관협회장인 마이클 고먼(Michael Gorman)이, 덴마크의 사례는 덴마크도서관청장인 옌스 토어하우게(Jens Thorhauge)가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한 자료집은 이 보고서와 별도로 제작되었다.

제2장 작은도서관과 도서관서비스

제1절 작은도서관 논의 배경

정보화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정보의 유효기간이 짧아지면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능력에 대한 요구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도서관들은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에 알맞는 도서관의 형태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현재 서구의 도서관들은 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려 애쓰고 있으며, 각 지역의 환경과 여건에 알맞은 공공도서관 분관형태의 작은도서관을 통해 공공도서관 서비스 포인트 역할을 담당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 및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 역할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작은도서관은 그 규모와 실태마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그 개념과 시작배경, 형태와 역할 또한 서구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많이 다르다. 무엇보다 민간에서 먼저 도서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필요를 위해 그 어느 나라보다 능동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다른 점으로 꼽을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전신인 ‘마을문고운동’이 바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시스템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전에 펼쳐졌던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마을문고운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1. 작은도서관 전사(前史)

우리나라의 근대적 개념의 도서관이 처음 생긴 것은 19세기 말 개화기였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 시기에 일제식민지와 한일합방을 겪으면서, 도서관운동은 언어말살과 극심한 출판물의 규제 등으로 여러 좌절들을 겪게 된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억압은 국민에게 저항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도서관운동은 일제에 저항하려는 애국계몽운동의 차원에서 중요시되었으며 민간의 차원에서 큰 호응을 얻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해방이후 도서관의 시설과 장서를 비롯한 모든 환경은 매우 열악했으며, 전국 성인의 문맹률도 거의 80%에 가까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 각계에서는 국민들을 새롭게 열린 민주사회에 적응하게 하고, 학습과 계몽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시민가치를 구현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그 일환으로 책과 접하기 힘든 농어촌에 헌책을 수집하여 보내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점차 공공도서관의 확산과 작은도서관의 모태라 할 수 있는 공부방, 문고 설치 등이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가. 1960년대

60년대의 문고활동은 엄대섭이라는 한 개인의 헌 사회에 대한 통찰력과 그에 대한 노력으로 인해 활성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전의 농어촌 계몽을 위한 책 보내기 운동은 너무나 산발적이고 일회적이어서 그 호응도나 의지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졌다. 그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1961년 2월 1일 ‘마을문고보급회’²⁾라는 단체를 자신의 사재를 털어 설립, <마을문고>를 조직하고 운영하였다. ‘마을문고’는 작지만 정규도서관을 축소한 개념의 독서시설로 장서와 독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은 물론, 독자가 능동적으로 도서를 찾고 스스로 독서회를 조직하고 활성화시키는 자율성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활동이 언론에 긍정적으로 보도되면서, 1963년에는 적은 규모지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더욱 확산되었다.

당시 문고의 활동에 지원되는 재원은 첫째는 기부금형태의 후원을 통해 발생하는 자금, 둘째는 국고보조금, 셋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에 의한 자금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의 경우 사업비로만 사용하게 되어있어 관리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야만 했다. 사업초기에는 개인의 사재로 운영되던 것이 1963년에는 정부보조금과 개인의 사재로, 1967년 후반에는 정계와 재계의 인사들이 회장과 이사진을 맡으면서 이들이 관리운영비를 출연하는 체제를 구축하면서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갔다.

문고운동은 독서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데 그치지 않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책을 모아 관리, 운영하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었으며 이를 토대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까지도 이끌어내게 되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독특한 자발적 독서운동을 통해, 마을문고운동은 근대화에 뒤쳐진 농어촌계몽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나아가 70년대에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나. 1970년대

이 시기에는 문고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3만여개가 넘는 문고가 설치되었다. 설치가 확대됨에 따라 농촌형의 마을문고 형태가 아닌 도시형의 문고형태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것이 ‘직장문고’ 설치운동이며 도시의 중소기업체 내에 문고를 설치하여 저소득층의 근로자들에게도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시도였다. 맨 처음 설치된 곳은 서울과 부산시의 시내버스 안내양 합숙소 120개소였으며, 이를 계기로 교회나 아파트 단지에도 부분적이거나 문고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또 선정도서를 읽고 평가하여 시상을 하는 대회를 열어 독서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1977년 10월 마을문고사업이 문교부에서 내무부로 바뀌면서, 문고수의 양적 증가문제는

2) ‘마을문고보급회’라는 명칭은 1962년 7월 11일에 ‘마을문고진흥회’로 바뀌었으며, 1981년 1월에는 다시 ‘마을문고 본부’로 변경, 1982년 11월에는 ‘새마을문고중앙회’로 변경,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문고 육성의 질적 증가문제로 전환되었다. 전국 문고의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각도의 시와 군에 책은 물론이고 책장과 책상을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마을도서관으로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지방정부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 회장과 이사진이 교체될 때마다 겪게 되는 재정적 위기를 극복방안으로 '마을문고본부'를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회원단체로 통합시켜 추진하는 방안이 확정, 1981년 10월에 새마을운동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다. 1980년대

80년대에 이르면서 산업화, 도시화되고 농어촌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도시지역에서의 독서운동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직장문고와 파출소내의 어린이 문고, 역문고, 지하철문고, 공원문고 등과 병원문고 등의 특수문고가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어 설치, 운영되었다. 또한 문고의 수 보다 대형문고를 통해 시설과 장서수를 늘림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고의 대형화는 농촌인구의 감소로 마을단위 운영의 어려움, 이용자의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양적, 수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낮은 수준 문고를 통폐합하는 등 재정비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시군구에 문고센터를 설치하여 관내의 문고를 지원 및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향토사료를 발굴·전시하고,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 지역사회 사회교육문화시설의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시설로 발전해나가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는 문고지도자들의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필요한 문고운영실무 뿐만 아니라 토의 등을 통해 실무에 필요한 실질적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1986년에는 공공도서관 시설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영세민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순회하며 도서를 대출해주기 시작하였다. 이동도서관용 차량에 전문 사서가 독서상담과 도서대출봉사를 하며 높은 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감당하기에 벅찬 재정적 부담과 독서상담의 낮은 전문성으로 인해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동도서관 서비스는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시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하면서 독서기회를 제공해준은 물론 독서운동의 영역을 크게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80년대의 문고운동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점차 대형화, 광역화되었으며, 특수문고, 이동도서관의 운영을 통해 독서운동의 영역을 크게 확대하는 특징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80년대 말 새마을조직에 편입되면서 새마을비리사건과의 연루 등으로 언론의 호응과 관심이 크게 떨어지게 되면서, 국민의 관심과 지원 역시 점차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라. 1990년대~현재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정보화 시대로의 진입은 문고활동을 더욱 위축시켰다. 정보와 정보에 관한 출판량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문고의 수보다는 문고의 운영범위를 광역화, 대형화시키는 데 힘써야만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외환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경제성과 효율성의 논리’가 더욱 지배적이게 되면서 공공영역들, 즉 공공도서관은 조직의 통폐합 및 평생학습관으로의 전환과 민간위탁과 같은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공공도서관 수의 부족으로 그 혜택이 사회전체에 미치는 데 역부족이었던 상황에다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낮아지는 식의 악순환을 겪어야만 했다. 문고들 역시 재정난과 인력난으로 정보의 많은 양과 질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더욱 도태되는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고는 컴퓨터를 이용한 도서대출과 자료정리 및 검색시스템을 갖추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면서도, 이용자의 높은 접근성과 친밀성을 앞세워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편의와 요구를 감당해나가는 시도를 계속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재원확보나 인력난 등은 여전히 극복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까지 작은도서관의 모태인 마을문고가 농어촌 계몽을 위한 운동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자생적으로 활동해왔으며, 그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마을문고가 직접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했던 시도들은 자발성을 토대로 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이자 마을공동체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작은도서관의 가능성을 열어보였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근대의 개념인 작은도서관이 어떠한 필요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떤 유형을 띠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작은도서관 사업이 어떻게 자리매김해나가야 할지 또 국가적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할지를 검토해 본다.

2. 작은도서관 활동의 전개

가. 근대적 개념의 작은도서관 형성 및 유형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 아래 개설된 최초의 시설은 1987년 10월 16일에 개설된 ‘성산문고’라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분관형태로 개선된 문고인 성산문고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었으며, ‘지역적, 시간적 제약으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 언제나 쉽고 아무 부담없이 도서관 자료이용, 문화 및 모든 생활정보 제공, 회의, 강연회, 좌담회, 각종강좌, 주민행사가 이러한 종합문화공간인 문고³⁾로 만들어졌다.

성산문고가 여러모로 호응을 얻자 이에 자극을 받은 잠원의 한신아파트 단지에서도 ‘한신문고’를 개설한 데 이어, 도서관이 없었던 관악구 신림동에도 15평 규모의 가정집에 도서

3) 정정식, “작은도서관 갖기 운동”, 「도서관문화」, 1993.

실을 개설하는 등 꾸준히 설립과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도서관과의 접근성과 효율화를 극대화시켰던 아파트 문고는 1992년 법무부가 산하 보호관찰소에 청소년을 위한 문고를 설치하는데 바탕이 되기도 했으며, ‘작은도서관 갖기 운동’을 펼치게 된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어린이 도서관이다. 최초의 어린이 도서관은 1923년에 개설된 총독부도서관(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부녀자 문고와 경성도서관의 아동열람실이었다. 아동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연 이 열람실은 무료로 공개되었으며 빈민아동을 위한 교육과 동화회 부인강좌도 개설되었다.⁴⁾ 1979년 5월 4일 세계어린이의 해를 맞이하여 문을 연 서울 시립어린이도서관이 많은 호응을 얻으면서 1980년에는 광주 사직공원에서 문을 열었으며, 같은 해 최초의 사립어린이 도서관으로 알려진 시설이 잠실 시영아파트 개인 가정에 설립되었으며, 이후 곳곳에서 산발적이게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모 방송사에서 펼친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가 관심을 끌게되면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였다. 어린이도서관은 “도서열람과 대출은 기본이고 독서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행사, 어린이 독서와 교육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학부모 교육 운동, 그밖에 소식지 등을 이용한 홍보”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과 활동을 펼침으로써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독서습관을 기르도록 힘쓰고 있다.

나. 작은도서관 사업의 전개

1994년 ‘작은도서관협의회’가 결성되어 전국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권내의 공공도서관에서 출발한 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과의 협조미비로 인해 분관체제로 이어지지 못함에 따라 작은도서관 쪽에서 생산과 공급을 책임져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부실과 직결되게 되어 점차 축소, 소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고 형태의 작은도서관 건립 움직임들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작은도서관 운동의 움직임들은 초기의 산발적인 운동의 형태에서 발전하여 사적 단체 혹은 시민단체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조금씩 이나마 정책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시작하였다. 2001년도에는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이라는 조직체가 발족되어, 자칫 고립되기 쉬운 작은도서관에 언론과 지자체, 여러 협회의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몇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최근에는 작은도서관의 몇몇 성공사례와 그 모형들이 제시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토대로 국가적 차원에서 작은도서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4) 이효숙, “어린이도서관의 합리적 운영방안”, 「도서관학회보」, 1988.

5) 전영순, “민간어린이 도서관 현황”, 「도서관문화」, 2003.

다. 작은도서관 사업 활동과 내용

□ 작은도서관 사업활동

정부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핵심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03-2011)’ 사업을 수립하고 점차 공공도서관의 수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공공도서관마다 2개 정도의 분관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문화관광부는 2004년 「문화비전 21: 창의한국」에서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1만개 작은도서관 확충운동을 제시하였으며, 복권기금 25억여원을 투입하여 25개관에 ‘도시저소득층 및 농어민 대상 생활친화적 문화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였다. 이후 2006년 1월 문화관광부 주요정책과제로 “마을마다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이후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 계획’ 추진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내에 작은도서관 진흥T/F가 설치되었다. 이 TF가 발전하여 2006년 4월 국립중앙도서관안에 작은도서관진흥팀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 작은도서관 사업내용

<표 1>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추진단계(2006. 6. 기준)

단계	내용
1단계('06) 시범 및 기반구축단계	▶ 문화혜택이 시급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조성(58개소) - 메뉴얼 제작보급, 우수운영사례 소개, 사업필요성 홍보, 홈페이지 구축 등 ▶ 해외사례 조사·분석, 중장기 발전방안 등 제도적 보완사항 연구·검토
2단계('07~'08) 보급 및 정착단계	▶ 문화소외지역 중심 집중조성(140개소), 지자체 참여 활성화 및 성공사례 등 타 지자체·전파확산 - 현지 워크숍 등을 통한 관심 제고 및 지속 홍보 ▶ 공공도서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운영자 전문연수교육 등을 통한 이용자 서비스 향상
3단계('09~) 확산단계	▶ 범사회적 문화운동으로 확산추진 - 민간 참여 확산(개인 및 기업참여 유도) - 문화소외지역 및 읍·면·동 단위(3,750개) 마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추진 전면 확산

<표 2>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유형(2006. 6. 기준)

사업유형	대상지	지원내역	지원조건
적정 유휴공간 리모델링사업 (신규조성)	-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폐파출소, 폐동사무소 등 공공시설 유휴공간	- 인테리어, 가구, 도서, 전산기기·시스템 등	- 공공시설 내 유휴 공간 활용·조성 - 조성비용의 30% 지자체 부담 - 운영비 지자체 부담
부분 리모델링 지원사업 (기존문고)	- 기존 운영문고 중 시설 및 장비의 일부지원으로도 활성화가 가능한 경우	- 인테리어 교체, 도서지원, 전산기기·시스템 중 일부	- 공립문고 우선고려 - 부분 지원사업 30% 지자체 부담
독립건물 건립사업 (신규조성)	- 공공도서관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공공 유휴시설이 없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 별도의 독립된 건물 형태로 건립	- 지자체 부지제공 및 건립후 운영비 부담 등 분관화 운영 - 1관당 2억원 내외

제2절 작은도서관 정의 및 유형

민간영역에서의 작은도서관 운동은 주민들 스스로 기금을 모으고, 자원봉사를 통해 꾸려가는 동네 사랑방으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독서서비스와 어린이 독서교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운영, 지역 문화강좌 등의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 공공도서관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고,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는 자생적 시민운동의 성격을 띠며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작은도서관 운동은 주민의 도서관서비스 욕구를 주민스스로 충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 협동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주민들의 참여와 봉사의 풀뿌리 공동체 문화 및 주민들의 민주적인 자치문화 형성, 그리고 공동체 현안에 대한 대화와 토론의 통로로서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키는 통합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이와 같은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작은도서관은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규모나 서비스범위에서 공공도서관 활동에는 미치지 못하는 시설로써 문고활동의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법률적으로 작은도서관은 주로 개정 도서관법상 공공도서관의 하위 범주로 설정된 문고에 해당된다.⁶⁾

6) 작은도서관의 개념을 문고와 분리하여 별도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작은도서관과 문고의 개념적 혼란을 생산하기보다, 편의상 문고의 발전된 형태로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유연한 권장모델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작은도서관 정의

가. 문고의 발전 모델로서의 '작은도서관'

각국의 공공도서관 법규와 기준에서 확인되는 공공도서관의 최소기준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며,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개념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작은도서관 용어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일차적으로 이 용어가 시설을 지칭하는 것인지 또는 기능을 지칭하는 것인지와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논의는 한편에서는 작은도서관을 “○○평 이상~○○평 이하의 시설”과 같이 외형적 ‘규모’를 기준으로 규정하려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소규모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같이 도서관서비스 규모의 “소규모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는 민간의 사립문고 및 사립도서관 활동가들에 의해 조성된 일종의 소규모 도서관(혹은 문고)운동을 지칭하는데서 출발한 용어이다.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공공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은 일차적으로는 도서관서비스 제공 시설이 도서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데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운동차원에서 출발한 작은도서관 활동이 도서관이라는 용어 앞에 ‘공공’ 대신 ‘작은’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된 배경에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이러한 시설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지식정보제공 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하는 지향이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작은도서관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작은 규모’라고 하는 특징을 나타내지만 내용적으로는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주민친화적 소규모 시설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부족하지 않은 지식정보향유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과 밀접히 관련된다.

이런 맥락에서 작은도서관은 “면적이나 인력, 자료 등의 기준에 의해 설정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공공도서관으로 분류되지 않은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시설들이 일상 생활권역에서 일정한 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하여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여백을 메워주는 기능”을 중심으로 설정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외형적 소규모성은 작은도서관의 외관상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작은도서관을 규정하는 개념으로는 적절치 않다.

작은도서관을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지역주민에게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도서관(혹은 문고) 시설이라고 규정할 때, 작은도서관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적어도 지향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은 수준’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달리 말하면, 작은도서관은 비록 규모나 예산, 인력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공공도서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지만 지향에 있어서는 공공도서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시설의 소규모성이나 공공도서관서비스의 여백을 메워주는 기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완전한 도서관서비스를 지향한다는 점

에서 소규모 도서관서비스 시설의 이념형적 모델(ideal type)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지원/협력 대상으로서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이 한편으로는 그 규모나 역할에 있어서 공공도서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향후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수준으로까지 확장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이념형적 성격이 존재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정책의 지원·협력 대상이라는 점에서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

기존에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던 마을문고, 아파트문고, 주민자치센터내 문고, 동문고 등이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속에 운영되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그 운영을 영위해 나갔다면, 현재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그 자체로서의 발전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도서관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논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범위 및 기준에 대한 논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공공도서관과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다양한 모델 개발 및 이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다.

지원·협력 대상으로서의 작은도서관 개념은 2004년 복권기금을 통한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2006년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에도 나타나고 있다.⁷⁾ '2006 복권기금사업신청서'는 작은도서관을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시설로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문고형도서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50평 내외의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제시한다. 복권기금에서 설정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개념은 주로 사업의 취지를 반영한 이념적 특성을 주로 강조하고 있으며, "생활친화적", "문고형도서관", "저소득층", "50평 내외",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 등의 용어를 통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처럼 작은도서관 개념은 문고형 시설의 발전모델로서의 이념형으로서의 기능과 동시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 지원대상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 국내/국외 작은도서관 관련 참고 기준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의 도서관 및 문고 기준

개정 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에서는 공공도서관과 문고를 구분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 문고는 공공도서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로 규정되었는데, 시설규모로는 면적 10평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등이 제시되었다.

7) 정부는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 4호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사업>에 근거하여 25억원의 예산을 확보, 2004년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표 3> 도서관 및 문고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

	공공도서관	문고
시 설	(인구2만 미만 일 때) -면적 264㎡(약80평), -열람석 60석 이상	-면적 33㎡(약10평)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 료	-장서 3,000권 이상 -연증가 300권 이상	-장서 1,000권 이상
직 원	-330㎡(약100평)이하 사서직원 3인	-규정 없음

<참고> 동 시행령에서

- * 전문도서관의 최소면적은 165제곱미터(약50평), 장서 3,000권 이상,
- * 특수도서관(점자도서관)의 최소면적은 66제곱미터(약50평),
장서 1,500권과 녹음테이프500점 이상,
전자관련 장비구비 등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에는 시설 및 운영여건이 미치지 못하고, 문고보다는 시설규모가 큰 시설”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면, 결국 작은도서관은 문고로 신고된 10평 이상의 시설에서부터 공공도서관의 최소기준인 80평에 미달되는 시설 중 일정한 수준 이상의 규모와 여건을 갖춘 시설 가운데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한 수준’에 대한 특별한 한계는 주어져 있지 않은데, 기존의 복권기금지원의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전례에 비추어 보면 공공정책영역에서는 대략 30평 내지 40평 이상 규모의 시설을 작은도서관으로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

○ 한국도서관협회가 마련한 공공도서관 기준에서의 최소 기준

한국도서관협회가 마련한 공공도서관 최소기준은 ‘도서관’의 명칭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조건을 명시한 것이다. 이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은 문고형 시설들의 현실 여건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며 발전모델이든 지원/협력의 대상이든 작은도서관이 그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8)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을 시설규모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현실에서는 공공도서관이 80평 이하인 곳이 있는가 하면 공공도서관이 아닌 시설이 80평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시설규모 중심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접근이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작은도서관이 발전모델로서의 이념형적 성격과 공공정책의 지원/협력 대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목표치로서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일정 기준을 예시로 제시하는 일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한국도서관기준(한국도서관협회, 2003)의 ‘공공도서관기준’

구 분	최 소 기 준	비 고
직원배치기준	(봉사인구 5만 미만) * 사서직원 : 인구4,200명당 1명 * 전체직원 : 인구2,500명당 1명	
장서기준	(봉사인구 2만 미만) * 기본 장서 3만권 이상, * 연속간행물 50종 이상, * 비도서자료 1,000점 이상	cf. 연간증가책수 1인당 0.15권 이상
면적기준	(봉사인구 5만 미만) * 1인당 0.040㎡	
열람석 기준	(봉사인구 5만 미만) * 인구1,000명당 4석	cf. 아동 20%, 노약자10%
검색용단말기	(봉사인구 5만 미만) * 인구2,500명당 1대	
주당개관시간	(소분관) *주당 최소 36시간(시간제는 25시간)	

2. 작은도서관 유형

가. 작은도서관의 범주 구분

작은도서관은 지역이나 운영주체, 규모, 성격 등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표 5> 작은도서관 활동의 목적과 범위에 따른 운영주체별 구분

범 주	구 분	내 용	기능적 특징
1)지역별	가.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區)소재 문고	-지역사회 여건의 다양성 존재
	나.중소도시	기초지방자치단체 시(市) 소재 문고	
	다.농어촌	기초지방자치단체 군(郡)소재	
2)운영 주체별	가.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직영	-운영주체의 사업목 적에 따른 기능적 차이 존재
	나.새마을문고중앙회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 단체	
	다.아파트	아파트관리사무소, 부녀회, 주민자치회 등	
	라.종교단체	교회, 성당, 사찰 내 설치된 선교목적 문고	
	마.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자치단체 설립기관, 지원기관	
	바.민간단체	NGO(비영리기구), 법인, 임의단체	
	사.개인	자선 및 봉사, 독서사업, 과외 논술교육, 학원	
	아.기타	기업 및 공장 내 문고, 교육시설 내 문고 등	
3)규모별	가.대규모	80평 이상: 공공도서관 수준의 규모	-시설규모에 따른 서비스 활동의 차이
	나.중규모	30평 이상: 소규모 도서관서비스기능 수행가능	
	다.소규모	10평 이상: 문고로 분류	
4)성격별	가.도서관 고유기능	새마을문고, 공립문고 등	-문고설립 취지를 반영하는 사업범위
	나.복합기능	민간단체문고, 종교단체 문고, 사립문고	

나. 작은도서관의 유형별 특징

1) 새마을문고

새마을문고는 1961년 ‘마을문고보급회’의 마을문고에서 시작하여, 1968년 마을문고본부, 1982년 새마을문고중앙회에 의해 설립 보급된 소규모 문고들을 총칭한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당시 농어촌 근대화라는 새마을 운동의 취지에 부합되어 내무부 지원으로 농어촌 공립문고로 널리 보급 운영되었다.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문고조항이 포함되어, 면적 10평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의 문고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사립 문고를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후, 새마을문고는 일부 공립시설로 인정되어 별도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곳도 있고, 지역에 따라 사립문고로 등록을 한 곳도 있어 정확한 추계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새마을문고 운영을 주관하는 새마을문고중앙회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산하기구로서 사단법인체로 등록되어 있다.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0장 부칙 제5조(도서관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 ‘새마을문고중앙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다만, ‘새마을문고중앙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내무부 장관이 한다”고 규정하여 실질적 운영의 지휘 감독은 행정자치부 관할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표 6> 새마을문고 지원에 대한 근거 법령

관 계 법 령	해당조항	지 원 내 용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1980. 12.13 법률 제3269호)	제3조(출연금의 교부 등) 제1항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총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재산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00. 1.12 법률 제6118호)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②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005년 말 기준 새마을문고 현황에 따르면, 새마을문고는 전국적으로 2,422개소가 운영 중이며 장서 589만여권, 회원수 23만여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1관당 평균 면적은 24.8평, 1관당 평균 열람석수는 25.4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9)

<표 7> 전국 새마을문고 현황

구 분	문고(개)	장서(권)	면적(평)	열람석	조직 현황		
					계	지도자수	회원 수
서울시	312	1,555,978	4,325	4,100	125,879	3,828	122,051
부산시	119	401,054	1,964	2,520	13,294	1,643	11,651
대구시	35	70,400	763	819	2,644	135	2,509
인천시	27	56,505	753	567	1,922	57	1,865
광주시	30	54,130	950	804	2,578	62	2,516
대전시	50	139,950	723	915	3,068	239	2,829
울산시	12	25,390	115	205	3,246	125	3,121
경기도	210	872,400	5,890	5,510	11,725	1,997	9,728
강원도	74	158,310	1,751	1,852	2,880	68	2,812
충청북도	126	266,396	2,987	3,608	7,240	104	7,136
충청남도	274	378,128	6,352	9,058	16,992	458	16,534
전라북도	191	167,394	5,609	4,975	3,566	116	3,450
전라남도	238	334,222	7,021	7,717	14,250	396	13,854
경상북도	324	550,514	9,755	8,984	14,258	1,550	12,708
경상남도	245	458,777	6,513	4,836	13,328	1,223	12,105
제주도	161	440,068	4,796	4,772	8,120	474	7,646
계	2,422	5,892,833	60,065	61,520	245,036	12,521	232,515

※ 2005년말 기준

2) 이동도서관

이동도서관은 지리적 혹은 시간적 이유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하여 차량에 도서를 싣고 직접 방문하여 열람, 대출 등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문고를 말하며, 병원, 군부대, 공단, 고아원, 아파트, 낙도 등 공공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순회 운영하는 독서시설이다.

기록에 의하면, 1920년 철도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한 이래, 1960년대 국립도서관과 서울남산도서관에서 순회문고를 운영하였고, 자동차에 의한 이동도서관은 1970년대 서울남산도서관, 광주전일도서관, 대구시립도서관 등에서 운영되다가, 1986년 서울시 17개구에서 일제히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동도서관 서비스는 대부분 공공도서관에서 행해지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새마을문고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2006년 9월 현재 새마을문고

9)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통하여 2006년 6월 현재 자체 서비스구역 내에서 활동 중인 공·사립문고를 확인한 결과, 문고의 총 수는 국립문고 572개, 사립문고 1,643개로 모두 2,215개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새마을문고는 307개로 집계되었다.

중앙회의 홈페이지에서는 이동도서관 차량이 48대, 장서 723,011권으로 게시되어 있다.

<표 8> 새마을이동도서관 현황 (2006년 9월 기준)

시도	시군구	이동도서관 (차량)
서울	용산구	1대
부산	중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6대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5대
인천	서구	1대
대전	유성구	1대
울산	북구	1대
경기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포천군	22대
충북	청주시	2대
충남	보령시	1대
전남	여수시	1대
경북	포항시, 구미시	3대
경남	창원시, 사천시	2대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2대
계	48대	

3) 주민자치센터 문고

주민자치센터는 1999년 읍면동의 기능 중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무를 제외한 시군구의 기능과 중복되는 사무, 상급기관의 행정지시나 명령 등에 의하여 집행되어 왔던 사무 등을 시군구로 이관하고 그 여유 공간을 주민들의 자치문화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설치되었다. 주민자치센터 문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고로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경우는 동 조례 제5조(기능)에서 제3항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에 명기되어 문고의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사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 (설치등) ①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 (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제1항의 기능중 당해 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 할 수 있다.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동사무소가 협조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이 한다.

②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게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별로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되는 문고는 공립문고로서 별도의 설치에 따른 신고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개정전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40조(문고의 운영) 제2항에서는 “문고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공립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지도 지원을 받는다”고 하여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기능이 명시된 바 있으나, 현행 도서관법에서는 문고를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국 공공도서관의 협조를 받아 수집한 현황자료(2006.6.8)에 의하면, 활동 중인 전체문고 2,215개 중 파악이 가능한 1,516개 문고 가운데 주민자치센터 내에 개설된 공립문고의 수는 약 360개(23.2%)로 전체의 1/4수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공공시설 문고

공공시설 문고는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며 접근이 용이한 공공시설에 문고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독서교육과 여가에 제공하려는 독서시설이다. 개정전 도서관및독

서진흥법 제39조와 시행령 제32조 및 33조에서는 정부투자기관 및 관련단체에 공립문고 설립을 권장하였는 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지방문화원, 복지회관,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중이용시설에 사립문고 설립을 적극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 조사에 의하면, 이들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문고는 복지회관 104개(6.9%), 마을회관 98개(6.5%), 기타공공시설에 57개(3.8%)로, 모두 259개(17.1%)로 나타난다.

5) 아파트문고

현행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는 300세대를 넘는 공동주택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 33㎡, 열람석 6석, 장서 1,000권 이상의 문고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은,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는 법령으로, 문고는 주민공동시설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동 규정의 문고설치 의무조항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에 문고설치를 권장하도록 한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인데, 이는 2006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문고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한층 강화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한 조사결과 운영주체가 확인된 전체 1,542개 문고 중 8.8%인 136개가 아파트문고로 설치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6) 종교시설 문고

종교시설 문고는 선교목적으로 구축된 교회나 사찰 내 독서시설로서, 종교 및 신앙관련 도서를 중심으로 수집된 장서를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설립된 사립문고이다.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사결과 운영주체가 확인된 전체 1,542개 문고 중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문고는 390개 (25.3%)로 나타나 현재 활동 중인 문고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종교시설 내 설치된 문고들 중 교회문고는 1990년대 일부 지역에서 확산된 작은도서관운동의 활발한 참여자로서 한국사립문고협회의 창립을 주도하는 등 지역문고운동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사립문고협회는 매년 '교회도서관 운영을 위한 독서학교'를 개최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교회중심의 문고운동기관이라고 밝히고 있다.¹⁰⁾

10) 사립문고 협회 제20회 독서학교 안내문에는 스스로를 “마을마다 교회도서관을 세우고 책을 보급하여 국민들의 문화수준과 그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사립문고협회(약1,826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교회중심의 문고운동기관”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단체에서 실시하는 독서학교는 “제20회 교회도서관 운영을 위한 독서학교는 바쁜 일정 속에서 활동하는 목회자와 독서지도사들을 2박3일동안 총24시간 18강좌를 중점 교육하여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과 서적대출, 독서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하기 위한 교육”을 목표로 한다.

7) 민간단체 및 개인문고

민간단체문고는 지역의 시민운동단체나 봉사 및 친목단체 등에서 조직의 목적사업을 추진하며 형성된 관련 장서를 주민에게 개방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사립문고로 신고한 독서시설을 말한다. 이에 비해 개인문고는 개인이 수집한 자료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독서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사립문고이다. 대개의 경우 개인적 열의와 헌신으로 도서관과 독서교육의 의미를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적극적인 활동가로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독서지도사와 같은 단기 독서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활동가들이 지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 사설문고를 제공하면서 작은도서관운동의 원형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 조사결과에 의하면, 운영주체가 확인된 전체 1,542개 문고 중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문고는 118개(7.7%)이며,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문고는 162개 (10.5%)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제3절 공공도서관 분관으로서의 작은도서관

1.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그동안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거의 관련을 맺지 않은 채 설립, 운영되어 왔다.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사회적, 정책적 관심 또한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성이나 공공도서관의 지역서비스 확대차원에서 논의되기보다는 작은도서관 자체의 운영활성화 차원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추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작은도서관은 일정한 시설과 장서를 갖추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도서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가급적 편리하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이해된다. 이러한 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도서관서비스를 확장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작은도서관 진흥은 공공도서관의 지역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확장이라는 차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공공도서관은 직접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도서관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분관이나 이동도서관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분관이나 이동도서관은 운영하는 방식이나 유형에 있어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이용자 확대와 서비스 증진, 경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대다수의 공공도서관이 널리 사용하는 도서관서비스 확장 방식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작은도서관은 분관이나 이동도서관과 같이 공공도서관의 지역 도서관서비스 확장과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문고는 관련 법에 의거, 도서관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로 별도 규정되었으며, 이러한 시설들을 관리, 지원하는 체계 역시 도서관과는 별개의 부서에서 담당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과거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는 문고와 관련된 별도의 장을 두어 문고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도서관법에서는 문고를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면서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로 문고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문고를 중심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과 밀접한 연계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작은도서관에 공공도서관의 확장된 서비스 유형과 유사한 기능과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현재 문고의 운영실태가 공공도서관의 지원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 때문에도 그러하다.

현재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을 담당할 전담 인력이 부재한 사례는 말할 것도 없고 상시적 자료의 구입이나 원활한 대출/반납 시스템의 구축, 목록 작업 및 자료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일부 자료구입비나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그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한 현실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공공도서관과 직, 간접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공공도서관에게는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확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 자체는 그 운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공공도서관 분관의 일반적 유형

공공도서관은 지역내 도서관서비스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을 개발,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도서관서비스 확장의 일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분관(Branch)

공공도서관은 소재하는 위치에 따라 관할 지역 내 모든 봉사 인구를 대상으로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분관은 지역적 요소로 인해 한계를 가지는 본관의 도서관 활동을 보조하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봉사권역과 시설, 자료, 인력을 갖추고, 독립적인 도서관활동을 수행한다.¹¹⁾

○ 소분관(Sub-Branch)

소분관은 본관이나 분관에 비하여 개관시간이 짧고, 봉사범위도 제한되어 있는 소규모 분관으로, 일반적으로 2-3인의 인력으로 열람과 대출, 독서모임, 독서지도 등을 운영하는 곳

11) ALA의 분관 설치기준은 반경 0.5Km내의 봉사인구 2만5천내지 5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장서는 최저 1만5천책 내지 2만 책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다. 봉사인구 2만5천명 이하의 작은 공공도서관(Small Public Library)이 주로 이에 해당된다. 분관이 관할하는 구역 내에서 특히 이용이 많은 곳에 설치되며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은행, 시장 등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열람, 대출, 참고봉사 등을 수행하되, 입지하고 있는 공간의 특성에 따라 개관시간이 일정치 않다. 초등학교에 위치한 소분관의 경우 방과 후 시간만 개관하며, 은행소재 소분관의 경우 은행업무시간과 같이하는 경우가 많다.

○ 이동도서관(Mobile Library)

서가를 설치한 자동차에 도서를 비치하고 도서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이용자에게 열람, 대출을 실시하는 이동식분관으로서 공공도서관봉사지역을 확대하는 확장서비스의 전통적인 방식이다. 분관을 설치하기에는 이용수요가 많지 않은 고립지역이나 오지 등에 정기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평가되었으나, 최근에는 도시지역에서도 생활에 바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는 이동도서관으로 시민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도서관서비스로서 실시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 열람소(Deposit Station)

공공도서관의 서비스포인트(Service-Point) 유형의 하나로서, 분관을 설치하기에는 이용수요가 제한되어 효율성이 낮고, 배본소(Delivery Station)나 이동도서관(Mobile Library)으로는 이용이 많아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다. 시장이나 병원, 소방서, 공장 등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소규모의 공간을 마련하여 장서를 갖추고 열람과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도서관직원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문고관리를 위탁받은 곳에서 실비를 받고 부가서비스로서 대출반납을 수행하며 분관과 배본소의 중간규모의 시설이다.

○ 배본소(Delivery Station)

거리 혹은 시간적 제약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공도서관이 생활밀집지역에 설치한 출장소로서, 도서의 대출 및 반납업무만을 맡는다. 배본소는 자체의 장서를 가지지 않고, 이용자의 자료요청을 받으면 본관에 연락하여 요청된 자료를 받아 두면 이용자가 찾아가는 방식이다.

통신과 교통이 발전되지 못한 근대화 초기단계에 등장한 공공도서관 확장봉사의 서비스거점(Service Point)으로서 가장 먼저 등장한 유형이다. 최근에는 공공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대출반납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등에 반납함을 마련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도서관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다.

시카고 공공도서관의 확장봉사 발전사

- 1874년 : Delivery Station(배본소) 실시
 - 최초 관외봉사 형태, 자체보관 장서 없이 고객에게 대출반납서비스제공
 - 말이 끄는 마차로 신청도서를 배달, 개인상점에 설치
- 1880년대 : Deposit Station(열람소) 실시
 - 한 단계 진전된 확장봉사 유형(대출봉사를 위한 관외문고로 볼 수 있음).
 - 대출반납업무에 대한 실비의 수고비용을 주고 과자점 혹은 약국 등에 설치하였지만, 많은 이용자가 확보된 회사, 교회, 공장 등에 특별 열람소를 설치하기도.
 - 1909년에는 시카고공공도서관의 전체 대출건수의 2/3에 이르기까지 함.
- 1904년 : Branch Library 설립
 - 첫 번째 분관설립을 위한 기부금 출연
- 1910년대 : Branch Reading Room(지역열람실) 실시
 - 공원이나 회사의 옥상 등에 설치
 - 비대출용 참고집서와 조용한 열람공간으로 조성.
- 1916년 : Neighborhood Library(이웃도서관)의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분관 확장계획(Library Plan for the Whole City) 수립
 - 시카고 전역에 걸쳐 걸어서 접근가능한 분관시스템을 구현
- 1951년 : Mobile Library 이동분관도서관시스템 실시
 - 이동도서관자동차는 실시년도 첫째 8개월도 안되어 10만권을 대출.
- 1960년대 : 많은 수의 Neighborhood Branch Libraries 설립
 - 1985년까지 76개의 분관이 설치.
- 1985년 : 이후 기존의 도서관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작은규모의 이웃도서관이나 열람공간을 열람, 연구, 조사 등의 모든 분관서비스가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
- 1989년 : 공원이나 상가에 위치한 종래의 지역열람실 30여개를 분관수준으로 개편
- 1996년 : 미국도서관사상 가장 혁신적인 도서관지원 정책 실시.
 - (약5000만 달러(500억원)규모의 시설개선투자
 - 시카고 전역에서 현대적 첨단장비의 이웃도서관과 지역도서관으로 전환

분관시스템은 다양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확장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도서관이 발전한 서양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다. 공공도서관 분관은 “도서관 업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의 한 부서로서 별도의 장소에 세워져서 독자적인 공간과 장서, 그리고 직원을 갖고 정기적인 봉사 스케줄에 따라 공중에 봉사하는 도서관”으로 규정되기 하고, “중앙관과 떨어져 도서관서비스 활동이 전 지역 주민에게 균등하게 미치도록 설치된 도서관의 봉사거점으로서, 본관과 지휘명령 계통이 동일하며 일정한 시설과 장서와 정규직원을 가지고 일정한 권한 내에서 독자적인 운영 기능을 갖는 도서관”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분관의 유형과 규모, 기능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 유형으로 제시된다. (이용남, 2006: 355-356)

□ Bowler의 구분¹²⁾

○ 지역분관(Regional branch): 종합적인 도서관봉사를 수행하면서 인근 지역의 작은 분

12) Roberta Bowler 편, 장일세 역 (1969), 『공공도서관운영』, 한국도서관협회.

관의 관할까지 책임을 지는 종합서비스 분관

- 지역사회분관(Community branch): 적절하고 잘 조직된 장서 및 전문사서와 보조인력을 갖추고 일주에 48-66시간정도 개관하는 분관
- 소분관(Sub-branch): 대중적인 읽을거리에 중점을 둔 최소한도의 장서를 가진 작은 대출기관. 일주일에 5일정도 부분개관
- 이동도서관(Book mobile): 원거리주민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는 자동차도서관

□ Rochell의 구분¹³⁾

- 종합서비스 분관(Library service branch): 중앙관이 수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도서관서비스와 비슷하게 참고서비스나 기타 특수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규모가 큰 분관
- 자료대출 분관(Book-distributing branch): 주로대중들이 원하는 자료의 대출만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규모가 작은 분관

일반적으로 중앙관과 분관의 업무 분담은 다음과 같다.

<표 9> 중앙관과 분관의 업무 분담비교

업무 분담 내용		중앙관	분관	
			종합서비스분관	자료대출분관
관리운영	정책 및 주요 의사결정	○		
	정책수행, 설명, 조언		○	○
	인사정책 및 고용	○		
	소속직원 감독, 스케줄 관리		○	○
	예산·회계	○		
	도서관전산시스템 운영	○		
	지역사회활동 참여		○	○
	가구와 비품구입	○		
간접봉사	대외홍보	○		
	자료 선택		○	○
	자료 주문·구입	○		
공중봉사	자료 분류·편목	○		
	대출규정 제정	○		
	자료 열람·대출		○	○
	참고·정보봉사		○	
	교육·문화프로그램 업무		○	
	이동도서관 대출문고 관리		○	

※ 출처: 이용남,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분관 운영체제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제1호(2006.3), 358쪽.

13) Rochell, Carlton (1981), *Wheeler and Goldhor's Practical Administration of Public Libraries*, New York: Harper.

3. 분관으로서의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립되어 지역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의 시설이나 인력, 장서 규모 등은 불가피하게 작은 규모를 떨 수밖에 없으므로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풍부히 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속에서 운영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도서관과 연계를 맺는 방식에는 크게 직접적 방식과 간접적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작은도서관의 유형과 규모, 서비스 성격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좌우된다. 이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방식으로는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에 포함되어 운영되는 것을 구상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은 그 유형과 서비스 성격상 직접적으로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에 포함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공공도서관조차 현실 여건에서 작은도서관을 분관시스템에 포함시켜 이를 지원, 운영하는 것은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공도서관의 지역서비스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 근거하여 볼 때,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에 포함시켜 운영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올해 개정된 도서관법에서는 문고를 공공도서관의 하위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기존의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문고를 도서관과 별도의 장으로 독립시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온 결과 문고를 공공도서관과 별개의 시설로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도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경향을 사회적, 행정적 차원에서 보여 왔다. 예를 들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고를 담당하는 부서와 도서관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이 가운데 도서관과 문고 관련 지원시책이 별도로 구분되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문고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개정 도서관법은 문고를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 공공도서관 지원정책 안에 문고지원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방향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에 편입시키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과제는 매우 많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본관-분관시스템을 고려하면 현재의 작은도서관은 기존의 분관과 같은 유형으로는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에 편입되는 유형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은 기존의 분관 조직 및 규모와는 다른 형태의 역할과 기능,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제3장 작은도서관 관련실태 및 외국사례

제1절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실태분석

1. 작은도서관 현황 및 운영 실태

가.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에 관한 전국 조사 결과

1) 전국 집계 문고현황

법률적 차원에서 볼 때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인 문고 유형에 해당한다. 문고와 작은도서관은 시대의 앞뒤를 두고 주민의 자치조직으로 지역사회 독서운동을 주도하여 왔다는 점에서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많은 개념으로 볼 수 도 있으며, 또 광의의 범주에서는 문고와 작은도서관을 동일한 활동에 대한 시대적 명칭의 차이로 볼 수 있다. 곧 작은도서관과 문고는 분명한 경계를 가지는 이질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문고 활동이 작은도서관으로 발전하였다고 평가되며, 문고는 작은도서관의 출발점이자 잠재적인 발생체로 지적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편의상 문고를 작은도서관의 기초 단위로 보고, 문고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해 작은도서관 현황 및 실태분석으로 가름하고자 한다.

과거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39조는 문고기준에 부합하는 독서시설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2005년 말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문고의 현황은 아래 <표 10>와 같이 집계되고 있다. 다만 법령상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립문고는 신고대상이지만,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립문고의 경우는 신고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등록되어 있는 문고가 사립문고를 중심으로 집계되었다는 문제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앞서 작은도서관의 유형으로 살펴본 새마을문고의 분석 내용에서 전국 새마을문고가 16개 시도지부에 걸쳐 모두 2,422개나 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는 전국 시군구에 등록된 문고 공식집계 2,872개와 비교할 때, 새마을문고 가운데 상당수가 시군구 공식집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들 새마을문고는 그 운영주체로서 새마을문고중앙회의 시도지부를 공공기관으로 볼 것이냐, 민간기구로 볼 것이냐 등의 판단에 따라 지역마다 공립문고로 혹은 사립문고로 신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립문고의 신고의무를 벗어난 공립문고로 간주한 경우 시군구 신고를 하지 않아, 대부분이 문고집계에서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한 일부 지부의 경우 문고활동을 중지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0> 전국 등록문고 현황(2005.12.31 기준)

구분 도	문고수	연면적 (㎡)	평균 (㎡)	열람 좌석수	평균 열람석수	보유장서수 (책)	평균보유 장수(책)	공립	사립
서울	571	27,309	47.8	8,977	15.7	3,033,519	5,312	483	88
부산	130	10,954	84.3	3,625	27.9	472,168	3,632	37	93
대구	61	6,158	101.0	1,600	26.2	151,577	2,485	-	61
인천	77	6,577	85.4	2,215	28.8	359,117	4,664	26	51
광주	42	4,500	107.1	1,941	46.2	156,740	3,732	2	40
울산	44	3,627	82.4	1,233	28.0	106,974	2,431	14	30
대전	69	4,846	70.2	1,792	26.0	271,797	3,939	29	40
경기	546	51,549	94.4	14,399	26.4	1,928,125	3,531	23	523
강원	109	10,518	96.5	2,795	25.6	215,509	1,977	-	109
충북	161	18,869	117.2	5,469	34.0	395,614	2,457	19	142
충남	96	7,610	79.3	2,491	25.9	228,400	2,379	3	93
전북	188	17,278	91.9	5,200	27.7	431,016	2,292	29	159
전남	269	25,036	93.1	7,521	28.0	546,340	2,031	55	214
경북	156	13,865	88.9	5,026	32.2	456,760	2,928	1	155
경남	211	7,043	33.4	1,015	4.8	95,246	451	57	154
제주	142	14,265	100.5	4,119	29.0	450,477	3,172	-	142
합계	2,872	230,004	80 (24평)	69,418	24석	9,299,379	3,287	778 (27.1%)	2,094 (72.9%)

2005.12월 기준, 작은도서관 단위로서 전국의 문고 수는 공립문고 778관(27.1%)과 사립문고 2,094관(72.9%)로 모두 2,872개가 집계되었으며, 문고는 평균 24평의 규모로 24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고, 평균 3,287책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고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과 경기, 인천의 문고수가 1,194개로서 전체의 41.6%를 차지하여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대구, 강원, 제주 등은 공립문고가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지역 등의 농촌지역이 문고분포가 활발한 반면, 대구 광주, 울산, 대전 등의 광역시 지역의 문고분포가 부진한 것으로 비교되고 있다. 문고의 면적은 전국평균 80평방미터로 약 24평의 크기로, 이는 10평 이상 등록을 규정한 기준 면적에 비교해 예상보다 큰 규모였으며, 열람석이나 소장자료 역시 6석 이상 및 1,000권 이상의 기준을 넘어 문고 당 24석의 열람석과 3,287책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2) 운영주체

2006.6월 기준,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통해 확인된 2,215개 문고 중 운영주체가 확인된 1,542개 문고의 운영주체를 확인한 결과, 가장 많은 문고를 운영하는 단체는 새마을문고중앙회의 307개(19.9%)를 제치고, 종교단체 390개(25.3%)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지적되었듯이, 새마을문고의 대부분이 공립문고로서 제대로 등록되지 못한 이유와, 새마을문고의 현재 쇠퇴 현상을 동시에 반영한 결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문고 169

개(11.0%), 개인운영 문고 162개(10.5%), 아파트운영 문고 136개(8.8%)의 순으로 비중이 높고, 교육청운영 문고 2개(0.1%), 공공도서관운영 문고 4개(0.3%)로 문고지원에 많은 역할이 기대되는 기관의 문고운영 수가 현저히 낮은 것이 두드러지고 있다.

<표 11> 운영주체 현황

구분 도	운영주체 (단위: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교육청	동사무소	민간단체	종교단체
서울	40(25.0%)	0	0	60(37.5%)	9(5.6%)	15(9.4%)
부산	7(8.8%)	2(2.5%)	0	11(13.8%)	3(3.8%)	20(25.0%)
대구	0	0	0	0	8(16.7%)	9(18.8%)
인천	2(5.0%)	0	0	5(12.5%)	3(7.5%)	9(22.5%)
광주	0	0	1(2.7%)	6(16.2%)	1(2.7%)	12(32.4%)
울산	4(11.4%)	0	0	7(20.0%)	0	10(28.6%)
대전	3(4.1%)	0	0	42(57.5%)	3(4.1%)	11(15.1%)
경기	8(2.3%)	0	0	10(2.8%)	15(4.2%)	120(34.0%)
강원	0	1(1.6%)	0	2(3.1%)	5(7.8%)	38(59.4%)
충북	27(28.7%)	0	0	3(3.2%)	5(5.3%)	19(20.2%)
충남	4(7.7%)	0	0	1(1.9%)	2(3.8%)	29(55.8%)
전북	1(0.8%)	0	0	5(3.9%)	30(23.3%)	41(31.8%)
전남	2(3.3%)	1(1.7%)	0	8(13.3%)	2(3.3%)	20(33.3%)
경북	2(1.6%)	0	0	0	4(3.1%)	13(10.2%)
경남	30(20.4%)	0	1(0.7%)	8(5.4%)	20(13.6%)	22(15.0%)
제주	0	0	0	1(2.2%)	8(17.4%)	2(4.3%)
계	130(8.4%)	4(0.3%)	2(0.1%)	169(11.0%)	118(7.7%)	390(25.3%)

구분 도	운영주체 (단위:관)					
	아파트	새마을문고	종합복지관	개인	기타	계
서울	7(4.4%)	23(14.4%)	1(0.6%)	3(1.9%)	2(1.3%)	160(100.0%)
부산	1(1.3%)	13(16.3%)	5(6.3%)	13(16.3%)	5(6.3%)	80(100.0%)
대구	6(12.5%)	0	1(2.1%)	22(45.8%)	2(4.2%)	48(100.0%)
인천	5(12.5%)	1(2.5%)	1(2.5%)	5(12.5%)	9(22.5%)	40(100.0%)
광주	5(13.5%)	1(2.7%)	4(10.8%)	7(18.9%)	0	37(100.0%)
울산	5(14.3%)	0	0	1(2.9%)	8(22.9%)	35(100.0%)
대전	0	0	4(5.5%)	5(6.8%)	5(6.8%)	73(100.0%)
경기	64(18.1%)	70(19.8%)	4(1.1%)	42(11.9%)	20(5.1%)	353(100.0%)
강원	2(3.1%)	5(7.8%)	0	6(9.4%)	5(7.8%)	64(100.0%)
충북	9(9.6%)	21(22.3%)	3(3.2%)	6(6.4%)	1(1.1%)	94(100.0%)
충남	2(3.8%)	1(1.9%)	0	12(23.1%)	1(1.9%)	52(100.0%)
전북	6(4.7%)	8(6.2%)	3(2.3%)	20(15.5%)	15(11.6%)	129(100.0%)
전남	1(1.7%)	21(35.0%)	0	3(5.0%)	2(3.3%)	60(100.0%)
경북	2(1.6%)	83(65.4%)	4(3.1%)	12(9.4%)	4(3.1%)	124(100.0%)
경남	19(12.9%)	32(21.8%)	1(0.7%)	5(3.4%)	9(6.1%)	147(100.0%)
제주	2(4.3%)	28(60.9%)	0	0	5(10.9%)	46(100.0%)
계	136(8.8%)	307(19.9%)	31(2.0%)	162(10.5%)	93(6.1%)	1,542(100.0%)

* 응답자 기준

3) 예산규모

예산규모가 확인된 1,542개 문고의 예산지출내역을 보면 문고 당 평균 518만원 정도의 지출이 집계되었다. 전체적 예산규모에서 인건비 부분이 181만원(35%)으로 가장 높고, 자료구입비 158만원(30.6%), 기타 운영비 129만원(25%),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9.6%) 등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문고마다 1년에 책구입에 지출하는 금액이 158만원 정도라면, 2005년 출판연감의 평균출판단가 11,200원으로 계산하여 평균 141권 내외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문고의 장서규모가 3,287책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매년 4.3%정도의 장서성장이 예상된다. 이는 바람직한 자료성장을인 10%에 못 미치는 수치로서 문고운영 규모의 영세성을 반증하고 있다.

문고의 특성상 자원봉사인력과 비상근 인력이 자원봉사를 통해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도, 인건비 연간 지출액 181만원은 월 15만원 정도로, 이는 인건비라기보다는 참여봉사자에 대한 교통비나 식사비용으로도 부족한 금액으로 문고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짐작케한다.

<표 12> 1관당 연간예산지출내역

구분 도	1관당 예산지출내역 (단위:천원)				
	인건비	자료구입비	프로그램운영비	기타운영비	계
서울	1,107.1(31.4%)	1,619.9(45.9%)	139.5(3.9%)	657.5(18.6%)	3,524.0
부산	2,419.1(41.4%)	1,587.1(27.1%)	372.4(6.4%)	1,464.1(25.1%)	5,842.7
대구	3,958.3(36.6%)	2,844.5(26.2%)	250.6(2.3%)	3,787.1(34.9%)	10,840.5
인천	1,799.1(28.0%)	2,276.3(35.4%)	881.8(13.7%)	1,473.8(22.9%)	6,431.0
광주	4,845.8(50.4%)	1,943.3(20.5%)	682.3(7.1%)	2,139.2(22.2%)	9,610.6
울산	835.6(14.7%)	2,724.8(47.9%)	957.2(16.8%)	1,166.4(20.6%)	5,684.0
대전	813.1(25.1%)	1,418.7(43.9%)	354.4(11.0%)	646.9(20.0%)	3,233.1
경기	1,568.6(29.6%)	1,824.9(34.1%)	761.4(14.4%)	1,145.9(21.6%)	5,300.8
강원	2,313.1(39.0%)	1,811.3(30.6%)	715.4(12.0%)	1,088.1(18.4%)	5,927.9
충북	778.9(34.0%)	724.4(31.6%)	359.6(15.7%)	427.6(18.7%)	2,290.5
충남	1,849.3(41.4%)	1,307.3(29.2%)	241.6(5.4%)	1,071.3(24.0%)	4,469.5
전북	190.4(7.5%)	968.1(38.1%)	49.2(1.9%)	1,330.5(52.5%)	2,538.2
전남	211.4(25.6%)	332.3(40.3%)	80.3(1.8%)	200.8(24.3%)	824.8
경북	642.2(21.3%)	1,213.9(40.3%)	359.9(11.9%)	798.2(26.5%)	3,014.2
경남	5,293.4(42.2%)	2,499.4(20.0%)	1,633.2(13.1%)	3,081.3(24.7%)	12,507.3
제주	291.4(31.4%)	246.3(26.6%)	159.9(17.2%)	229.9(24.2%)	927.5
전국 평균	1,807.3	1,583.9	499.9	1,294.2	5,185.4
비율	34.9%	30.6%	9.6%	24.9%	100%

* 전체 조사대상 기준

한편 문고 예산의 수입내역을 보면, 행정기관지원이 37%, 운영자 부담이 21%, 후원회비 7.7%, 종교단체지원 7.3%, 문고회비 및 이용료 5.7%, 개인기부 2.8%, 기업체지원 1.1% 등으로 나타나, 여러 다양한 경로의 기금지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개별문고별로 보면 운영주체에 따라 운영자금의 수입구조는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13> 1관당 연간예산수입내역

구분 도	1관당 예산수입내역 (단위:천원)						
	행정기관지원	문고 회원비 및 이용료	후원회 회비	기업체지원	민간단체 지원	개인기부	프로그램 참가비
서울	2,140.4(83.7%)	66.4(2.5%)	27.3(1.0%)	7.2(0.3%)	10.3(0.4%)	20.2(0.8%)	21.6(0.8%)
부산	1,518.4(29.0%)	692.6(13.2%)	307.2(5.8%)	210.9(4.1%)	18.7(0.3%)	116.6(2.2%)	461.1(8.8%)
대구	645.8(6.4%)	1,091.4(9.9%)	3,091.8(28.0%)	62.5(0.5%)	116.6(1.1%)	179.1(1.6%)	675.8(6.1%)
인천	1,847.2(33.1%)	354.3(6.3%)	253.4(4.6%)	50.0(0.9%)	55.5(1.0%)	41.6(0.7%)	140.9(2.5%)
광주	916.2(11.1%)	3,174.2(38.6%)	502.8(6.1%)	15.7(6.2%)	0	783.6(9.5%)	146.1(1.8%)
울산	3,407.1(58.3%)	53.8(0.9%)	54.1(1.0%)	162.8(2.8%)	40.5(0.7%)	24.3(0.4%)	745.1(12.7%)
대전	1,036.9(50.1%)	0	372.5(18.0%)	0	163.1(7.9%)	113.9(5.5%)	35.4(1.7%)
경기	2,102.2(52.9%)	119.1(3.0%)	116.7(2.9%)	15.3(0.4%)	41.8(1.1%)	80.1(2.0%)	136.1(3.4%)
강원	515.6(10.0%)	3.1(0.06%)	244.3(4.7%)	265.6(5.1%)	503.8(9.8%)	209.3(4.1%)	155.1(3.0%)
충북	1,821.7(71.8%)	3.1(0.1%)	9.2(0.4%)	0	59.6(2.3%)	34.8(1.4%)	4.5(0.2%)
충남	1,697.3(47.3%)	500.0(14.0%)	78.4(2.2%)	0	0	199.7(5.6%)	22.3(0.6%)
전북	452.1(18.1%)	0	27.3(1.1%)	0	79.8(3.2%)	24.8(1.0%)	5.9(0.2%)
전남	110.5(15.7%)	103.9(14.8%)	19.6(2.9%)	20.3(0.3%)	46.3(6.6%)	44.7(6.3%)	7.8(1.1%)
경북	943.7(31.4%)	106.9(3.6%)	405.5(13.5%)	0	13.5(0.5%)	50.2(0.2%)	32.2(1.1%)
경남	6,788.7(60.9%)	38.9(0.4%)	207.6(1.9%)	12.3(0.1%)	16.7(0.2%)	82.3(0.7%)	2,991.4(26.8%)
제주	466.2(60.2%)	43.6(5.6%)	0	0	1.4(1.8%)	46.7(6.0%)	0
전국 평균	1,650.6(36.0%)	396.9(4.3%)	357.3(7.7%)	51.4(1.1%)	73.0(1.6%)	128.2(2.8%)	348.8(7.6%)
비율	36.00%	4.30%	7.70%	1.10%	1.60%	2.80%	7.60%

구분 도	1관당 예산수입내역 (단위:천원)					
	운영자 자체부담	지방공사 및 사업소지원	종교단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타수입	계
서울	157.5(6.1%)	12.3(0.5%)	72.8(2.8%)	4.1(0.2%)	46.6(1.8%)	2586.7(100.0%)
부산	1,151.9(21.9%)	0	546.3(10.4%)	0	214.2(4.1%)	5237.9(100.0%)
대구	2,890.6(26.1%)	0	947.9(8.6%)	254.6(2.3%)	1,040.4(9.4%)	10996.5(100.0%)
인천	1,658.6(29.8%)	694.4(12.5%)	348.6(6.3%)	123.3(2.2%)	2.7(0.1)	5570.5(100.0%)
광주	1,380.7(16.8%)	0	669.7(8.1%)	374.8(4.6%)	263.1(3.2%)	8226.9(100.0%)
울산	472.9(8.1%)	0	424.3(7.3%)	0	460.5(7.9%)	5845.4(100.0%)
대전	229.5(11.0%)	0	114.2(5.5%)	0	5.9(0.3%)	2071.4(100.0%)
경기	762.1(19.2%)	0	378.7(9.5%)	195.8(4.9%)	24.7(0.6%)	3972.6(100.0%)
강원	2,084.3(40.4%)	0	1,074.5(20.8%)	0	109.3(2.1%)	5164.9(100.0%)
충북	335.7(13.2%)	0	244.9(9.6%)	25.6(1.0%)	0	2539.1(100.0%)

충남	860.4(24.0%)	0	63.2(1.8%)	113.5(3.7%)	50.2(1.4%)	3085.0(100.0%)
전북	,517.1(60.9%)	0	272.9(11.0%)	31.4(1.3%)	82.6(3.3%)	2493.9(100.0%)
전남	283.5(40.3%)	0	60.3(8.6%)	0	7.1(1.0%)	704.0(100.0%)
경북	198.3(6.6%)	0	244.1(8.1%)	340.1(11.3%)	670.8(22.3%)	3005.3(100.0%)
경남	643.7(5.8%)	0	241.6(2.2%)	42.9(0.4%)	68.9(0.6%)	11135.0(100.0%)
제주	9.3(1.2%)	74.6(9.6%)	0	0	132.3(17.1%)	774.1(100.0%)
전국 평균	914.7	48.8	335.5	94.1	198.7	4588.1
비율	19.90%	1.00%	7.30%	2.00%	4.30%	100.00%

* 전체 조사대상 기준

4) 인력 운영

공공도서관의 2006년 8월 현재 전국 2,215개 문고의 인력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고 당 평균 근무인원은 4.43명으로 이중 자원봉사자가 3.72명(85%)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시간제 0.2명(4.7%), 전임직원 0.36명(8%), 기타인력 0.1명(2.2%)으로 나타나, 극히 일부의 문고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문고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을 극명히 확인시켜 주고 있다.

<표 14> 1관당 인력현황

구분 도	1관당 인력현황 (단위:명)				
	전임	시간제	자원봉사	기타	계
서울	0.12(1.3%)	0.06(0.7%)	8.17(94.2%)	0.33(3.8%)	8.68(100.0%)
부산	0.38(5.2%)	0.34(4.8%)	6.30(88.1%)	0.13(1.9%)	7.15(100.0%)
대구	0.69(26.0%)	0.31(12.0%)	10.63(61.0%)	0.04(1.0%)	5.80(100.0%)
인천	0.90(10.3%)	0.26(3.0%)	7.28(83.7%)	0.26(3.0%)	8.70(100.0%)
광주	0.42(12.5%)	0.31(9.6%)	2.36(71.8%)	0.13(4.1%)	3.22(100.0%)
울산	0.16(7.1%)	0	1.67(74.8%)	0.40(18.1%)	2.23(100.0%)
대전	0.13(2.2%)	0.02(0.3%)	5.54(96.8%)	0.03(0.5%)	5.72(100.0%)
경기	0.26(6.5%)	0.21(5.3%)	3.45(87.3%)	0.03(0.7%)	3.95(100.0%)
강원	0.51(18.5%)	0.17(6.2%)	2.04(74.2%)	0.03(1.1%)	2.75(100.0%)
충북	0.52(20.5%)	0.23(9.0%)	1.79(70.5%)	0	2.54(100.0%)
충남	0.37(22.7%)	0.14(8.6%)	1.1(6.7%)	0.02(1.0%)	1.63(100.0%)
전북	0.54(27.9%)	0.02(1.1%)	1.22(63.2%)	0.15(7.8%)	1.93(100.0%)
전남	0.05(13.1%)	0.05(13.1%)	0.27(71.0%)	0.01(2.8%)	0.38(100.0%)
경북	0.17(2.6%)	0.07(1.1%)	6.17(94.4%)	0.12(1.8%)	6.53(100.0%)
경남	0.51(6.9%)	1.14(15.4%)	5.67(76.6%)	0.04(1.1%)	7.36(100.0%)
제주	0.03(1.6%)	0.02(1.1%)	1.79(97.3%)	0	1.84(100.0%)
전국	0.36	0.20	3.72	0.10	4.43
비율	8.0%	4.7%	85.0%	2.2%	100.0%

* 응답자 기준

이들 근무인력 중에서 사서자격 및 기타 독서지도사 등의 자격을 가진 참여인원은 전체 인원의 평균 4.43명의 15%정도인 평균 0.68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유자격자의 87.6%인 평균 0.6명이 독서지도사 등의 독서관련 단기교육이수자 혹은 교직이수자 등이 대부분이었고, 사서직 자격자는 전체 유자격자의 12.4%에 불과했다.

5) 자료 운영

조사대상 문고 2,215개의 평균 장서는 도서 3,216권, 비도서자료 46점, 연속간행물 3종, 온라인 콘텐츠 0.3종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자원으로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함께 전자자료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일부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문고의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유용한 시사점을 암시해 주고 있다.

<표 15> 장서현황

구분 도	장서현황(총수, 1관당 수)			
	도서(책)	비도서(점)	연속간행물(종)	온라인콘텐츠(점)
서울	674,085(4780.7)	4,793(62.2)	180(3.0)	16(0.3)
부산	377,766(4722.0)	9,687(248.2)	1,134(31.5)	0
대구	142,647(2971.8)	2,034(84.7)	255(9.8)	0
인천	223,299(5582.4)	3,354(108.1)	58(1.8)	0
광주	147,520(3882.1)	2,285(60.1)	60(1.6)	1(0.03)
울산	95,526(2729.3)	570(35.6)	51(3.2)	1(0.06)
대전	270,147(3752.0)	2,704(135.2)	27(2.4)	120(6.3)
경기	1,656,538(4732.9)	19,523(111.6)	8,346(48.2)	1,502(8.5)
강원	225,422(3522.2)	3,295(84.4)	171(4.4)	0
충북	202,208(2496.4)	5,830(188.0)	134(4.47)	100(3.3)
충남	6,66734(13073.2)	3,800(146.15)	189(6.3)	0
전북	328,238(2564.8)	6,889(93.0)	52(0.7)	0
전남	204,746(3356.4)	5,509(275.5)	48(4.36)	12(6.0)
경북	465,573(3785.1)	4,655(193.9)	270(10.3)	111(22.2)
경남	639,990(4383.4)	20,808(285.0)	311(4.3)	0
제주	127,619(2774.3)	410(37.3)	0(0.5%)	0
전국	6,448,058(41061.8)	96,141(1,343.3)	11,311(8.5)	1,863(2.9)

6) 전산화

조사대상 2,215개 문고의 전산화정도를 표현하는 지표로서 전산시스템 사용여부에 대한 응답으로 전체의 23.7%인 526개 문고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1,689개 문고 약 77%가 전산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문고의 전산화 현황이 매우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를 소유한 문고들의 평균 컴퓨터 대수는 약 1.5대 정도이고, 영상기기나 오디오 등의 장비보유 역시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6> 1관당 컴퓨터 및 시청각 기기 보유현황

구분 도	전산시스템 사용	1관 당 컴퓨터 및 시청각 기기 보유현황(대)			
		컴퓨터	영상기기	오디오	계(100%)
서울	136(56.2%)	1.6(80.0%)	0.2(10.0%)	0.2(10.0%)	2.0
부산	28(29.2%)	1.8(58.1%)	0.6(19.3%)	0.7(22.6%)	3.1
대구	10(20.8%)	1.3(46.4%)	0.6(21.4%)	0.9(32.2%)	2.8
인천	21(29.2%)	1.1(78.5%)	0.1(7.1%)	0.2(14.4%)	1.4
광주	10(26.3%)	3.2(76.1%)	0.5(11.9%)	0.5(11.9%)	4.2
울산	10(27.0%)	1.3(65.0%)	0.4(20%)	0.3(15%)	2.0
대전	22(26.2%)	1.2(80.0%)	0.2(13.3%)	0.1(6.6%)	1.5
경기	167(33.5%)	1.0(71.4%)	0.2(14.3%)	0.2(14.3%)	1.4
강원	12(18.8%)	3.2(78.0%)	0.5(12.3%)	0.4(9.7%)	4.1
충북	7(6.4%)	1.6(80.8%)	0.2(10.0%)	0.2(10.0%)	2.0
충남	6(8.1%)	1.4(77.8%)	0.2(11.1%)	0.2(11.1%)	1.8
전북	11(6.5%)	0.7(77.8%)	0.1(11.1%)	0.1(11.1%)	0.9
전남	4(1.6%)	0.3(76.0%)	0.1(25.5%)	0	0.4
경북	23(18.1%)	1.2(35.2%)	1.1(32.4%)	1.1(32.4%)	3.4
경남	59(36.4%)	2.0(86.9%)	0.2(8.7%)	0.1(4.4%)	2.3
제주	0	0.7(100.0%)	0	0	0.7
계	526(23.7%)	1.5(71.5%)	0.2(12.7%)	0.3(15.8%)	2.0(100%)
비율	23.7%	71.5%	12.7%	15.8%	100%

7) 개관 시간

문고의 평균 개관시간은 하루 4.6시간이고, 주당 약 4.2일을 개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개관시간을 조사한 결과, 공휴일 개관을 실시하고 있는 문고는 전체 2,215개 문고 중 379(17.1%)개이고, 오후 6시 이후에도 개관하는 문고는 1,595개(72.0%)로 확인되었다. 자원봉사에 주로 의존하는 문고운영 실정을 고려할 때, 공휴일 개관과 오후 6시 이후 운영이 쉽지 않은 여건임에도 적지 않은 문고가 이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

<표 17> 문고의 평균개관시간

구분 도	개 관 현 황			
	1관당 개관시간 (시간)	주당 개관일수 (일)	공휴일개관 (관)	야간개관(18시이후) (관)
서울	5.1	5.0	79(33.1%)	160(66.1%)
부산	4.2	4.2	9(9.4%)	18(18.8%)
대구	6.3	5.3	6(12.5%)	26(54.2%)
인천	2.9	3.1	4(5.6%)	6(8.3%)

광주	7.2	5.5	10(26.3%)	17(44.7%)
울산	4.4	4.7	3(8.1%)	9(24.3%)
대전	4.7	4.5	2(2.4%)	14(16.7%)
경기	3.1	3.4	49(9.8%)	105(21.1%)
강원	6.9	6.1	36(56.3%)	31(48.4%)
충북	4.3	3.9	15(13.8%)	30(27.5%)
충남	4.4	3.7	20(27.0%)	21(28.4%)
전북	5.5	4.5	60(35.5%)	33(19.5%)
전남	1.9	1.2	16(6.3%)	19(7.5%)
경북	4.5	4.3	17(13.4%)	33(26.0%)
경남	5.8	5.1	27(16.7%)	61(37.7%)
제주	2.8	2.2	26(18.6%)	37(26.4%)
계	4.6	4.2	379(17.1%)	620(28.0%)

* 응답자 기준

8) 운영프로그램

문고에서 실시하는 각종 서비스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역시 자료열람(1,120관, 25.1%)과 자료대출(1,074관, 24.0%)이었고, 이어서 독서실제공(463관, 10.4%)과 공부방 및 학습지도(402관, 9.0%), 독서지도(375관, 8.4%), 독서토론(259관, 5.8%), 어린이문화강좌(211관, 4.7%), 어린이캠프(156관, 3.5%) 순으로 나타나 운영프로그램이 주로 어린이 독서와 학습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8> 문고에서 실시중인 운영프로그램

구분 도	운영프로그램 - 다중응답 (단위:관)					
	자료열람	자료대출	독서실	공부방 및 학습지도	독서토론	독서지도
서울	140(39.1%)	142(39.7%)	20(5.6%)	11(3.1%)	6(1.7%)	9(2.5%)
부산	56(21.1%)	58(21.8%)	23(8.6%)	31(11.7%)	23(8.6%)	31(11.7%)
대구	46(25.4%)	40(22.1%)	10(5.5%)	10(5.5%)	21(11.6%)	23(12.7%)
인천	27(18.8%)	28(19.4%)	15(10.4%)	13(9.0%)	12(8.3%)	19(13.2%)
광주	27(17.2%)	25(15.9%)	26(16.6%)	23(14.6%)	12(7.6%)	14(8.9%)
울산	11(25.6%)	12(27.9%)	6(14.0%)	4(9.3%)	1(2.3%)	2(4.7%)
대전	61(34.5%)	55(31.1%)	12(6.8%)	9(5.1%)	7(4.0%)	10(5.6%)
경기	230(21.2%)	229(21.1%)	116(10.7%)	89(8.2%)	75(6.9%)	118(10.9%)
강원	51(20.7%)	48(19.5%)	27(11.0%)	31(12.6%)	12(4.9%)	22(8.9%)
충북	42(25.0%)	39(23.2%)	29(17.3%)	25(14.9%)	6(3.6%)	10(6.0%)
충남	32(20.1%)	26(16.4%)	22(13.8%)	15(9.4%)	12(7.5%)	21(13.2%)
전북	127(32.5%)	118(30.2%)	33(8.4%)	39(10.0%)	18(4.6%)	33(8.4%)
전남	49(27.4%)	47(26.3%)	28(15.6%)	18(10.1%)	6(3.4%)	12(6.7%)
경북	83(24.8%)	84(25.1%)	31(9.3%)	34(10.1%)	17(5.1%)	19(5.7%)
경남	108(22.5%)	104(21.7%)	47(9.8%)	41(8.6%)	30(6.3%)	28(5.8%)
제주	19(21.1%)	19(21.1%)	18(20.0%)	9(10.0%)	1(1.1%)	4(4.4%)
계	1120	1074	463	402	259	375
비율	25.1%	24.0%	10.4%	9.0%	5.8%	8.4%

구분 도	운영프로그램 - 다중응답 (단위:관)					계
	어린이캠프	어린이대상 문화강좌	성인(주부)대상 문화강좌	가족단위 프로그램	기타	
서울	1(0.3%)	6(1.7%)	13(3.6%)	1(0.3%)	9(2.5%)	358(100.0%)
부산	11(4.1%)	9(3.4%)	10(3.8%)	6(2.3%)	8(3.0%)	266(100.0%)
대구	8(4.4%)	7(3.9%)	8(4.4%)	5(2.8%)	3(1.7%)	181(100.0%)
인천	8(5.6%)	7(4.9%)	6(4.2%)	5(3.5%)	4(2.8%)	144(100.0%)
광주	4(2.5%)	7(4.5%)	9(5.7%)	4(2.5%)	6(3.8%)	157(100.0%)
울산	2(4.7%)	2(4.7%)	2(4.7%)	0	1(2.3%)	43(100.0%)
대전	4(2.3%)	6(3.4%)	5(2.8%)	5(2.8%)	3(1.7%)	177(100.0%)
경기	35(3.2%)	74(6.8%)	57(5.3%)	16(1.5%)	44(4.1%)	1083(100.0%)
강원	18(7.3%)	11(4.5%)	9(3.7%)	7(2.8%)	10(4.1%)	246(100.0%)
충북	4(2.4%)	3(1.8%)	4(2.4%)	0	6(3.6%)	168(100.0%)
충남	12(7.5%)	7(4.4%)	4(2.5%)	0	8(5.0%)	159(100.0%)
전북	5(1.3%)	8(2.0%)	4(1.0%)	0	6(1.5%)	391(100.0%)
전남	7(3.9%)	5(2.8%)	0	1(0.6%)	6(3.4%)	179(100.0%)
경북	13(3.9%)	19(5.7%)	24(7.2%)	5(1.5%)	6(1.8%)	335(100.0%)
경남	23(4.8%)	31(6.5%)	33(6.9%)	12(2.5%)	22(4.6%)	479(100.0%)
제주	1(1.1%)	9(10.0%)	7(7.8%)	3(3.3%)	0	90(100.0%)
계	156	211	195	70	142	4467
비율	3.5%	4.7%	4.4%	1.5%	3.2%	100.0%

* 응답자 기준

9) 이용 현황

평일 문고이용자의 평균인원은 약 30명 정도로 집계되었다. 단, 이용자수 응답에 소극적인 무응답이 802관(36.2%)에 이르고 있는 점은, 자원봉사인력으로 운영되는 이들 문고의 운영 여건상 기초적인 이용자 통계업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결과로 보인다. 전체문고의 23.7%에 불과한 업무시스템의 전산화를 보급함으로써, 기초적인 통계업무의 개선이 요망된다.

<표 19> 1일 평균 이용 현황

구분 도	1일 평균 이용 현황(평일), (단위: 관, 명)					1관당 평균인원
	5명미만	5~10명미만	10~20명미만	20~50명미만	50명 이상	
서울	13(9.7%)	23(17.2%)	23(17.2%)	34(25.4%)	41(30.6%)	376.9
부산	2(2.7%)	16(21.9%)	19(26%)	25(34.2%)	11(15.1%)	30.2
대구	13(31.7%)	5(12.2%)	7(17.1%)	12(29.3%)	4(9.6%)	15.6
인천	5(12.2%)	2(4.9%)	11(26.8%)	18(43.9%)	5(12.2%)	23.1
광주	4(10.8%)	2(5.4%)	9(24.3%)	15(40.5%)	7(18.9%)	25.7
울산	7(20.0%)	10(28.6%)	6(17.1%)	7(20%)	3(8.6%)	20.5
대전	11(1.5%)	9(13.4%)	11(16.4%)	27(55.2%)	9(13.4%)	22.9
경기	26(0.8%)	35(10.4%)	87(26%)	134(40%)	53(15.8%)	30.1
강원	13(22.0%)	13(22.0%)	12(20.3%)	20(33.9%)	1(1.7%)	15.0
충북	33(36.2%)	22(24.1%)	19(20.9%)	14(15.3%)	3(3.3%)	11.5

충남	10(22.7%)	10(22.7%)	12(27.2%)	10(22.7%)	2(4.5%)	15.3
전북	23(19.7%)	13(11.1%)	21(17.9%)	33(28.2%)	27(23.0%)	91.6
전남	8(17.4%)	8(17.4%)	9(19.6%)	15(32.6%)	6(13.0%)	13.1
경북	41(36.3%)	13(11.5%)	32(28.3%)	24(21.2%)	3(2.7%)	11.6
경남	31(21.8%)	23(16.2%)	25(17.6%)	38(26.8%)	25(17.6%)	24.5
제주	16(40%)	6(15%)	10(25%)	6(15%)	2(5%)	11.8
계	256	210	313	432	202	46.2
비율	11.50%	0.90%	1.40%	19.50%	14.30%	

* 응답자 기준

이용자의 연령별 구성은 대체로 초등학생(46.2%)과 주부(15.9%)가 주된 이용자로서 집계되었다. 위 문고의 운영프로그램이 주로 어린이와 주부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설명해 주는 통계로서, 문고는 어린이가 주된 이용자라는 일반적 통념을 확인시켜 준다.

<표 20> 이용자 연령별 구성비율

구분 도	이용자 연령별 구성비율 (단위: %)						
	유아 7세이하	초등생	중고생	대학생 및 성인	주부	노인	계
서울	10.1	38.3	12.1	15.9	20.1	3.5	100.0.
부산	7.7	44.6	13.6	11.7	20.9	1.5	100.0.
대구	10.9	50.1	19.1	8.4	11.1	0.4	100.0.
인천	12.4	45.9	14.5	6.9	18.7	1.6	100.0.
광주	9.7	52.7	15.8	8.4	11.2	2.2	100.0.
울산	19.6	30.1	12.7	7.1	30.3	0.2	100.0.
대전	7.2	45.8	14.9	8.4	22.6	1.1	100.0.
경기	13.9	47.2	12.2	8.3	17.2	1.2	100.0.
강원	10.6	55.8	13.1	8.7	7.5	4.3	100.0.
충북	5.7	43.8	18.9	14.2	15.5	1.9	100.0.
충남	11.3	52.8	16.5	7.3	9.9	2.2	100.0.
전북	3.9	41.4	19.8	18.7	10.8	5.4	100.0.
전남	7.2	46.2	16.2	12.3	15.9	2.2	100.0.
경북	9.2	47.5	11.3	14.5	15.7	1.8	100.0.
경남	11.1	35.4	16.6	10.1	22.9	3.9	100.0.
제주	6.7	62.6	12.6	10.3	5.4	2.4	100.0.
전국평균	9.8	46.2	15.1	10.7	15.9	2.3	100.0.

* 응답자 기준

나. 분석

1) 사립문고의 높은 비중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립도서관의 수보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문고나 작은도서관의 수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작은도서관 단위인 전국 의 문고 수는 공립문고 778관(27.1%)과 사립문고 2,094관(72.9%)로 모두 2,872개가 집계되었

다. 문고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수도권 지역의 경우 서울과 경기, 인천의 문고수가 전체의 41.6%를 차지하여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지역 등 공공도서관과의 접근이 힘든 농촌지역의 경우 역시 문고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문고의 높은 비중은 결국 공공도서관의 접근성과 서비스가 전 국민에게 골고루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제약은 민간쪽에서 먼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해결해보고자 하고 있음은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작은도서관 규모 및 여건의 영세성

전국문고현황 분석과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고의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점이다. 통계상 문고는 평균 24평의 규모로 24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으며, 평균 3,288책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문고 169개(11.0%), 개인운영 문고 162개(10.5%), 아파트운영 문고 136개(8.8%)로 비중이 높고, 교육청 운영 문고 2개(0.1%), 공공도서관 운영 문고 4개(0.3%)로 문고지원에 많은 역할이 기대되는 기관의 문고운영 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성장률은 매년 4.3%정도로 바람직한 자료성장률인 10%에 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한달에 15만원 가량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영세함을 극명히 드러내고 있다. 인력 또한 주로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전문인력을 통한 서비스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서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고, 이러한 이용자들의 외면은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을 갖게 하여 결국 도서관에 더욱 무관심해지게 만드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극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문고 및 작은도서관, 이들을 실질적으로 협력, 연계해 줄 수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주체인 지자체와 교육청간에 파트너십이 구축·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2. 공공도서관 현황 및 운영 실태

가. 공공도서관 운영 여건 및 현실

1) 공공도서관 현황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연계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규모와 역량, 정책적 지향 등 제반 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2005. 12. 31 현재,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514개소이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은 273개이며, 교육청 소

속 공공도서관 224개, 사립 공공도서관 17개 등이다.

<표 21> 공공도서관 현황

구분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사립 공공도서관	총계
	계	광역시/도립	자치구립	기초시/군립			
개수	273	5	25	243	224	17	514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은 대부분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이며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5개소(인천 1, 광주 3, 대전 1)에 불과하다. 행정자치와 별도로 독립되어 운영되는 교육자치 시스템에 따라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모두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광역시도 교육청)에서 운영된다.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광역 시/도 교육청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공립공공도서관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나 도서관서비스 대상 지역의 크기에 따라 그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인다.

<표 22> 유형별 공공도서관 규모 사례

구 분		직원수(명)		예산규모 (천원)	도서수 (책)	열람석수
		정원	자격증 소지자			
시립/ 군립	부천시립중앙도서관	20	12	909,721	166,993	1,019
	춘천시립도서관	35	8	699,646	144,297	564
	옥산군립도서관	4	1	98,439	31,969	210
교육청	서울 강서 도서관	33	17	1,620,338	210,147	1,005
	부산 시민 도서관	63	26	4,148,828	480,466	2,169
	경기도립 중앙도서관	35	17	2,165,570	396,601	540
	강원도립 평창도서관	5	3	46,000	55,380	172
구립	은평구립도서관	25	15	1,499,948	124,318	900
	강북문화정보센터	28	7	1,395,751	106,847	981
	광진정보도서관	30	16	1,710,247	87,606	1,245
	강남구립 청담도서관	4	1	107,587	16,624	96
	구로꿈나무도서관	0	4	146,446	25,674	150
	송파구 거마도서관정보센터	5	2	306,793	14,658	128

공립공공도서관의 규모 차이는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지만, 그 보다는 각 지역의 도서관서비스 대상지역 범위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설립 도서관이나 교육청 설립 도서관의 경우 구립 도서관보다 규모면에서 크게 나타나는 경향은 있지만, 구립도서관 가운데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설립 도서관보다 큰 규모를 보이는 도서관도 적지 않다.¹⁴⁾

작은도서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유형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다.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경우 광역 교육청 소속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확대보다는 학교도서관 지원에 보다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교육자치의 틀에서 움직이는 교육청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청의 기본 기능이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연계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보다 적은 관심을 나타낸다.¹⁵⁾

2) 공공도서관 운영 실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작은도서관 관련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도서관 내에는 작은도서관 관련 업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는 전담 직원 없이 활용 가능한 인원을 중심으로 대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천시립도서관의 경우 수서팀 담당자가 작은도서관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으며, 순천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내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가운데는 운영의 효율성과 비용의 경제성 차원에서 본관-분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공공도서관이 본관-분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일반적인 분관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4) 은평구립도서관이나 광진정보도서관, 강북문화정보센터 등은 구립도서관이지만 규모면에 있어서 열람석 900석 이상, 예산 13억 이상, 정원 25명 이상이 됨으로써 옥산군립도서관이나 강원도립 평창도서관보다 큰 규모를 나타낸다.

15)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과 학생들의 등록금을 통하여 얻어지는 수입의 일부로 운영된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일반적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지원되지 않고는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연계운영체계에 편입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표 23> 분관의 담당업무 사례

담당업무	분관 수	%
구입대상 자료선정업무	43	84
자료구입업무	13	25
자료의 분류·편목 업무	18	35
자료 열람·대출업무	51	100
참고·정보봉사 업무	48	94
문고(작은도서관)의 관할 또는 연계업무	28	55
교육·문화 프로그램 업무	51	100
직원 인사 관련 업무	0	0
회계·경리업무	8	16
계	51	

※ 출처: 이용남,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분관 운영체제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제1호, 360쪽.

미국의 경우 지역의 도서관시스템을 한 개의 중앙관에 수십개의 분관을 연결시키는 유형으로 구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분관화율이 매우 낮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나타난 분관시스템은 IMF 외환위기 때 정부기관 구조조정책의 일환으로 도교육청의 기구축소 방침에 따라, 기존의 독립적인 공공도서관이 한 개의 중앙관 아래 분관시스템으로 편입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용남, 2006: 363)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 안에 편입시키려는 방식은 이처럼 현재의 공공도서관 운영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기존의 분관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공공도서관의 운영실태와 분관 관련 운영역량은 작은도서관을 곧바로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 안에 편입시키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점을 보여준다.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 안에 편입되면 이와 관련된 업무가 공공도서관의 상시적인 업무가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분관시스템으로 편입된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또한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규모나 역량 면에서 작은도서관은 기존의 분관시스템과는 또 다른 새로운 유형의 분관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 경험이 부재한 공공도서관들이 운영상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공공도서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지원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에는 자료의 지원에서부터 예산을 통한 인력지원, 상호 대출·반납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공공도서관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사례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분석

1) 공공도서관 운영주체의 다양성

공공도서관의 설립, 운영 주체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이원적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많은 비판적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개선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공공도서관의 이원적 운영 체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공공도서관 설립, 운영주체의 이원화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체제를 구축하는데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제기한다. 곧,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작은도서관을 분관시스템 내로 편입시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으나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운영주체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이므로 지역주민에 대한 일반적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낮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시도에 있어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과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이원화된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2) 기존 분관시스템과 새로운 분관시스템의 관계 설정 필요성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의 공공도서관 분관시스템과 새로이 분관화된 작은도서관과의 관계 및 역할, 기능 설정에 있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공공도서관의 분관은 초기부터 분관 형태로 설립, 운영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경기도의 경우처럼 초기에는 독립된 공공도서관으로 기능하다가 구조조정에 의해 본관-분관시스템 안으로 편입된 도서관들이 존재한다. 이처럼 기존의 분관시스템에 있어서 유형별 차이가 나타나는 가운데 작은도서관이 새로이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 안에 포함될 경우 이러한 분관과 기존 분관과의 차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 안으로 포함시킨다고 할 경우, 기존 본관-분관시스템안에서의 분관과 동일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와는 다른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는 것인지, 또는 작은도서관을 분관시스템으로 편입시키는 역할은 기존의 본관도서관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분관도서관도 작은도서관을 그 아래의 분관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등은 문제는 기존 공공도서관의 본관-분관 체계와 새로운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간 본관-분관 체계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할 때에 풀려질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공공도서관의 자체 운영 역량 미흡

그동안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는 ‘도서관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달리 말하면, 지역 전체를 도서관서비스 대상으로 설정하고 관할 지역 전체에 대해 어떻게 지식정보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나 도서관 건물을 벗어난 지역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주된 운영적 관심을 기울여 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의 운영 초점이 주로 도서관 건물내의 서비스에 맞추어져 오는 한편,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문화프로그램, 야간 개방 등에 대한 지역주민이나 지자체장 등의 증가하는 요구가 지역차원의 확장된 도서관서비스를 고민하게 하는 배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의 운영은 지역내의 고립적인 섬과 같은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은 그 방향성의 옳고 그름과 일정 부분 무관하게 공공도서관에는 또 하나의 일거리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에도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도서관서비스 외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작은도서관과의 연계는 과외의 일처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 대한 검토와 지원이 선행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한 작은도서관의 공공도서관 분관시스템화는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3.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 실태

가.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작은도서관 등에 대한 지원 사례

1)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 협력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 협력 사례는 이전에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계는 지역 및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의 여건에 따라 협력의 유형과 수준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만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사이에 상호 지원,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만큼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은 크게 자료구입비 지원이나 순회문고 지원 등으로 나타난다. 자료구입비 지원은 지자체 차원의 지원으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직접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공공도서관을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순회문고 지원은 공공도서관이 일정 규모의 장서를 관내 작은도서관에 일정 기간 동안 대여해주는 것으로 일부 지역이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시

행된 바 있으나 관리 소홀이나 장서 분실 등으로 적지 않은 문제가 노출되어 중단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유형이 과거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 협력 사례의 대종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근래의 사례는 정보화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였다.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도서관들은 대부분 설립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많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 운영되는 방식을 통하여 전체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례의 하나로 강남구의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현재 강남구청에서는 구립도서관 5개, 동사무소문고 16개, 구립학교도서관 22개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과거 강남구는 시립도서관은 있으나 구립도서관이 없는 상태였으며 지자체의 노력으로 작은도서관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다양한 유형의 구립도서관들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학교도서관까지 지자체가 나서서 설립한 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식을 통하여 구립 학교도서관이라고 하는 독특한 유형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구립도서관들은 동사무소를 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하면서 도서관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와 구 파출소나 노인정 등의 공공시설을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식을 통하여 설립되었다. 이러한 구립도서관 중 사단법인 ‘좋은책읽기모임’에서 7개, 도서관리공단이 2개 이상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모두 강남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제공에서 나타나는 강남구의 특징은 이러한 모든 구립도서관들을 하나의 정보화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회원증 하나로 어디에서든 대출/반납이 가능케 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시스템은 강남구청에서 설립한 도서관들 사이에만 구축된 것으로 서울시립도서관과는 연계가 없다.

이처럼 강남구의 사례는 관내 모든 구립도서관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지역주민이 어느 도서관에서나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된 자료를 지역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대출, 반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 연계가 어떠한 유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2) 교육청소속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 협력 사례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과 해당 관내 작은도서관간 연계 사례가 여건이 가능한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간 협력 사례는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지원은 광역차원의 교육청 정책 차원에서 추진된다. 곧, 광역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지원은, ‘광역’ 차원

에서 공공도서관이 학교도서관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검토에 기초하여 거점 도서관들이 학교도서관 지원과 관련된 조직을 설치하여 제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의 사례는 이러한 활동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서울시 교육청은 광역 차원에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학교도서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5개의 거점 도서관을 지정하였다. 그리고 이 거점도서관에 학교도서관 지원업무를 전담할 과를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다. 거점으로 지정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들은 조직 내에 학교도서관지원과를 설치하고 수서 및 정리지원, 장서관리, 정보화 사업, 관계자 연수, 독서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거점으로 지정된 공공도서관은 서울을 5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해당 지역의 학교도서관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당초 한시 지원기구로 출발한 학교도서관지원팀은 2004년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상시기구로 운영되게 되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 학교도서관 시설, 장서 확충 및 현대화
 - 도서관 설치 31개교, 리모델링 39개교, 디지털 자료실 설치 11개교
-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 공립초등학교 도서관 전담 인력 인건비 지원
 - 순회사서제 운영: 5개 거점 도서관
- 학교도서관 담당자 연수 실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교육청이 광역 차원의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는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곧, 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지원과 같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차원에서 공공도서관의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특정 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지정하여 그 기관 내에 '학교도서관지원과' 같은 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¹⁶⁾

서울시 교육청이 소속 공공도서관 가운데 몇 개를 거점도서관으로 지정하여 학교도서관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도교육청 소속 경기도립중앙도서관과 경기도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를 통하여 학교도서관을 지원하고 있다. 곧, 2003년 7월 학교도서관업무지원시스템(DLS:Digital Library System)서비스를 개통하면서 교육청 관내의 개별 학교도서관의 도서관리업무(수서, 목록구축, 대출/반납)를 자동화하고 인터넷 기반의 독서지원기능(정보검색, 독서정보제공, 독서표현활동, 독서지도 및 상담)을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16) 학교도서관지원과는 5-6명의 직원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그림 1> 디지털 자료실 지원센터를 통한 학교도서관 지원 시스템(경기도)



나. 분석

1) 부분적 지원/협력 사례의 성과

지자체나 교육청 관계없이 시행되어 온 다양한 유형의 작은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지원 활동은 향후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기한다.

먼저 이러한 지원활동의 배경에는 작은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선행적으로 필요한 환경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활동은 긍정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첫째,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없이 작은도서관의 설립만을 지원하거나, 순회문고와 같이 지속적인 관리없이 일회적으로 자료를 대여해주는 것과 같은 방식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같이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조직 및 예산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거점 도서관에 학교도서관지원과를 설치하고 상시직원과 예산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운영을 지원한다는 중요한 요인이 있다.

아래 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복권기금을 통하여 설립을 지원했던 작은도서관은 사업집행이나 운영목표 수립, 지역주민 등의 관심도, 주민 만족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지만 예산 확보나, 전임직원 근무, 직원의 전문성 등 실제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매우 낮은 점수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신설이나 조성 과 같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성된 시설이 어떻게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지

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24> 복권기금 활용 조성 작은도서관 평가 결과

항목구분	세부항목	평가결과(100점기준)		전체 순위
		점수	순위	
건립과정의 효율성 및 적절성	사업집행실적 적정성	92.0	①	①
	사업 자체 평가 시행	67.2	②	-③
	소 계	79.6		
운영의 적절성	운영(발전)목표 수립	92.0	①	①
	차년도 예산 확보	59.5	⑦	-②
	시설(설비) 구비	82.5	④	
	소장장서 수준	81.8	⑤	
	전임직원 근무	68.5	⑥	-④
	직원의 전문성	33.5	⑧	-①
	개관시간 적절성	85.0	②	
	도서관협력 체계	84.5	③	
	소 계	73.4		
지역사회 관심도 및 참여도	지역주민·자치단체 관심도	91.2	①	②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노력	89.2	③	④
	주민 만족도	90.4	②	③
	자원봉사자 참여	81.6	⑤	-⑤
	이용자 의견 수렴	86.0	④	⑤
	소 계	87.7		
계	15개 항목	78.9		

※ 출처: 내부자료

2) 통합관리시스템의 가능성

강남구나 서울시, 경기도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특정 지역내의 도서관들을 하나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지역주민들이 어느 도서관에서나 지역의 자료정보를 통합 검색하고, 대출·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지역도서관서비스의 외형적, 내용적 발전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에게 있어서 도서관서비스는 주민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의 문제이지 시스템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달리 말하면, 지역 주민들은 지역내 도서관서비스 체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편리하고 용이하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은 이러한 체감적인 도서관서비스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영역으로 나타난다.

4. 작은도서관 관련 인식 및 수요

가. 작은도서관 지원방안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

작은도서관 지원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운영여건을 살펴보기 위한 이번 실태조사는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의 관련 당사자들인 문고, 공공도서관,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06년 7월 21일부터 8월 말까지 각각의 모집단에서 무작위 추출한 약 20%의 표본에 설문지를 배포하고 모두 3차에 걸친 독촉실시를 통해 이루어졌다. 실태조사가 실시된 응답참여 기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5> 실태조사 대상

구 분	응답 참여 기관수	비 고
-작은도서관(문고)	285관	-공립문고 221관 -사립문고 64관
-공공도서관	135관	-지자체소속 34관 -교육청소속 101관
-기초지방자치단체	73관	-시군구(市郡區)
-지역교육청	56관	-광역교육청 산하 지방교육청
합 계		549건

1)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교육청의 작은도서관 지원 실태조사 결과

①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태파악 정도

지역 내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의 정도를 살펴보면, 지자체가 ‘잘 파악’ 46.6%, ‘어느 정도 파악’이 49.3%를 나타내고 있어, 교육청의 ‘잘 파악’ 16.1%, ‘어느 정도 파악’ 41.1%에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지자체가 교육청에 비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26>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태파악 정도

구 분	지자체	%	교육청	%
잘 파악	34	46.6	9	16.1
어느 정도 파악	36	49.3	23	41.1
파악 못함	3	4.1	24	42.9
합계	73	100.0	56	100.0

② 도서관 관련 조례 및 지원계획 수립여부

지역 내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조례나 지원계획 수립을 묻는 질문에는 지자체 54.8%가 '조례나 지원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지역 교육청의 경우 66.1%가 '조례나 지원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여 지자체의 도서관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1990년 도서관정책의 문화부이관 이후 공공도서관 지원에 대한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교육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7> 도서관 관련 조례 및 지원계획 수립여부

구 분	지자체	%	교육청	%
있다	40	54.8	19	33.9
없다	33	45.2	37	66.1
합계	73	100.0	56	100.0

③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및 지원계획 수립여부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나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30.1%에 불과하였고, 교육청의 96.4%는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나 지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공공도서관에 비하여 문고나 작은도서관을 위한 설립운영조례나 지원 계획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28>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및 지원계획 수립여부

구 분	지자체	%	교육청	%
있다	22	30.1	2	3.6
없다	51	69.9	54	96.4
합계	73	100.0	56	100.0

④ 문고 및 작은도서관 지원 실적

문고 및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나 지원계획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자체의 경우 지원 실적이 64.4%에 이르고 교육청도 23.2%가 지원 실적을 보고하였다. 이는 문고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9> 문고 및 작은도서관 지원 실적

구 분	지자체	%	교육청	%
있다	47	64.4	13	23.2
없다	26	35.6	43	76.8
합계	73	100.0	56	100.0

⑤ 문고 및 작은도서관 지원근거

문고 및 작은도서관 지원 실적을 보고한 단체의 지원근거를 확인한 결과, 지자체는 사업부서의 발의가 34.0%로 가장 많았고, 교육청 또한 사업부서의 발의가 8.9%로 가장 높게 확인되었다. 앞서 지적되었듯이, 문고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사업부서의 의욕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점은 관련 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위해서는 조례나 중장기사업계획에 의한 제도화된 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0> 문고 및 작은도서관 지원근거

구 분	지자체	%	교육청	%
조례	8	17.3	0	0.0
중장기계획	2	4.2	4	7.1
단체장 또는 부서장 지시	3	6.3	3	5.4
사업부서의 발의	16	34.0	5	8.9
민원	4	8.5	0	0.0
기타	14	29.7	1	1.8
합계	47	100	13	100.0

⑥ 문고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방식

문고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실적이 있는 단체의 지원방식을 확인한 결과, 지자체의 51.2%가 직접지원을 실시한 반면, 교육청은 19.6%가 공공도서관을 통한 간접지원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 문고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방식

구 분	지자체	%	교육청	%
지자체 및 교육청 직접지원	24	51.2	1	1.8
공공도서관을 통한 간접지원	18	38.2	11	19.6
기타	5	10.6	1	1.8
합계	47	100	13	100.0

⑦ 문고 및 작은도서관 지원내용

문고 및 작은도서관에 지원 실적을 보고한 단체의 지원내용을 보면, 지자체의 경우 도서 구입비지원이 65.9%, 운영비지원 19.2%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교육청은 운영비지원 30.7%, 정보화 지원 23.1%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32> 문고 및 작은도서관 지원내용

구 분	지자체	%	교육청	%
운영비지원	9	19.2	4	30.7
도서구입비 지원	31	65.9	2	15.4
인력활용지원	0	0.0	2	15.4
정보화지원	3	6.3	3	23.1
기타	4	8.6	2	15.4
합계	47	100	13	100

⑧ 문고 및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여건

문고 및 작은도서관 지원업무의 전망에 위치하는 공공도서관의 지원 여건을 물어보았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여건에 대해 지자체는 '보통' 43.8%, '다소 좋지 않음' 21.9%인데 비교해서, 교육청은 '좋지 않다' 33.9%, '보통' 32.1%를 지적하였다. 따라서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들이 작은도서관 지원 업무에 대해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33> 문고 및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여건

구 분	지자체	%	교육청	%
매우 좋다	3	4.1	0	0.0
좋은 편이다	10	13.7	8	14.3
보통	32	43.8	18	32.1
다소 좋지 않음	16	21.9	9	16.1
좋지 않다	11	15.1	19	33.9
무응답	1	1.4	2	3.6
합계	73	100.0	56	100.0

⑨ 공공도서관 분관기능으로서 작은도서관의 바람직한 역할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기능으로 연계하여 협력할 경우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의견은, 지식정보서비스 및 문화사랑방 역할을 두고 각각 지자체 71.2%, 교육청 71.4%를 지

적하여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활성화되는 작은 도서관의 역할이 문화 사랑방의 개념으로 모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4> 공공도서관 분관기능으로서 작은도서관의 바람직한 역할

구 분	지자체	%	교육청	%
공공도서관의 서비스거점으로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14	19.2	10	17.9
지식정보서비스 및 문화 사랑방 역할	52	71.2	40	71.4
기타	1	1.4	0	0.0
모름	6	8.2	6	10.7
합계	73	100.0	56	100

2) 공공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지원 실태조사 결과

①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방침 수립여부

전국 487개 공공도서관 중 설문에 참여한 135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지원방침이 수립되어 있는 곳이 23관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112개관(83%)은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이 아예 ‘없다’라고 답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제도화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5>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방침 수립 유무

구분	빈도	퍼센트
있음	23	17.0
없음	112	83.0
합계	135	100.0

② 작은도서관 지원계획 없는 이유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39관(34.8%)이 ‘예산부족’을, 38관(33.9%)이 ‘지방자치단체 혹은 교육청으로부터 특별한 지침을 받지 못해서’라고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문고 및 작은도서관 지원활동 미진에 대한 이유를 감독관청에게 돌리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작은도서관 지원계획 없는 이유

구분	빈도	퍼센트
작은도서관 지원사업필요성 크지않음	9	8.0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료 불충분	11	9.8
예산부족	39	34.8
지자체 또는 교육청 지침없음	38	33.9
기타	15	13.4
합계	112	100.0

③ 작은도서관 지원실적 유무

공공도서관 중 작은도서관 지원 실적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135관중 51관(37.8%)이 지원 실적을 보고하고 있고, 지원실적이 없는 공공도서관이 84관(62.2%)으로 더 많았다.

<표 37> 작은도서관 지원실적 유무

구분	빈도	퍼센트
있음	51	37.8
없음	84	62.2
합계	135	100.0

④ 작은도서관 지원내용

공공도서관들의 작은도서관 지원내용을 조사한 문항에서는 도서 및 자료지원이 25관(49.0%)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도서구입비지원(9관, 17.7%), 자료정리등 컨설팅(5관, 9.9%)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공공도서관의 문고 및 작은도서관 지원의 초점은 도서자료지원이 중점 사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8> 작은도서관 지원 내용

구분	빈도	퍼센트
운영비지원	2	3.9
인력지원	3	5.9
도서구입비지원	9	17.7
정보화지원	1	1.9
근무인력 교육지원	1	1.9
상호대차지원	3	5.9
도서 및 자료지원	25	49.0
자원봉사자지원	1	1.9
자료정리 등 컨설팅	5	9.9
기타	1	1.9
합계	51	100.0

⑤ 작은도서관 지원 근거

작은도서관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확인한 결과, 공공도서관 내부 '사업부서의 발의'에 의한 경우가 19관(37.3%)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지자체 또는 교육청의 지시'가 11관(21.6%)이었으며, 합리적인 제도화에 의한 지원근거로서 '조례에 의한 지원과 중장기 계획'에 의한 지원이 각각 6관(11.8%)과 1관(1.9%)로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제도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일시적 발의와 지시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9> 작은도서관 지원시 근거

구분	빈도	퍼센트
조례	6	11.8
중장기계획	1	1.9
지자체 또는 교육청 지시	11	21.6
사업부서 발의	19	37.3
민원	4	7.8
기타	10	19.6
합계	51	100.0

⑥ 작은도서관 지원계획 유무

장래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12관(14.3%)에 불과하였으며 72관(85.7%)은 '현재는 없다'고 응답하여,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공공도서관이 많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표 40> 앞으로 작은도서관 지원계획 유무

구분	빈도	퍼센트
있음	12	14.3
없음	72	85.7
합계	84	100.0

⑦ 작은도서관 지원계획 내용 순위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계획의 내용을 묻는 문항의 제1순위는 근무인력교육지원(4관, 17.4%), 정보화지원(4관, 17.4%)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운영비지원(3관, 13.1%), 상호대차지원(3관, 13.1%), 도서구입비 지원(3관, 13.1%)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은도서관 지원이 대체로 정보화지원과 근무인력 교육지원, 자료정리 컨설팅 업무와 상호대차 등에서의 협력으로 계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1> 지원할 계획내용 1순위

구분	빈도	퍼센트
운영비지원	3	13.1
인력지원	1	4.3
도서구입비지원	3	13.1
정보화지원	4	17.4
근무인력 교육지원	4	17.4
자료정리 직접지원	2	8.7
상호대차지원	3	13.1
도서 등 자료지원	1	4.3
자료정리 등 컨설팅	2	8.7
합계	23	100.0

⑧ 작은도서관 지원이 어려운 이유

지역 내 작은도서관 지원의 책임을 부여받은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지원에 소극적인 가장 주된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인력부족’(42.2%), ‘예산부족’(24.4%), ‘조직업무 지원시스템 부재’(21.5%)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의 관심과 열의를 논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에 임을 먼저 직시할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지원을 일방적으로 압박받고있는 현재의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작은도서관 지원을 제도화하는 일차적인 시도로 관련 예산의 우선적 확보가 요망된다.

<표 42> 작은도서관 지원이 어려운 이유

구분	빈도	퍼센트
인력부족	57	42.2
예산부족	33	24.4
조직업무 지원시스템 부재	29	21.5
도서관내 공감대 부재	6	4.4
지원필요성 부재	2	1.5
기타	8	5.9
합계	135	100.0

⑨ 작은도서관으로부터의 지원요청 유무

작은도서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공공도서관은 전체 135관중 51관(37.8%)으로, 지원요청을 받지 못한 공공도서관 82관(60.7%)에 비교하여 많지 않으며, 이는 앞서 작은도서관 지원 실적이 있는 공공도서관의 수 51관(37.8%)과 일치하는 수치로, 작은도서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공공도서관들이 이를 모두 지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3> 작은도서관으로부터의 지원요청 유무

구분	빈도	퍼센트
있음	51	37.8
없음	84	62.2
합계	135	100.0

⑩ 현 상황에서 작은도서관에 지원 가능한 분야 1순위

인력이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경우, 지원 가능한 분야는 ‘근무인력에 대한 교육지원’(21.5%)과 ‘도서 및 자료지원’(20.7%), ‘자료정리 등 컨설팅’(19.3%) 순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현상황에서 작은도서관 지원가능분야 1순위

구분	빈도	퍼센트
운영비지원	4	3.0
인력지원	4	3.0
도서구입비지원	7	5.2
정보화지원	5	3.7
근무인력 교육지원	29	21.5
자료정리 직접지원	7	5.2
상호대차지원	10	7.4
도서 및 자료지원	28	20.7
자원봉사자지원	2	1.5
자료정리 등 컨설팅	26	19.3
기타	13	9.6
합계	135	100.0

⑪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 및 지원시스템의 형태

작은도서관과의 협력 및 지원시스템의 형태로서 공공도서관이 선호하는 방식은, 작은도서관의 일정부분을 지원(34.1%)하거나, 단계적 분관운영(31.9%)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은 작은도서관과의 지원 협력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단계적인 실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

난 점은 직접 지휘 감독하는 책임지원시스템보다 다소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5>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 및 지원시스템의 형태

구분	빈도	퍼센트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책임지원	12	8.9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일정부분 지원	46	34.1
작은도서관 요청에 대한 지원	29	21.5
단계적 분관운영	43	31.9
무응답	2	3.7
합계	135	100.0

⑫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위한 중요사항 1순위

공공도서관 직원들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위한 중요 요건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48.9%)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관심과 의지'(28.9%)를 지적한데 비해, '공공도서관 소관부서의 관심과 의지'에 관한 지적은 5.2%에 불과하였다. 이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책임을 전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도 감독관청인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매우 피동적인 자세로 조성사업을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6>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위한 중요사항 1순위

구분	빈도	퍼센트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	66	48.9
지자체장/교육감의 관심과 의지	39	28.9
공공도서관 소관부서의 관심과 의지	7	5.1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19	14.1
무응답	4	3.0
합계	135	100.0

⑬ 공립문고의 공공도서관 분관화시 바람직한 역할

지역 내 공립문고를 공공도서관으로 개발할 때, 그 역할로서 바람직한 것은 지식정보서비스 제공(24.4%)의 역할보다 문화 사랑방의 역할(66.7%)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문화 사랑방으로서 주민에게 독서와 교육뿐만 아니라 강좌와 공동행사를 통한 친교의 광장이자 참여문화의 거점공간으로서 주민생활에 밀착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작은도서관의 더욱 폭넓은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7> 공립문고의 공공도서관 분관화시 바람직한 역할

구분	빈도	퍼센트
공공도서관의 현장서비스를 확대하는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역할	33	24.4
문화사랑방 역할	90	66.7
기타	2	1.5
무응답	10	7.4
합계	135	100.0

3)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① 문고에 대한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의 관심

문고에 대한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의 관심에 대해서는 ‘높다’(6.7%)와 ‘다소 높다’(16.8%)에 비해 ‘다소 낮다’(20.4%)와 ‘낮다’(24.6%)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문고들이 해당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들의 문고에 대한 관심이 무관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8> 귀 문고에 대한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의 관심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높다	19	6.7	6.7	7.4
다소높다	48	16.8	16.8	24.2
보통	88	30.9	30.9	55.1
다소낮다	58	20.4	20.4	75.4
낮다	70	24.6	24.6	100
무응답	2	0.7	0.7	0.7
합계	285	100	100	

② 정기적 자료수집 및 도서기호 부착

조사 참여 문고의 대부분인 81.4%가 정기적인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있었고, 문고의 66%는 분류기호 등의 도서기호를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정기적 자료수집 및 도서기호 부착

구분	정기적 자료수집	퍼센트	도서기호 부착	퍼센트
그렇다	232	81.4	188	66.0
아니다	53	18.6	97	34.0
합계	285	100.0	285	100.0

③ 문고의 기능

문고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조사참여 문고의 29.8%가 '도서 및 자료서비스 기능'을 지적하였고, 그보다 많은 문고가 '공부방 및 지역 센터 기능'에 48.1%를 지적하고 있어, 문고의 역할이 단순한 독서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공부방, 문화강좌 등을 통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데 더욱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0> 문고의 기능

구분	빈도	퍼센트
도서 및 자료서비스	85	29.8
공부방 및 지역센터추가	137	48.1
도서서비스가 중요기능 아님	14	4.9
기타	49	23.5
합계	285	100

④ 공공도서관의 문고지원 필요성

공공도서관의 문고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5.8%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다소 필요하다'라는 응답에는 25.6%나 되는 등, 문고의 81.4%가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일반적으로 문고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1> 공공도서관 문고지원 필요성

구분	빈도	퍼센트
필요	159	55.8
다소 필요	73	25.6
보통	26	9.1
다소불필요	11	3.9
불필요	11	3.9
무응답	5	1.8
합계	285	100

⑤ 우선 지원이 필요한 분야 1,2순위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희망하는 우선 지원 필요 분야는 1순위에서 '운영비지원'(42.8%), '자료구입비지원'(18.9%)이 지적되었고, 2순위에서는 '자료구입비지원'(23.9%), '도서 및 자료지원'(17.5%)이 지적되었다. 문고가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싶은 분야는 운영비지원이 가장 많고, 다음이 자료구입비 지원, 도서 및 자료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 금전적 지원을 가장 선호하였다.

<표 52> 우선지원이 필요한 1, 2순위

구분	1순위	퍼센트	2순위	퍼센트
운영비지원	122	42.8	32	11.2
인력지원	27	9.5	32	11.2
자료구입비	54	18.9	68	23.9
정보화지원	14	4.9	21	7.4
근무인력교육지원	7	2.5	13	4.6
자료정리 직접지원	2	0.7	6	2.1
상호대차지원	3	1.1	6	2.1
도서 및 자료지원	24	8.4	50	17.5
자원봉사자지원	3	1.1	10	3.5
자료정리 등 컨설팅	3	1.1	15	5.3
기타	2	0.7	1	0.4
무응답	24	8.4	31	10.9
합계	285	100	285	100

⑥ 공공도서관 지원요청과 지원 유무

문고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 및 협조요청에 대한 질문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49.5%의 문고들이 지원 및 협조요청을 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나,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문고는 2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도서관에 대한 문고의 지원요청에 대하여 지역공공도서관이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53> 공공도서관 지원요청과 지원유무

구분	공공도서관에 지원요청	퍼센트	공공도서관의 지원	퍼센트
있다	141	49.5	84	29.5
없다	144	50.6	201	70.6
합계	285	100.00	285	100.00

⑦ 공공도서관의 지원내용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30관이 '도서구입비 지원'을, 24관이 '도서 및 자료지원'을 지적함으로써, 자료지원에 편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우선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서 지적된 운영비 지원이나 자료정리컨설팅 등의 지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공공도서관의 지원내용

구분	빈도	퍼센트
자료정리직접지원	4	4.7
자료정리컨설팅	3	3.6
도서구입비지원	30	35.8
운영비지원	7	8.3
정보화지원	3	3.6
도서 및 자료지원	24	28.5
기타	13	15.5
합계	84	100

⑧ 문고활성화를 위한 외부요인 1순위

문고운영자들은 문고활성화를 위한 외부요인 1순위로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38.9%),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의지'(29.1%)를 지적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물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호응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작은도서관운동의 당사자로서 민관의 협력과 파트너십 구축에 많은 기대를 표시하였다.

<표 55> 문고활성화를 위한 외부요인 1순위

구분	빈도	퍼센트
중앙정부의 정책적관심	111	38.9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	83	29.1
지자체 소관부서의 관심과 의지	45	15.8
공공도서관장의 관심과 의지	9	3.2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31	10.9
기타	6	2.1
합계	285	100

⑨ 문고이용률 향상을 위한 내부요인 1,2순위

문고운영자들은 문고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부요인으로서 1순위에서는 다양한 장서 및 서비스(70.9%)를, 2순위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39.6%)을 지적하였으며, 두 가지 방안에 높은 집중률을 보였다. 문고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문고현장의 운영자들이 지적한 방안은 평범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장서의 확장과 문화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집약되고 있다.

<표 56> 문고이용률 향상을 위한 내부요인 1, 2순위

구분	1순위	퍼센트	2순위	퍼센트
다양한 장서확보서비스	202	70.9	23	8.1
이용자 편한위치	19	6.7	33	11.6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33	11.5	113	39.6
쾌적한 환경	16	5.6	49	17.2
부대서비스 시설운영	5	1.8	45	15.8
휴일개관 및 개관시간 연장	4	1.4	11	3.9
기타	6	2.1	11	3.9
합계	285	100	285	100.0

⑩ 공공도서관과 문고협력시스템의 바람직한 형태

사립문고 221관, 공립문고 64관 등 전국의 문고 285관에 대한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시스템에 대한 기초조사의 결과, ‘공공도서관이 지역문고를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문고는 51개(17.9%), ‘공공도서관이 지역문고에 일정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문고는 109개(38.2%), ‘문고의 지원요청에 가능한 한 지원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문고는 85개(29.8%), ‘단계적으로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문고는 33개(11.6%)로 나타나, 문고들이 공공도서관의 지원에 대해 매우 기대감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표 57> 공공도서관과 문고협력시스템의 바람직한 형태

구분	빈도	퍼센트
공공도서관이 지역문고 책임지원	51	17.9
공공도서관이 지역문고 일정지원활동	109	38.2
문고지원요청사항에 대해 가능한 지원	85	29.8
단계적 분관운영	33	11.6
무응답	7	2.5
합계	285	100

⑪ 공공도서관 소속 편입방안에 대한 의견

문고를 지역 공공도서관의 분관기능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285개 문고 중 ‘필요하다’는 문고가 61개(21.4%), ‘다소 필요하다’는 문고가 57개(20.0%)로서, ‘다소 불필요하다’는 문고 46개(16.1%), ‘불필요하다’는 문고 55개(19.3) 등과 비교하여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사실에 미루어볼 때, 문고들 대부분이 공공도서관의 지원에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 협력대상 문고로 편입되어 공공도서관의 관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주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8> 공공도서관 소속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필요	61	21.4	21.4	24.6
다소필요	57	20	20	44.6
보통	57	20	20	64.6
다소불필요	46	16.1	16.1	80.7
불필요	55	19.3	19.3	100
무응답	9	3.2	3.2	3.2
합계	285	100	100	

나. 분석

1) 공공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지원 여건 취약

공공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의 실질적인 협력과 연계를 통해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한 유일한 곳이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영주체인 지자체나 교육청은 작은도서관에 관련된 조례나 지원계획을 거의 수립하지 않고 있었으며, 공공도서관은 지원활동미진에 대한 이유를 이러한 감독관청에 돌리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관심과 열의만을 탓할 수만은 없다. 사실 공공도서관 역시 작은도서관 못지 않게 인력부족과 예산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이 없는 이유로 ‘인력부족’, ‘예산부족’을 우선으로 꼽았으며,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계획이 없는 곳도 85.7%나 되었다.

그러므로 작은도서관 지원은 적어도 현재의 공공도서관의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취약한 여건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

2) 지자체의 높은 관심과 미흡한 제도화

지자체의 지원과 관심은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는 협력을 이끌어내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높은 관심이야말로 도서관 발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도서관 지원사업의 중심에 있는 지자체는 작은도서관 실태파악 결과에서 95.9%가 '잘 파악'하고 있거나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해 작은도서관에 관해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나 지원계획은 30%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관심에 비해 지원계획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나 지원계획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지자체의 지원실적이 64.4%에 이르렀으며, 지원 근거는 사업부서의 발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결코 체계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지원은 제도화된 지원방식으로의 전환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분관시스템에 대한 기대와 우려

작은도서관의 협소한 장소, 보유장서의 부족, 자료의 체계적 정리에 대한 어려움 등 작은도서관의 한계에 대한 해법으로 분관시스템이 제시되고 있다. 분관시스템은 공공도서관과의 상호대차 등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접근의 용이함을 살려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실적으로도 문고들이 공공도서관의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 분관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고를 지역 공공도서관의 분관기능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와 '불필요하다'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지원에 대한 기대감 반, 관리를 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작은도서관에 분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도서관서비스 제공목적으로 서로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신뢰의 파트너십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5. 시사점

가. 다양한 작은도서관 지원/협력 여건

작은도서관은 그 규모나 유형, 소속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특성을 보여준다. 구청이나 시청 등 지자체가 직영하는 경우나 학교 법인·종교법인 등 법인이나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 하는 경우, 학교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나 개인, 법인등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작은도서관 설립, 운영의 다양성은 공공도서관 분관시스템으로의 연계와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은 그 문제점 또한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직영하는 경우 복권기금으로 동사무소나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였으나, 100% 지자체에 의해 충당되는 예산이 도서구입비나 소규모의 프로그램비에만 지출될 정도로 소규모이며, 전담인력 부재와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미비로 운영에 일정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공공도서관 또한 자체 인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작은도서관까지 인력을 보낼 수가 없어 운영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그 성과가 지역에 따라 다양한데, 민간역량이 갖추어진 지역에서의 민간 위탁은 민간조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 직영으로 방치되어 있는 곳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나타난다. 그러나 위탁기관의 성격에 따라 도서관 운영이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을 지향한다든가, 도서관서비스 이외의 문화프로그램에 더욱 치중한다든가 하는 문제점들을 보여주기도 한다. 학교에 설치한 작은도서관이나 개인, 법인 등이 설립,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들 또한 학교 건물내 존재함으로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나 설립자의 설립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는 특성 등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에 포함시킬 때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성과 다양성이 작은도서관의 공공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 방안에 중요한 변수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나. 지자체 내 지원 부서의 상이성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최근의 경향임에 비해 문고나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원역사의 길고 짧음과 관계없이 지역내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유사한 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부서는 서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문고를 지원하는 부서와 공공도서관을 지원하는 부서가 다른가 하면, 문고와 새마을문고를 지원하는 부서가 다른 경우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 공공도서관, 문고,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부서가 각각 다른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은 지역내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서로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공공서비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내의 지원부서가 다름으로 인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이지 못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여준다.

지역차원에서 각 시설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서로 다른 부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공도서관 지원정책이나 작은도서관 지원정책, 문고(혹은 새마을문고) 지원 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으로 연계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지역차원에서의 실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분관시스템화는

구상단계부터 공공도서관의 발전 방향과의 연계 속에 수립함으로써 지역에서의 실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부처간 협력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작은도서관과 연계 체계를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이 추진될 통일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이 지방자치단체 소속과 교육청 소속으로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일정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작은도서관의 공공도서관 분관시스템화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을 위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도서관서비스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며 지역교육청의 기능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관내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사업은 실시하고 있지만 지역내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실시하고 있지 못하다. 설혹 일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지역내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인적, 재정적 지원을 교육청으로부터 받기가 어려움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는 작은도서관과의 연계 체계 구축이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어서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으로 편입시키려는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이 추진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립을 제외한 전체 공공도서관 가운데 45%인 224개관이 교육청 소속이고 55%인 273개관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현실에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고려하지 않은 작은도서관의 공공도서관 분관화는 시행단계부터 절반의 결과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형성한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분관화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부처간의 논의, 협력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 지원/협력의 대상

다양한 규모와 역량, 기능, 수준을 가지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과정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던 작은도서관을 공식적인 공공서비스 범주내로 포함하는 것이라면 공공도서관과의 지원, 협력에 필요한 일정한 기준과 역량은 갖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적지 않은 경우 작은도서관은 자료분류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 있지 않거나 자료대출 목록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또한 자원 봉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의 개관시간이 일정치 않고 자료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자료 이용자가 매우 적고 도서관 이외의 타 기능이 훨씬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기능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분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춘 작은도서관에 대한 선별기준의 제시가 불가피하다. 이런 점에서 분관의 유형이 종합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분관이건, 제한적 기능을 수행하는 분관이건 혹은 자료대출반납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관이건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위한 일정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제2절 국내 작은도서관 운영 사례분석(부천, 순천, 창원)

1. 작은도서관 설립 전개유형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설립유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지자체와 민간 협력 유형, 둘째 민간영역에서 출발했다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는 유형 셋째, 지자체 주도형, 마지막으로 민간에서 자생하여 스스로 발달한 유형이 있다.

가. 시민단체와 공공도서관 협력형 : 부천시

부천시는 중동·상동신도시 및 범박동·소사동·여월동 택지개발지구의 지속적인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여 2005년말 84만명을 넘어선 도시이다. 부천시에서 실시한 2003~2004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문화시설로 도서관이 손꼽힐 정도로 도서관 수요가 팽배하다.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과 이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면서 부천시는 각계 각층의 유기적 조직들을 결성하고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부천시의 모델은 공공도서관에서 지역의 문고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처음부터 민간 영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맺으며 시작한 사례를 보여준다. 초기단계부터 민간협력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동을 고민하기 시작한 부천시는, 현재 11개의 작은도서관(공립)을 운영하고 있

다. 이러한 작은도서관은 5년간 민간에 위탁운영되는 체계를 통하여 4개의 시립도서관과 서로 자료공유를 위한 상호대차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지자체에서는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공간은 동사무소라든지 복지관,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사서들이 부천시 지역 작은도서관 협의회라는 조직을 구성, 시립도서관과 협력관계를 맺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 시민단체, 기업, 시의원, 언론인, 부천시로 구성된 민간협력조직인 푸른부천²¹ 실천협의회는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도서관 만들기’ 지방의제를 실천하기 위해 2001년 작은도서관 만들기 네트워크 분과를 설립하였다. 푸른부천²¹ 실천협의회의 주최로 시민과 시립도서관이 자연스럽게 작은도서관 운동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는 심포지움이 개최되었고, 지역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시민단체와 시립도서관이 함께 출연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동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작은도서관 조성에 있어서 민관협력체계는 시립도서관과 시민단체의 역할분담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곧, 시립도서관에서는 부천시 지역 사립문고, 공립문고 등 현황조사를 통해 작은도서관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작은도서관(공립문고) 설립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힘쓰는 한편, 시민단체에서는 창원시 마을도서관을 견학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동의 실무를 습득하기 시작하였다. 시립도서관은 또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 전액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민간단체에서는 실질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업무를 시로부터 위탁받아 부천시 작은도서관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나. 시민단체 촉발 - 지자체 주도 전환형 : 창원시

창원시의 경우 시민단체인 (사)경남정보사회연구소의 주도로 마을도서관이 태동하였다. 1993년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책의 해’를 기점으로 ‘책의 해 경남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역 교수, 언론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주축을 이룬 ‘경남도서관 및 정보문화발전연구소’(현 경남정보사회연구소)가 1994년 창립되면서 지역의 작은도서관 갖기 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 사파동성 아파트 단지 내에 지역주민이 개관한 마을도서관은 주민자치의 마을 도서관 사업의 시작으로 자리매김되었다.¹⁷⁾

그러나 1995년 민선시장 공약사업으로 사회복지회관을 설치하게 되면서 주민이 설립하는 마을도서관 운동은 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작은도서관운동으로 편입되게 되었다. 이 시기 이후 (사)경남정보사회연구소가 1996년 시로부터 9개의 사회복지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복지회관내에 마을도서관을 개관하기 시작, 현재 5개소의 마을도서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남여성회, 책사랑, 창원여성의 전화, 주민자치위원회 등 11개의 각기 다른

17) 양재한, “창원지역 공공 및 마을도서관 이용자 확보방안”, 1995. 사파동성아파트 마을도서관은 주민자치도서관 성격이며 (사)경남정보사회연구소는 이어 8월 복지회관에 마을도서관을 개관하고 12개의 마을도서관을 위탁운영함.

시민단체가 32곳의 마을도서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창원시의 마을도서관은 실질적인 운영비와 자료구입비, 인건비 등은 시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시민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다. 지자체 주도형 : 순천시

2003년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와 MBC가 주축이 되어 추진했던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의 최초의 수혜도시인 순천시는 기적의 도서관 개관에 따른 순천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시 전체적으로 퍼져 나간 독서열기에 부응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사업을 시작하였다. 먼저 시립도서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읍·면·동 지역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자체운영비 확보가 가능한 지역과 5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중 공간과 자체운영비 부담이 가능한 곳을 작은도서관 설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마을회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마을부녀회(청년회), 아파트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작은도서관의 실무를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공모하여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부천시나 창원시처럼 민간단체의 성원에 힘입어 작은도서관 운동이 전개되고 작은도서관 운영권을 민간단체가 위탁받는 형태가 아닌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로 작은도서관을 전개하고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점에서 타 지역과 다른 특색을 보여준다.

라. 주민 주도형 :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 모퉁이 어린이도서관

용인시 상가 지하에 위치한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은 시민단체나 지자체의 지원없이 뜻이 맞는 지역주민들이 모여 아이들이 쉽게 찾아와 책을 읽고 배울 수 있는 작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바자회나 후원금을 모아서 설립한 시설이다.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수서목록을 작성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을 개설하며, 도서관 학교, 다양한 동아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도서관교육을 통해 지역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실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작은도서관 운동으로 파급되고 있다. 사립문고로 시작된 느티나무도서관은 현재 문화재단으로 조직화되고 장서량도 14,600권으로 증가하였으며, 자료대출회원도 12,165명에 이르러 하루평균 177권의 자료를 대출봉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모퉁이 어린이 도서관은 한 개인이 순수한 열정으로 사적 재산을 들여 사립 문고를 만들고 이웃 아이들에게 책을 빌려주다가 지역 어머니들에게 기부한 형태이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모퉁이어린이도서관은 상가 내 지하 38평 규모로 월 평균 70여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사립문고로써 지역주민들이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한 대기업의 사회봉사단으로부터 1,900만원의 후원금으로 공간을 리모델링하였다.

모퉁이어린이도서관은 사서들과 지역 주부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언론과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였으나 실질적인 공간 확보나 재정적 지원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2.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현황

가. 부천시 도서관 현황

1) 공공도서관

부천지역에 운영중인 공공도서관은 시립도서관 4개소와 부천문화재단의 사립공공도서관 2개소이다. 시립도서관은 부천시 경제문화국에 속한 사업소로 있으며, 부천시 복사골문화센터내에 위치하고 있는 ‘동화기차 어린이도서관’과 ‘예술정보도서관 다감’ 사립도서관과 함께 부천문화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4개의 시립도서관 운영인력 총 41명중 56%인 26명이 사서직이며, 2개의 사립공공도서관은 정규 사서직 3명, 비정규 사서직 3명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밀도가 높은 부천시의 시립도서관은 1개소당 24만명이 봉사대상이며 자료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9> 부천시립도서관 시설 및 자료현황(2006. 7.1기준)

도서관명	건 물 면 적		부 지 면 적		도서(권)	비도서(점)	개관일
	m'	평	m'	평			
중 앙	4,396	1,330	7,135	2,158	165,507	12,895	'94. 7. 1
심 곡	2,450	741	3,553	1,075	117,631	8,902	'85. 3. 25
북 부	3,146	952	7,317	2,213	64,867	5,821	'99. 6. 1
꿈 빛	4,055	1,227	6,259	1,893	96,094	5,300	'02. 9. 10

부천시립도서관의 타지역 공공도서관과 다른 주요업무로는 도서관 건립 사업이 있다. 부천 시립도서관은 지역별 균형있는 도서관 건립업무를 기본계획 수립부터 기본설시설계, 의회 승인 및 제반 행정절차와 개관작업까지 시립도서관 전문사서가 담당하고 있다. 시립도서관 4개소, 작은도서관 11개소와 부천대학도서관과의 상호대차서비스와 작은도서관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 업무가 타지역 공공도서관과 차별화되고 있다.

부천시의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립도서관과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부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의 위원들로 구성된 ‘시립도서관 중장기발전 TF’는 2010년까지 부천시 공공도서관의 적정 공급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부천시는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작은도서관 설치와 별개로 기존 수준의 규모를 갖춘 시립도서관 4개소와 특수도서관(해밀점자도서관) 1개

소를 정보문화 소외권역인 오정권과 소사권역에 건립하고 있다.

2) 작은도서관

① 연차적 확충계획

부천시는 2002년부터 작은도서관(공립문고)를 설치하기 시작해서 현재 주민자치센터, 종합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내에 총 1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연내에 1개소당 복권기금 7천만원과 시비 3천만원의 설치비를 들여 주민자치센터 내에 2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에 있다. 또 연차적으로 소사2 택지개발지구 내의 소사문화센터(가칭)와 펄벅기념관부지내에 작은도서관을 2008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며, 2002년도에 개관했던 7개소의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법인에 대하여 2007년에 심의과정을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에 있다.

② 소속시설별 작은도서관 유형과 특징

부천시의 작은도서관은 종합복지회관내 총 7개소, 주민자치센터내 4개소, 문화체육센터내 1개소가 있으며, 그 소속시설의 기능 및 건물내 타 시설과의 협력관계 등의 차이점에 따라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공간 활용 등에 차별점이 나타난다. 도서관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립도서관과 달리, 작은도서관은 타 시설을 이용할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가 작은도서관 도한 이용케 할 수 있고 접근이 편리하여 주로 어린이들이 스스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경향이 많다.

종합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 등에 위치해 있는 작은도서관은 수영장, 어린이집, 각종 프로그램 진행실, 강당, 시청각실 등의 복지회관내 시설과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사업을 효율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주요 복지회관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노인, 근로자,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주민자치센터내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위탁법인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와의 협력관계에 따라 운영상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작은도서관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안상의 문제와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과 같은 제약이 있어 시설유지에 따른 갈등을 야기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헬스장 등의 시설이 민간의 영업부분을 공공영역이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러한 시설보다는 작은도서관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추세로 협력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소규모의 문화체육시설 내 위치한 작은도서관의 경우, 소음을 발생시키는 헬스장, 에어로빅실 등과 함께 운영되고, 같은 건물에 각각의 기능에 따른 운영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동 공간 활용이 어렵고 통합된 프로그램 진행이나 자원봉사자의 공동 활용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부천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사골문화센터의 경우, 사립공공도서관으로 신고된 '동화기차어린이도서관'과 '예술정보도서관 다감'이 위치하고 있는데 종합복지회관처럼 대강당, 각종 프로그램실, 문화카페, 시청각실 등 타 시설을 활용하는 한편, 기존 자원봉사자가 연합되어 있는 등 위에서 열거한 장점을 포함하여 운영되고 있다.

③ 위탁운영 단체별 유형과 특징

부천시로부터 작은도서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형태는 학교법인 1개소, 종교형태의 재단법인 5개소,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한국노총부천시부 등 사단법인 4개소가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1개소가 있다. 노동복지회관내 작은도서관을 위탁운영하는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의 경우에는 도서관 운영 시간을 토·일요일은 물론 평일에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거나 교회소속의 경우 신자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거나 하는 특징이 있다.

종합복지관을 운영중인 법인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회계업무가 능숙한 복지회관의 직원과 복지회관장이 작은도서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 작은도서관 실무에 도움이 되는 반면 재단법인 산하의 작은 지부가 운영을 맡은 경우에는 회계업무 처리부분이 취약한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표 60> 부천시 작은도서관 현황(2006. 7.1기준)

문 고 명	기관명	운영법인	면적(㎡)	장서수(권)	개관일
도란도란 어린이도서관	고강복지회관	가톨릭대학교	93.03	27,950	'02. 3.22
복사꽃필무렵 도서관	심곡복지회관	기독교감리회	114.39	6,698	'02. 3.22
새싹어린이 도서관	원종종합사회복지관	대한불교조계종	132	8,964	'02. 3.22
아름드리 도서관	삼정복지회관	한국장로교복지재단	132	7,770	'02. 8.16
신나는 가족도서관	약대동주민자치센터	대한예수교장로회	105.6	6,755	'02..11.11
꿈나무 가족도서관	역곡3동주민자치센터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209.5	7,212	'02. 12.18
햇살이 가득한 도서관	심곡2동주민자치센터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209.3	6,724	'02. 12.18
행복한도서관	노동복지회관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82.5	6,301	'03. 3.13
사랑나무 가족도서관	근로자종합복지관	한국노총부천시부	148.5	3,902	'03. 12.17
소새울 가족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남부천교회	153.2	3,905	'04. 8.16
고리울꿈터 도서관	고강1동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97.5	5,740	'04. 9.13

<그림 2> 부천시 작은도서관 배치 현황



나. 창원시 도서관 현황

1) 공공도서관

창원지역에는 도립도서관 1개소와 시립도서관 3개소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사업은 평생교육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시립도서관 3개소의 운영인력은 28명으로 이 중 18명이 사서직이다. 창원시의 공공도서관에서는 마을도서관 실무자에 대한 자료정리 기술지원과 200여권의 공공도서관 장서를 마을도서관에 순환하여 대출해 주고 있으나 그 외 유기적인 협력관계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

<표 61> 창원시 시립도서관 현황(2006. 7.1기준)

도서관명	건물면적(㎡)	부지면적(㎡)	도서(권)	비도서(점)	개관일
창원시립	5,497	17,382	186,395	11,195	'92.7.26
고향의봄	3,753	9,122	46,002	2,718	'02.11.2
상 남	3,481	11,880	54,006	2,834	'02.10.8

2) 작은도서관(마을문고, 사회교육센터)

창원시는 1997년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대동제(大洞)18)를 실시하면서 기존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공간에 마을도서관을 설치하였으며 (사)경남정보사회연구소와의 시민단체가 마을도

18) 대동제란, 구청을 설치하지 않고 행정구역인 동의 기능을 증대시키고자 창원시의 24개 동을 12개의 큰동으로 개편하는 창원시의 행정제도.

서관 위탁운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2005. 7. 20일자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하고 현재는 일부 마을도서관을 사회교육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6년 운영예산에서 사회교육센터 1개소당 3,720만원, 마을도서관 21,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창원시는 마을도서관 운영인력에 대하여 자원봉사자 실비차원으로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2006년에는 월 90만원씩 2인의 운영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 62> 창원시 마을도서관 현황 (2005. 12.31기준)

구분	명칭	위탁단체	주 소	개관일
사회교육센터	동읍사회교육센터	동읍주민자치위원회	동읍 용잠리 575(읍사무소2층)	99.06.01
	대산사회교육센터	대산면주민자치위원회	대산면 제동리 271-59(문화복지회관)	99.12.22
	의창사회교육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북동 260(민원센터2층)	97.01.30
	소계사회교육센터	의창동주민자치위원회	소계동 714-8(민원센터2층)	98.02.09
	팔용사회교육센터	팔용동주민자치위원회	팔용동 102-4(복지회관)	96.05.20
	대원사회교육센터	경남풀뿌리환경정보교육센터	대원동 37-5(복지회관)	96.05.31
	명곡사회교육센터	명곡동주민자치위원회	도계동 895(동사무소 3층)	97.10.01
	명서1사회교육센터	명곡동새마을협의회	명서동 174-4(민원센터2층)	98.02.23
	명서2사회교육센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마창지부	명서동 111(민원센터2층)	98.02.23
	봉곡사회교육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봉곡동 46-1(복지회관)	97.01.20
	봉림사회교육센터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봉곡동 107-1(청소년문화의집)	95.08.30
	사림사회교육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사림동 87-9(복지회관)	96.05.27
	반지사회교육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반지동 99(복지회관)	96.05.22
	중앙사회교육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중앙동 66-1(복지회관)	96.05.30
	내동사회교육센터	사단법인경남여성회	내동 456-2(민원센터2층)	98.02.16
	용지사회교육센터	용지동주민자치위원회	용호동 62-2(동사무소3층)	97.07.14
	신월사회교육센터	창원여성의전화	신월 68-5(민원센터2층)	98.02.26
마을도서관	상남사회교육센터	상남주민자치위원회	상남동 44-1(대동A관리사무소 1층)	99.12.16
	사파사회교육센터	창원YMCA	사파동 106-1(민원센터2층)	97.01.24
	대방사회교육센터	책사랑회창원지부	대방동 358(대동A관리사무소3층)	99.04.16
	남산사회교육센터	사단법인경남여성회	가음동 42-1(남산복지회관)	97.05.20
	가음정사회교육센터	가음정주민자치위원회	가음동 21-1(민원센터2층)	98.02.17
	남양사회교육센터	개나리2차아파트입주자	남양동 24(개나리2차A관리사무소3층)	00.05.18
	성주사회교육센터	성주동주민자치위원회	성주동 5(동사무소2층)	02.07.09
	웅남사회교육센터	웅남동주민자치위원회	신촌동 14.35(동사무소2층)	02.08.01
	반림마을도서관	럭키A운영위원회	반림동8번지(럭키A 관리사무소2층)	02.04.12
	동성마을도서관	사파동성A운영위원회	사파동 93번지(동성A 관리동)	95.07.23.
	안민청솔마을도서관	대동청솔A운영위원회	안민동 197번지(청솔A 관리동)	01.08. .
	디지털마을도서관	대동디지털A운영위원회	대방동 371번지(대동디지털A 관리동)	04.04.22
	의창동주민자치마을도서관	의창동주민자치위원회	동정동 250번지(주민자치센터)	05.03.28
	안민마을도서관	성주동주민자치위원회	안민동 261-5번지(복지회관)	05.07. 4
	동읍자여마을도서관	동읍주민자치위원회	동읍 송정리98-21번지(자여민원센터)	06.07.20.

*복지회관 9개소, 주민자치센터·민원센터·읍사무소 등 15개소, 아파트관리사무소 7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

다. 순천시 도서관

1) 공공도서관 현황

순천지역에는 어린이 전용 기적의도서관 1개소를 포함한 시립도서관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3개의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업무는 평생학습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36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평생학습지원과는 6개의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 중 3개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맡고 있는 도서관지원담당(계)은 4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서 1명이 작은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63> 순천시 시립도서관 현황(2006. 1.1기준)

도서관명	건 물 면 적(㎡)	부 지 면 적(㎡)	도서(권)	비도서(점)	개관일
중앙도서관	2,241	5,521	125,116	1,119	'80.7.19
연향분관	3,790	6,060	110,212	7,119	'98.1. 22
기적의도서관	1,304	4,204	24,383	623	'03.11.10

2) 작은도서관

순천시는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하여 마을도서관의 실정에 맞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립도서관과 연계하여 이동차량을 통한 순회문고를 3개소의 마을도서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현재 도서관리프로그램이 구축되지 않고 수작업으로 대출반납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으나 연내에 작은도서관 대출이용자 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본예산에 확보한 상태이다.

순천시는 독서열기가 높고 자체운영 능력이 있는 지역내 지역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작은도서관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부녀회(청년회), 주민자치운영위원회, 아파트자치위원회 등이 자체운영토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직접 모집공고하여 선발 배치하고 있으며, 월 30~4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표 64> 순천시 작은도서관 현황(2005. 12.31기준)

도서관명	사업비(천원)				개관일	면적(㎡)	도서(권)	열람석
	계	국비	시비	자부담				
19개소	469,299	122,300	332,840	14,159	-	1,512.2	44,749	558
주암광천	112,300	112,300			05.03.25	169.20	4,200	70
낙안읍성	40,030		40,030		05.05.04	116.89	1,700	28
상사용암	13,670		11,170	2,500	04.08.06	100.00	2,074	30

해룡소안	21,727		21,727		05.02.19	69.60	2,383	24
해룡신성	하이스코	가중			04.05.21	65.52	1,510	14
생목벽산	30,596	2,000	26,136	2,460	04.07.28	165.00	4,600	89
조례송촌	24,369	2,000	20,319	2,050	04.07.29	66.11	3,500	25
조례동신	34,215		31,788	2,427	05.02.19	82.11	3,685	24
서면자치	8,000		8,000		05.05.31	72.00	1,957	30
조곡자치	4,000		4,000		04.07.14	91.13	1,155	25
남계자치	10,000	6,000	4,000		05.03.14	89.10	1,780	30
매곡자치	7,000		7,000		05.09.09	67.00	1,200	25
별량구룡	25,920		25,042	878	05.09.05	51.62	1,020	22
조례급호	23,063		22,400	663	05.09.14	49.18	1,952	22
해룡호두	20,467		20,283	184	05.07.21	41.28	1,500	16
서면선평	29,645		28,502	1,143	05.07.25	62.40	2,128	28
황전용림	23,467		22,648	819	05.09.06	42.05	1,365	18
가곡옹달샘	14,385		14,385		04.07.13	66.0	4,540	20
도사우성	26,445		25,410	1,035	05.09.15	46.0	2,500	18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력시스템 및 내용

가. 공간확보와 근거 법규

1) 주민자치센터내 설치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부천시 작은도서관의 공간규모는 최소 25평에서 최대 116평(2006.10월 개관예정) 규모이다. 최초의 주민자치센터내 작은도서관은 지역내에서 활성화된 사립문고 ‘약대글방’을 약대동 주민자치센터 3층 공간을 확보하여 이전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부천시는 주민자치센터내 작은도서관 설치를 위한 별도의 조례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시장의 방침을 받아 주민자치센터 동장과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시설의 일부를 작은도서관(마을문고)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청소년공부방이나 헬스장 등이 운영 중에 있으나 사설 독서실과 헬스장 등의 영업이익을 공공시설이 침해한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천시 작은도서관 사업의 정착이 부각되었으며 그 결과 부천시 주민자치센터의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해당지역 시의원들이 작은도서관 시설을 선호하는 추세가 강하게 되었다. 다만, 시설의 공동사용 및 청사의 보안을 위해 작은도서관 위탁기관과 주민자치센터 동장과의 원활

19)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 5조(기능)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기능중 하나로 ‘마을문고’를 둘 수 있으며 제 7조(운영)에 있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운영을 단체에 민간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타시군의 경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음.

한 의사소통 등과 관련하여 시립도서관의 중재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내 작은도서관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 설계단계에서부터 개관식, 운영에 있어 주민자치센터와 시립도서관, 위탁기관, 시의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또한 요구된다. 이 밖에 운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수탁협약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그림 3> 부천시 약대주민자치센터 내 신나는 가족도서관



2) 주민자치센터(사회교육센터)내 설치 :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 사회교육센터 운영규정

작은도서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평생학습과에서는 2005년 7월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하여 평생학습 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평생학습 시설의 하나로 마을도서관과 사회교육센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평생학습조례에 의거, 사회교육센터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2006년 5월 4일 제정한 ‘창원시 사회교육센터 운영규정’을 따르고 있다. 또한 부천시와 마찬가지로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마을문고를 그 기능의 하나로 둘 수 있게 하였다.

3) 종합복지관내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 내용 중 공부방 및 도서관(학습, 독서지도 포함) 운영이 명시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기존 복지관내에 공부방이나 문고가 운영되고 있는데, 종합복지관은 주로 시에서 설립하고 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운영되고 있다

부천시는 종합복지관내 문고 중 활성화된 곳을 선정하여 리모델링비와 운영비 일체를 지원하는 형태로써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며, 복지관을 운영중인 법인에게 작은도서관 사업을 위탁운영하게 하고 있다. 또한, 종합복지관내 작은도서관 운영시 복지관내 다른 시설들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공간상 제약을 극복하게 하고,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작은도서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그림 4> 부천시 심곡복지회관내 복사꽃필무렵도서관



창원시는 복지관 활성화 방안으로 1995년 8월 봉림복지회관 내 봉림마을도서관을 개관하고, 1996년부터 8개소의 종합복지관 운영권을 경남사회정보연구소에 위탁하면서 여러 복지관내 마을도서관이 개관되게 되었다.²⁰⁾

2006년 현재 창원시의 복지관내 마을도서관중 7개소가 사회교육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남산복지회관과 안민복지회관만이 마을도서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위탁운영기관으로는 경남정보사회연구소 4개소, 주민자치위원회 3개소, 경남풀뿌리 환경정보교육센터와 (사)경남여성회 각각 1개소씩 2년간 위탁운영하고 있다.

4) 문화센터 내 설치 :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살펴보면, 문고나 도서관 시설에 대한 설치규정은 없으나, “기타 문화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공익상 필요한 사업을 위해 문화센터나 문화의 집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도서관 설치가 가능하다.

<그림 5> 창원시 남산복지관내 남산마을도서관



20) 양재한, “창원지역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3호.

5) 기존 지역시설 활용

순천시의 경우,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은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순천시는 2005년말 기준, 4개소의 주민자치센터 내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부녀회, 청년회, 아파트자치위원회 등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문고들을 리모델링한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순천시는 특징이 있는 공간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한 예로, 낙안읍성내에 위치한 '낙안읍성작은도서관'은 35평 규모의 초가집을 활용하였으며, 시비 29,976,000원의 예산으로 아동방, 청소년 어른방, 안내방 등의 공간을 구성하여 2006년 5월 4일 작은도서관으로 개관하였다.

<그림 6> 순천시 낙안읍성 작은도서관



6) 일반건물 활용

기존 건물의 일부를 임대 또는 매입하는 형태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하여 건물을 관리해야 한다. 기존 건물 임대시에는 채권확보와 사업의 연속성에 한계가 있고, 매입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경우에도 기존 시설들과의 융화와 하중문제, 의회 승인, 조례제정 등의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다.

작은도서관 부지의 경우에는 확보된 부지를 도서관용도로 변경해야하는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나. 예산지원 현황

1) 지원형태

예산의 지원형태는 전부를 지원하는 형태와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가 있으며,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다.

- 전부지원 : 설치비 + 일반운영비, 인건비, 자료구입비, 리모델링비
- 일부지원 : 설치비(복권기금)/운영비 일부(순천시)/ 운영비 대부분(창원시)

2) 지원예산 종류

지원예산의 종류는 일반운영비, 자료구입비, 인건비로 나뉜다. 작은도서관 설치비는 부천시
시의 경우 평균적으로 1개소당 약 4,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시설 리모델링 공사비와 최소
개관장서 구입비 1,000만원, 기타 서가 및 비품류 구입비가 포함된다. 순천시는 2005년도 7개
소의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면서 자료구입비를 포함하여 평균적으로 1개소당 약 2,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2006년도는 신규설치비로 자료구입비 800만원 포함하여 1개소당 평균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내 5개소를 추가로 신설·완료 할 예정이다.

<표 65> 2005년도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비 현황

(단위 : 천원)

작은도서관명	설치비			면적(㎡)
	합계	리모델링, 서가 및 집기 구입비	도서구입비	
계	163,392	110,391	53,000	352.13
별랑구룡문고	25,920	18,420	7,500	51.62
해룡호두문고	20,467	13,467	7,000	41.28
서면선평문고	29,645	21,645	8,000	62.40
황전용림문고	23,467	16,467	7,000	42.05
조례금호문고	23,063	15,562	7,500	49.18
가곡옹달샘문고	14,385	5,385	9,000	66
도사우성문고	26,445	19,445	7,000	39.6

작은도서관 운영비의 경우, 부천시는 사서 인건비를 포함하여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순천시는 2006년에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인건비와 자료구입비, 도서관리프로
그램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창원시는 마을도서관 운영인력에 대하여 월 90만원씩 2인의 인건
비와 자료구입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한 운영비는 유료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
여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2006년도 기준으로 사회교육센터는 1개소당 3,720만원, 마을도
서관은 2,16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순천시 작은도서관은 매월 프로그램 운영비 10
만원을 지원하고, 자료구입비는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평균 1년에 1개소당 300~
5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자원봉사자 인건비로 월 30~50만원이 지급되며 전기세, 냉난방
비, 공과금 등 기본 운영비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자체 부담한다.

운영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부천시는 2006년도 기준으로 연간 1개소당 평균 3,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문사서인건비, 자료구입비, 제세공과금, 유급 자원활동가비, 자산취
득비,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일체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작은도서관 도서관리프로
그램 서버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업그레이드비, 확장공사에 따른 리모델링비, 사서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비, 부천시 지역 작은도서관 협의회 운영비 등도 별도로 지원되어, 2006년도 작은도서관 11개소의 총예산은 시립도서관 1개소의 운영비와 비슷한 수준인 64,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66> 2006년 부천시 작은도서관 예산 현황

(단위:천원)

항 목	예산액	내 용
운영비	502,432	1개소당 평균 38648*13개소(사서교육비 2,200포함)
시설비	120,000	신규설치비 40,000*2개소, 리모델링 1개소 40,000
프로그램업그레이드	12,100	작은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 '바로클릭'
대체인력비	4,464	사서출산휴가 대체인력 2명(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정근수당	2,880	11개소 사서 정근수당 총액
계	641,876	

<표 67> 2006년 부천시 작은도서관 운영비 세부내역(1개소 기준)

(단위:천원)

구 분	보조금액	지 출 내 용
급 여	14,374	사서인건비
법정부담금	1,151	사서직원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퇴직적립금	1,198	사서직원급여의 1/12
제세공과금	1,225	전기료, 전화료,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화재보험료, 전기안전협회비, 우표구입비
운 영 비	9,500	도서관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사무용품비, 각종 유인물 제작비, 현수막 등의 홍보물제작비, 소모성물품구입비, 급량비, 외래강사료 등
자료구입비	10,000	도서 및 비도서 구입비
자산취득비	1,000	소모성 물품이외의 물품구입비
교육비	200	사서 전문성 및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비
계	38,648	

다. 도서관리 프로그램 지원

1) 부천시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 개발

부천시는 시립도서관과 연계한 작은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외 대출회원 관리, 대출반납서비스 처리, 상호대차서비스, 각종 통계현황 자료 추출 등의 작업을 자동화하고 있다. '바로클릭'은 2004년 시립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을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업그레이드하면서 작은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으며, 서버구입비로 2,000만원과 매년 유지보수비로 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2006년도에 작은도서관과 시립도서관 사서들의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사용에 있어 불편사항을 도출하여 1,200만원의 예산을 투

입해 업그레이드 하였다.

2) 순천시 통합도서검색시스템 구축

순천시의 경우에는 관내 학교 및 기관 단체 102개소의 자료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통합도서검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다. 이를 위해 2006년 6월에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 원가계산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사업비 16,500만원의 복권기금을 확보한 상태이다.

순천시는 1단계로 현재의 시립도서관 전산망(KOLASII)을 기본을 한 웹기반의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립도서관 3개소와 작은도서관 24개소를 연계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2단계로는 시립도서관 통합도서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교도서관 70개소에 통합도서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이다. 3단계로는 관내 대학도서관과 상호대차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도서관리프로그램 데이터를 웹기반에서 공유할 예정이다.

3) 창원시 통합도서검색시스템 구축

창원시는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립도서관과 32개 마을도서관(사회교육센터)에 대한 도서를 메타서치 방식으로 검색 가능케 하고 있으며, 각 마을도서관과 사회교육센터에서 운영중인 문화프로그램과 강사를 검색할 수도 있게 하고 있다. 시립도서관과 마을도서관 간 상호대차서비스는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각 마을도서관은 '책꽃이' 도서관리프로그램으로 자료와 관외대출회원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4) 안성시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

안성시는 1개의 시립도서관과 6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2001년부터 작은도서관을 위탁운영하면서 운영비 전액을 지원했으나, 작은도서관 사업이 위탁 운영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형태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2004년부터 시립도서관에서 직영하고 있다.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도서관리전산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어, 이용자는 1개의 회원증으로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어디에서나 대출반납을 할 수 있지만 아직 가능하나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은 되어있지 않다.

라. 상호대차서비스

부천시의 경우는 시립도서관 4개소와 부천대학 몽당도서관의 자료 534,794권을 작은도서관 어느 곳에서든지 손쉽게 대출·반납할 수 있도록 상호대차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부천시는 2000년부터 시립도서관과 시구청 행정자료실, 동사무소의 문고를 순환하며 상호대차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부터 작은도서관이 설치되면서 상호대차서비스를 작은도서관과 자료공유협약을 체결한 관내 부천대학 몽당도서관²¹⁾에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 상호대차서비스의 대출반납 처리는 처음 수작업으로 실시하였으나,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업무 처리량과 불편함이 나타나자 시립도서관 사서와 작은도서관 사서들의 협의를 통해 시립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오름정보사의 마에스트로)의 개선사항을 찾아 점차 업그레이드하면서 2004년에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작은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바로클릭)을 개발하고 상호대차서비스시스템을 완비하게 되었다.

<표 68> 부천시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 개발 전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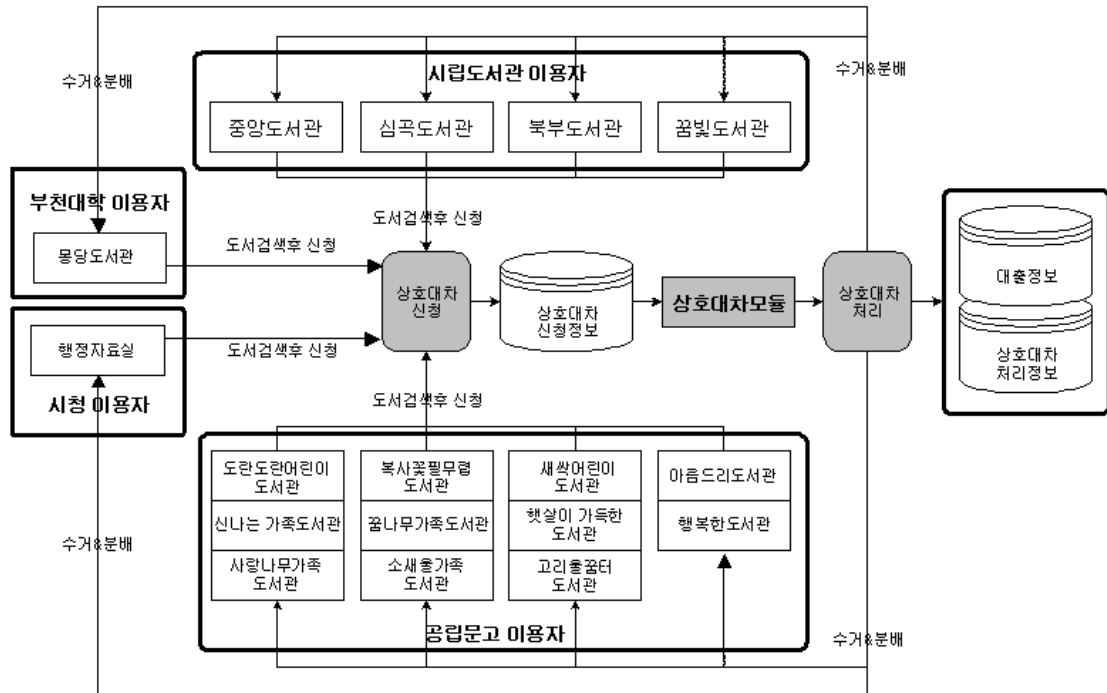
구분	개발 전	개발 후
이용자	-자료검색후 인터넷 상호대차서비스 게시판에 신청 -서비스 신청 실시간 조회 불가능	- 자료 검색 후 바로 신청 가능 - 인터넷으로 신청자료 처리현황 확인가능
시립도서관	-요청자료의 자료 전화 확인 - 수작업으로 자료 처리	- 요청 자료를 자동적으로 처리, 갱신함 - 대출은 전체 도서관에서 신청처리 가능
작은도서관	- 시립도서관 전화로 자료 처리현황 파악 - 자료의 대출반납 수작업	- 신청자료의 처리현황 실시간 확인 가능 - 시립도서관처럼 대출반납 처리 가능

상호대차서비스 실시를 위해서는 자료공유 기관간의 도서관리프로그램 연계, 관외대출회 원정보 공유, 도서운반 차량 및 운전원 확보, 자료공유 협약체결 등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또한 상호대차서비스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 않도록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검색 및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다음날 또는 2-3일 안에 원하는 도서를 받아 볼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신청도서의 처리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신청도서의 도착 시에는 SMS나 이메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²²⁾

21) 부천시립도서관은 2003년 6월 부천대학과 자료공유 협약을 체결했는데, 시립도서관 관외대출회원과 부천대학 재학생에 한하여 자관의 자료를 상호대차서비스를 통해 대출반납 서비스하고, 자료 분실시 각각 도서관의 규정에 따라 동일도서나 유사도서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22) 부천시민 10,000명중 무작위 추출 1,001명을 대상으로 2006년 8월에 실시한 작은도서관 만족도 조사 결과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11%가 상호대차서비스를 목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7> 부천시 상호대차시스템 구성도



<표 69> 부천시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실적

년 도 별	회원수	대상기관수	상호대차 대출·반납 실적	
			이용자수(명)	자료수(권)
2005	76,565	17	36,722	62,611
2004	62,622	16	29,588	53,915
2003	49,523	16	19,169	26,440

부천시는 상호대차서비스를 통한 장서한계 극복외에도 연간 1개소당 1,000만원의 자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출판협회, 문화관광부, 기타 시립도서관에 기증되는 도서를 연간 2,000권 이상 작은도서관에 기증처리하며, 작은도서관 자료구입의 총액기준으로 연초 견적입찰 공고하여 업자를 선정하여 주는 방식의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마. 자료지원

자료의 지원형태는 자료구입비 직접지원, 순회문고 운영, 도서 구입지원, 기증도서 지원, 상호대차서비스 등이 있다.

순천시 작은도서관에 자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3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이동도서관(차량)을 활용하여 시립도서관 자료 가운데 200-300권의 장서를 순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순천시의 작은도서관에는 전문사서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장서개발이 이뤄지고 있지 않으나, 작은도서관 운영 자치회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자료구입 목록의 적정성과 구입방법, 자료의 정리방법 등에 있어 시립도서관 사서의 자문과 협조를 받고 있다.

부천시는 2006년 기준으로 작은도서관에 연간 1,000만원의 자료구입비를 시비로 지원하고 도서관간 상호대차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그중 장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1개소당 200만원의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자료구입비를 추가지원하고 있다.

안성시는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 도서관리시스템이 통합운영되고 있으며, 도서관 자료는 시립도서관에서 일괄 구입하여 북장비 작업과 서지데이터 정리까지 완료하여 작은도서관에 배포하고 있다.

바. 민·관 파트너십 구축

1) 독서진흥 문화행사 연합개최

부천시는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11개소, 부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립공공도서관 2개소와 연합하여 ‘책읽는도시 부천만들기’를 위한 책릴레이 행사, 도서관문화한마당, 도서관 친구들 등의 행사를 공동 개최하고 있다. 부천시와 부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는 2005년 제6회 도서관문화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면서 시민 5,000여명과 내외빈이 모인 자리에서 ‘책읽는도시 부천’ 선포식을 갖고 이를 위한 책릴레이 행사, 도서관친구들 조직 등 독서진흥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독서진흥 행사 외에도 부천시도서관 관계자 워크샵(05. 5), 일본 가와사키시 도서관친구들 초청세미나, 경기도 공공도서관 워크샵을 ‘작은도서관 활성화’(06. 8)를 주제로 부천시에서 유치하기도 하였다.

순천시는 2004년부터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 2,700여명을 대상으로 ‘책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가-Book Start’사업을 실시하는데, 보건소와 시립도서관, 병원 등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책을 읽어주고 도서관 이용안내 및 육아상담을 하고 있다. 외곽의 읍면지역을 위한 순회방문 서비스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이 이러한 사업의 거점지로 활용된다.

순천시는 2004년부터 한권의 책을 선정해서 온 시민이 함께 읽고 토론함으로써 모두 책 읽는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고자 ‘책 한권, 하나의 순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립도서관과 각 작은도서관은 연도별 선정도서를 비치하고 독후감대회, 토론회, 연극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2) 활발한 의사소통

부천시는 처음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단계부터 시민단체와 시립도서관이 함께 심포지

음, 지역방송 토론회 출연,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면서 서로 갈등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자임을 인식하고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사서들은 2002년부터 월 1회 정례회의를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 애로사항을 듣고 시정방향 및 계획에 대한 의사소통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작은도서관 사서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11개소의 위탁운영권자와 사립공공도서관 운영자, 시민연합 공부방 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천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천시는 작은도서관 사업비에서 매년 30만원을 부천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 회비로 지원하고 있다. '부천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는 공공도서관과 시민을 연결하고 상호 협력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민, 기업,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도서관 친구들' 사업을 실시하여 도서관의 중요성을 부천시에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부천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는 각 작은도서관 관장들과 사서, 사립공공도서관 관장과 사서, 사립문고 운영자와 사서, 시민단체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의 역량은 부천시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 전문사서 배치

1) 전문사서 배치 및 교육

부천시는 타시군과 달리 도서관건립 업무 및, 작은도서관 사업을 시립도서관의 사서가 담당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에도 준사서 이상의 전문사서 1명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장서개발, 참고봉사, 독서치료 등 기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작은도서관의 사서들은 지방공무원 계약직 10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또한 사서보조인력으로는 유급자원활동가를 활용하고 있어 사서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서관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사서들은 작은도서관의 주 이용계층인 어린이와 주부를 대상으로 친밀한 서비스 제공, 독서동아리 운영 등으로 지역 커뮤니케이션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사서는 시에서 채용하지 않고 위탁법인에 소속된 직원으로 법인의 재량에 따라 비정규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정근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사서에 대한 예산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서 직무개발을 위한 전문교육이 부재한 상황이다. 2006년 만족도 결과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실무, 독서지도, 예산실무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작은도서관 사서나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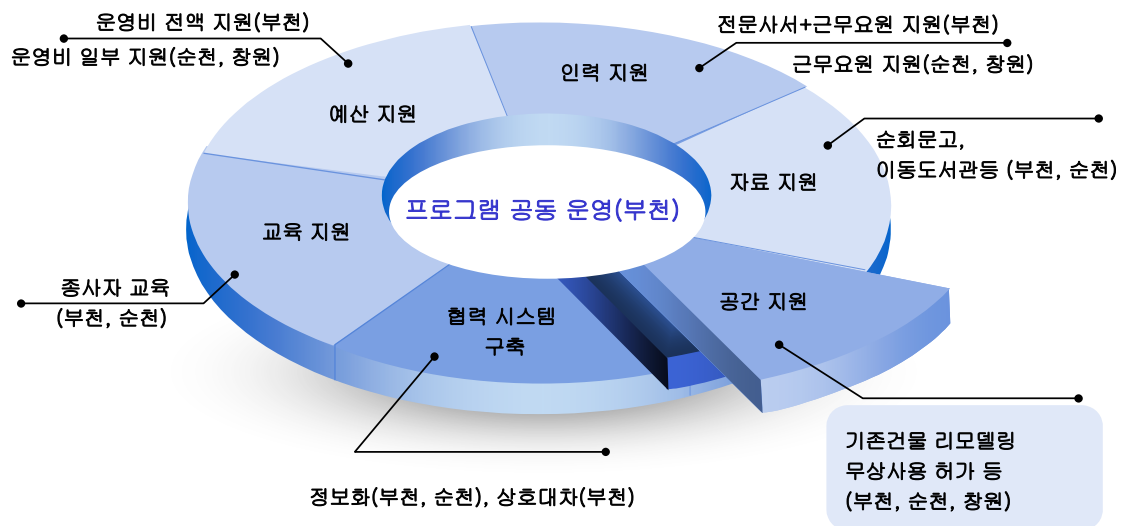
안산시 '꿈을주는 작은도서관'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시청에서 사서를 일용직 형태로 채용하여 배치하고 있다. 2007년도부터는 부천시립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을 직영하고 분기별로 자료구입비 48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운영인력의 비연속성

순천시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을 시에서 직접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공고 시 독서지도사나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공모·선정하여 배치하고 있다. 시립도서관 전문사서들은 이들에 대한 자료정리방법, 도서관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에 대하여 실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자에 대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안성시는 현재 1개 시립도서관과 6개 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인데 이 가운데 4개는 시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병영문고와 노인복지회관은 자체운영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의 종사자는 시립도서관에서 직접 공고하여 배치하는데, 파트타임제 형식으로 시간당 4,000원씩 1일 5시간 근무하고 있다.

<그림 8>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력내용



4. 시사점

가. 작은도서관 의의 및 운영 방향

작은도서관과 관련한 부천, 순천, 창원시의 사례는 작은도서관이 접근성과 친밀성을 강조하는 고객중심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민친화적인 운영 특성으로 지역내 공공도서관서비스의 접점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 또한 가능케 한다.

그러나 그 운영에 있어서 적지 않은 과제들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곧, 위치의 중요성이라든지,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은 작은도서관의 성공적 운영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제기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은도서관은 가능한 한 공공시설 유휴공간이나 주민 공용건물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접근이 편리한 곳에 조성되어야 하며 주 이용고객인 어린이를 위한 편의시설과 쾌적한 도서관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이나 주민공용 건물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하고 지역내 주민친화력이 높은 시민단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민관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세미나, 간담회, 워크샵, 정례모임 등 원활한 의사소통 통로를 마련하여 공동의 이익과 고객서비스 관련 내용 등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작은도서관의 한정된 공간과 장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서개발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사서의 배치가 요구된다. 또한 지역 내 각 도서관과의 자료공유를 위한 상호대차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 자료공유 규정 정립, 자료 이동방안(차량, 택배서비스 등) 마련, 인력수반, 시스템 보안과 이용자 정보보호 등의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호대차서비스를 위해 광범위하게 지역을 설정하기보다는 자료 이동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단위나 구역별로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자료 또한 이용자의 정보요구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서, 비도서, 웹 콘텐츠 자료공유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작은도서관 이용서비스 확대를 위해, 특성화된 문화프로그램 개발, 시설 내 특징을 살린 운영의 차별화, 개관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작은도서관 운영비 확보가 필요하며, 고객중심의 평가와 운영실적의 계량화 등을 통해 상부기관의 정책적 지원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차등있는 운영비 지원기준과 작은도서관 위탁운영기관 선정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무엇보다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접점으로서

의 분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 병행한 장기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작은도서관 종사자(사서)의 배치 및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침과 실무서가 필요하다. 작은도서관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를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하며, 도서관 친구들 형식의 민간부문에서의 기부금을 양성화시키는 정책도 요구된다.

나. 분관화에 따르는 문제와 시사점

1) 공공도서관과 민간협력체계 구축문제

① 공공도서관내 전담 조직 및 인력부재

작은도서관은 초기에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자발적으로 설립된 민간 문고를 중심으로 설립, 활성화되었으며, 처음부터 전담인력이나 체계화된 조직은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지원의 핵심 시설로 주목되면서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그 역할은 강조되고 있는 반면, 공공도서관의 여건은 추가적으로 보완되거나 개선되지 않아 작은도서관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업무량 증가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5개 시립도서관의 총괄적인 자료 확충과 사립공공도서관 자료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서팀(인력 3명)에서 작은도서관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업무과다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② 위탁기관 선정 및 재심의 기준 미흡

작은도서관을 직영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할 경우와 위탁기관이 만료되어 재위탁시에 위탁운영기관 선정에 따른 심의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내 특정단체나 특정지역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위탁기관이 선정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위탁운영기관 선정 심의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위탁운영기관 선정에 뜻하지 않은 영향력이 행사되는 문제도 있으며 위탁운영신청 민간단체와 공공기관과의 갈등이 초래되기도 한다.

③ 청사 공간활용에 따른 운영제약

작은도서관 시설이 공공기관의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설치함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권을 민간위탁한 시설의 공동사용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주민자치센터 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자치센터위원회와 동장, 위탁기관과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작은도서관은 토/일요일의 이용율이 가장 높은데 반해 주민자치센터는 주 5일 근무제 적용

으로 인해 토/일요일 청사를 개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활용은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장과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의 관계가 작은 도서관 운영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동장과 사무장의 순환보직에 따른 관계유지에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내 작은도서관 운영은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와 갈등이 심화되면 최악의 경우 작은도서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작은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여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④ 공립문고와 사립문고의 관계

사립문고는 자발적인 의지와 열의로 시작하지만 운영비의 증가, 운영공간의 확보 등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최근 공공기관에서 기존의 사립문고를 공립화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때 지원받지 못하는 사립문고와 지원받는 사립문고간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음으로써 지역 내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되기도 한다.

부천시의 경우 장기간(5년) 위탁운영하고 운영비의 전액을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성을 명확히 물을 수 있고 지역내 역량, 자부담 의지 등을 고려해서 비영리법인에 한해 위탁운영권을 주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작은도서관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시민단체의 위탁권에 제한을 두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사립문고들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공립문고화 되기를 원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립문고의 성격이 공공서비스 성격과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지원대상을 정하는 것도 어려움이 따른다.

2) 예산확보 및 집행의 어려움

① 운영비의 지속적 증가

가까운 곳의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작은도서관 사업의 중요한 특징이므로 동단위로 작은도서관들이 운영되어야 하나, 작은도서관 사업이 정착될수록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경비, 자료구입비 등이 증가함에 따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시(군)의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볼 때, 공공도서관 사업은 정책적 우선 순위에서 뒤쳐지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고, 시 재정이 악화되는 경우 도서관 등과 같은 문화분야 예산의 삭감이 우선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작은도서관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된다.

② 예산지원 세부기준 미확보, 고객평가 부재

여러 곳의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획일적으로 1개소당 평균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어서 작은도서관간 경쟁력이 없으며, 서비스 향상 및 개발을 위한 동기부여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고객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관내외 대출실적, 프로그램 참여 실적, 이용실적 등을 정확히 계량화하고 있지 않아 작은도서관 평가기준이 모호하며 예산의 차등지원과 세부적인 예산운영 지침도 수립되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③ 예산집행 회계능력 부족 및 업무감사 부담증가

작은도서관 운영을 민간위탁하였을 경우, 시민단체가 운영보조금을 받아 집행하게 되고 공공기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작은도서관 운영보조금 정산검사와 운영감독 책임이 뒤따른다. 복지관내 작은도서관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운영비를 집행하고 그 외 작은도서관은 시의 재무회계규칙과 물품관리규칙 등에 의해 정산검사를 받게 되지만 민간단체들은 이러한 운영비 집행 회계능력이나 물품관리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민간단체의 회계능력 부족은 곧 지도감독 담당자에 대한 업무감사로 이어져 작은도서관 담당자는 업무량 증가뿐만 아니라 청내 감사에 대한 부담도 증가함에 따라 작은도서관 업무담당을 기피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에 대한 정산검사 및 감독에 있어서 민간단체는 적은 운영비에 비해 정산검사에 대한 압력은 크다고 생각하여 시민단체와 보조금 정산검사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나 갈등으로 표출될 소지도 있다.

3) 자료공유시스템 구축 어려움

① 도서관리 프로그램 및 규정의 다양성

작은도서관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장서 소장에 한계가 있어 타도서관과의 자료공유는 작은도서관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이 다양하므로 이를 통합하기 어렵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공공도서관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Ⅱ)을 사용하고 있는 공공도서관과 각각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중인 공공도서관, 문고단위로 책꽂이, 실크로드, 미라클 등 다양한 도서관리프로그램을 각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공유를 위한 통합도서검색, 공동 회원정보 관리, 자료의 처리현황 정보, 공동목록 적용 등에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동일한 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공개입찰에 의한 업자를 선정함에 따라 특정 도서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도 어렵고 서로 다른 프로그램간에 자료원을 공개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또한 각 도서관별로 도서분실이나 이용자 관리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공유시에 분실도서 및 연체자 관리, 책임의 한계, 서비스 대상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②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자료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통합도서 검색이나 대출반납 처리를 위해 각 도서관 시스템을 호환하였을 경우 이용자 정보 및 자관의 시스템 보안유지를 위한 어려움과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시 막대한 책임이 따르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믿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료공유시스템 구축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회원정보관리를 위한 규정과 보안프로그램 강화가 필수적이다.

4) 기타

① 작은도서관의 고립적 발전

공공도서관은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건립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비해 작은도서관은 주민친화력이 높고 적은 예산으로 단시일내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칫 전시행정이나 선심성 정책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건립이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행정관청이나 공공도서관 종사자, 나아가 도서관계에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② 운영인력 확보 및 비정규직 사서 처우개선

작은도서관의 장서를 개발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용자에 대한 참고봉사, 자원봉사자를 끌어갈 구심체 역할을 하는 것은 사서의 역할이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사업의 성공여부는 전담인력으로서의 사서의 존재유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을 민간위탁하였을 경우 사서는 위탁기관의 직원으로써,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나 계약직 형태로 채용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사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치에 있는 작은도서관 사서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종사자의 인건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없이 갈등이 지속될 경우 노사문제 양상으로 갈등이 표출될 우려도 있다.

제3절 외국 운영 사례 분석

1. 외국의 작은 도서관

가. 작은도서관 개념과 유형

1) 작은도서관 개념

미국이나 유럽의 작은도서관 개념은 봉사인구수, 도서관 규모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정

의되며, 작은도서관은 큰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도서관을 의미한다. 미국 공공도서관의 기원을 보면, 우체국, 시청, 약국 등에서 소량의 자료를 소장해서 빌려주기 시작한데서 비롯된 것처럼 작은도서관은 건물 면적이나 도서관 장서규모에 관계없이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 지역주민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갖고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을 의미한다. 봉사인구수나 도서관 규모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분류되는 작은도서관은 소수의 직원 수, 한정된 예산, 좁은 공간, 적고 제한적인 시설장비 등의 환경을 갖고, 지역사회 연합체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업무 보조 및 보조금 등의 지원 및 지역사회의 재정적인 지원이 부여되는 도서관을 뜻한다.

작은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독립된 기관으로써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하며, 친근한 프로그램(독서프로그램, 성인특화교육, 문맹퇴치교육 등)을 운영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써 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분류하는 규모는 정형화된 기준이 없이 각 지역마다 다양하며, 작은도서관이 규모의 차이는 있더라도 도서관의 3요소인 장서, 사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그 외에도 계획과 예산, 협력망 참여, 이용자 확보, 기술과 서비스 표준화 등의 요소를 갖추면서 도서관 본연의 고유기능을 수행함으로 작은도서관을 건물 규모보다는 운영 시간, 한정된 서비스 등의 요인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작은도서관 유형

작은도서관은 독립적인 작은 공공도서관, 큰 공공도서관에 속하는 분관형태도서관, 농촌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도서관,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족도서관 등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이 포함된다. 이는 Rural (public) library, Small (public) library, Small community library, Village library, Mini library, Tribal library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나. 공공도서관 분관 형태 및 협력체제

1) 공공도서관 분관 형태

대규모 시, 구의 경우 '대표관-지역중앙관-지역분관-이동도서관, 문고'의 형태를 가지며, 농촌, 부락의 경우는 '지역중앙관-이동도서관, 문고'의 형태를 가진다. 공공도서관의 봉사권역과 봉사인구 입지기준에 따라 크게 '중앙관-중분관-소분관'의 형태로 나누기도 한다.

<표 70> 미국의 규모별 도서관 봉사권역과 봉사인구 입지기준

	봉사권역	봉사인구	입지
대분관 또는 중앙관	市 전체	제한없음	중심업무 및 상업지구의 1-2 블록내 교통이 편리한 간선도로면에 위치
중분관	1-1.6마일	25,000-50,000	접근성이 양호해야 하며 인구 100,000 이상 도시
소분관	小지역	지역에 따라 다양함	매일 개관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학교, 임대건물내에 위치 가능

분관의 형태는 봉사인구나 서비스 반경, 연간 대출권수로도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법과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눈다.

<표 71> 샌프란시스코에서 분류하는 공공도서관 분관 유형

구 분	대분관	중분관	소분관
봉사인구	50,000명 이상	35,000명 이상	10,000명 이상
봉사반경	1-1.5마일	1마일 이내	분관 미설치 지역
연간 대출권수	200,000권 이상	100,000권 이상	성인, 아동을 위한 기본자료 제공

<표 72> 서비스 내용에 따른 분관 형태

분관형태	서비스 내용
지역분관	최근 미국의 대도시에서 시내를 얼마 정도로 나누어 배치하고 있으며 봉사반경은 3마일 이내로 30만명의 봉사인구를 가진다.
지역사회분관	분관의 종류 중 가장 일반적이며 공공도서관의 기본 서비스를 모두 실시한다. 봉사인구는 55,000명이 넘어야 하며 개관시간은 1주일에 48~66시간이다.
소분관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하며 일본에서는 분실, 영국에서는 Part-time branch라 부르는데 봉사인구는 10,000명 이상으로 규정한다.

2) 공공도서관 협력체제

공공도서관에서 구축되고 있는 협력체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두 가지 협력체제는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협력에 대한 내용이 변화되기도 한다. 도서관의 자원공유 및 접근을 위한 협력체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들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형식으로 종합목록 작성, 주제별·지역별 목록 작성, 상호대차, 원문복사, 소장목록교환, 자료 제공, 공동수서, 공동 보존, 공동 목록, 직원교육, 운영 및 정보서비스 등이다.

둘째, 온라인 네트워크에 의한 협력체제는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도서관을 포함한 여러 기관과 조직들의 정보자원을 데이터베이스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연결시키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2. 외국의 작은도서관 운영 사례

가. 미국

1) 개요

미국의 작은도서관 개념의 “작은(rural, small)”의 고전적인 모형은 2,500명 미만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장소를 뜻하지만, 1978년부터는 인구 25,000명²³⁾ 미만의 지역에 봉사하는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작은도서관 개념은 농촌 혹은 작은도서관(Rural and/or Small Library)이라는 명칭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25,000명 미만의 지역에 봉사하는 도서관을 통틀어서 작은도서관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도서관들은 모두 도서관(Library)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 시스템에 속한 분관도서관 형태가 아닐 경우, 지역의 주요 도서관 또는 도서관 시스템과의 연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운영능력 및 재정요소를 기준으로 정한 기본적 시설 및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목록 공유나 상호대차와 같은 협력관계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 통계를 통한 비교(2001)²⁴⁾를 살펴보면, 2001년 통계 기준으로 미국의 공공도서관 9,129개 중 2,662개 (29%)가 인구 2,500명 미만 지역에 봉사하는 도서관, 9,129개 중 7,177개 (79%)가 인구 25,000명 미만의 지역에 봉사하는 도서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 규정하는 작은도서관 정의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이 미국 전체 공공도서관의 79%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는 봉사인구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 실정과는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3> 미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정의

기준	인구 2,500명 미만 지역에 봉사하는 도서관	인구 25,000명 미만 지역에 봉사하는 도서관
도서관수	공공도서관 전체 9,129개 중 2,662개 (29%)	공공도서관 전체 9,129개 중 7,177개 (79%)
도서관 개관 시간	봉사인구 1000명 미만(1,041개 중 416개) - 10-19시간/일주일 봉사인구 1,000-2,499명(1,621개 중 680개) - 20-29시간/일주일	봉사인구 2,500-4,999명(1,305개 중 457개) - 30-39시간/일주일 봉사인구 5,000-9,999명(1,443개 중 505개) - 40-49시간/일주일 봉사인구 10,000-24,999명(1,767개 중 548개) - 50-59시간/일주일
총운영수입	\$ 36,000 (약 ₩36,000,000)	\$ 192,000 (약 ₩192,000,000)

23) 하나의 공공도서관이 봉사해야 하는 인구수.

24) Chute, A., E., etc. (2002), 'Public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 Fiscal Year 1999. (NCES 2002-308),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Washington, DC : 2002.

직원수	풀타임 직원이 평균 1명(.6%) 미만	풀타임 직원이 평균 5명
ALA·MLS 학위 사서	169개 도서관 (6%)에 ALA·MLS ²⁵⁾ 학위를 받은 사서가 있음	2,232개 도서관 (31%)에 ALA·MLS 학위를 받은 사서가 있음
장서 현황	단행본·잡지 등록책수-11,196책 잡지 구독종수-30종	단행본·잡지 등록책수-27,235책 잡지 구독종수-74종
전체대출책수 (1년)	10,277건	47,528건
레퍼런스 처리건수	1,088건	5,234건
인터넷 접근	90%가 인터넷 접근 가능	95%가 인터넷 접근 가능
전자서비스	79%가 전자서비스 접근 가능	88%가 전자서비스 접근 가능

작은도서관을 인구 2,500명 미만 지역에서 봉사하는 도서관과 인구 25,000명 미만 지역에서 봉사하는 도서관으로 나누어 비교한 표이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개관시간, 운영경비, 직원 수 등에서는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이들 도서관은 규모와 상관없이 도서관의 고유기능인 장서구독, 대출, 참고서비스, 인터넷 및 전자서비스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운영사례 및 서비스

① 뉴욕공공도서관 (New York Public Library)²⁶⁾

Bronx, Manhattan, Staten Island에 85개의 도서관으로 이뤄지며, 5개가 중앙도서관이고, 80개가 분관도서관이다. 뉴욕공공도서관은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는 4개의 연구도서관, 거대한 분관과의 네트워크를 특징으로 한다. 4개의 연구도서관은 심도 있는 주제를 담는 컬렉션을 갖고 있으며 청각장애인, 신체 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이 있다. 뉴욕공공도서관 시스템에 있는 모든 도서관은 모든 이용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서비스 및 프로그램으로는 연구도서관에서는 대출은 안되고 자관에서 열람만 가능하며, 분관도서관에서는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증은 2개로 분관도서관용 대출카드(뉴욕주 시 거주민 무료, 그 외 \$100)와 연구도서관용 대출카드(거주와 상관없이 무료)가 있다. 목록은 2개로 분관도서관용과 연구도서관용이 있는데, 분관도서관용 LEO(Library Entrance Online)은 실물자료뿐만 아니라 온라인 자료 구독이 가능(PIN숫자 주어짐)하며, 연구도서관용은 CNTNYP로 분관도서관마다 주중 서비스시간이 다르다.

25) 미국도서관협회(ALA) 공인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으로부터 석사학위(·MLS)을 받은 자.

26) <http://www.nypl.org>

② 매사추세츠 지역도서관 시스템 (Massachusetts Library and Information Work - Regional Library Systems)²⁷⁾

매사추세츠 도서관 위원회는 이용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6개의 지역도서관 시스템(Boston, Central, Metrowest, Northeast, Southeastern, Western)은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1,800여개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의 자원공유를 위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지역서비스의 내용은 상호대차, 참고서비스, 도서관 사이의 자료의 전달, 계속 교육, 기술 지원, 데이터베이스 접근, 자동차문고 서비스, 협력 구입 프로그램, 인쇄 및 비도서 자료의 보조 보존 장서, 여름 독서 프로그램이며, 회원 조건이 필요하다. 협력서비스로는 자료 전달, 참고서비스, 상호대차 (MassCat 이용), 계속 교육 및 훈련, 자문 및 기술 지원, 추가 서비스 (25,000명 이하의 작은도서관 지원 서비스, 자동차문고 서비스 등 포함)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은 각 지역별 인구수에 따라 분배한다.

③ 오하이오 주의 지역 도서관 시스템 (Ohio's Regional Library Systems)²⁸⁾

오하이오의 지역 도서관 시스템은 주의 도서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7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250여개의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64개 카운티의 314개 도서관이 참가(Section 3375.90 of the Ohio Revised Code)한다.

운영서비스 및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사무소에 7개(CAMLS, GCLC, MOLO, NOLA, NORWELD, OVAL, SOLO)가 있으며, 협력서비스로는 자원공유, 계속교육, 기술지원 등이 있다.

④ 오하이오 주의 해리스버그 도서관 (Harrisburg Library & Reading Center)

해리스버그(Harrisburg)는 총 인구가 400명 미만인 '빌리지(village)' 수준의 중소도시로 이전에는 컬럼버스 남부 및 인근 도시를 포함한 Southwest Public Library (SPL)의 분관도서관이었으나, 1990년대 초 SPL의 재정부족으로 해리스버그 도서관을 폐관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지역 내 주민들의 사교·교육 시설이라는 시장의 탄원으로 해리스버그 도서관은 폐관의 위기에서 벗어나 도시 소유의 도서관이 되었다. 시정부가 건물유지비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주민들의 기부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 충당되고 있다.

현재 1명의 풀타임 직원(전문직 아님)과 20명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도서관의 기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목록작업이 수작업으로 행해지고 있다. 기본적인 오디오·비디오 시설이 없고, 단 두 대의 컴퓨터는 도서관 내 자료 검색을 위한 것이 아닌 이용자의 인터넷 정보 검색을 위한 기능을 하고 있다.

27) <http://www.mlin.lib.ma.us/mbic/regional/index.php>

28) <http://www.rls.lib.oh.us/>

주민들의 인원수나 소득 수준으로 볼 때, 민간으로부터 받는 지원금 역시 예산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려워 재단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운영 서비스 및 프로그램으로는 도서관 홍보를 위한 웹 사이트 부재와 목록 공유를 목적으로 한 타 도서관과의 협력관계나 정보교환 등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지역의 역사적, 행정적 자료를 비롯한 도서자료 제공 외에 예산부족으로 인해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예산 부족, 전문인력 부족, 신간자료 부족 및 자료 검색을 위한 기술 시설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⑤ 뉴멕시코 주의 캐피탄 공공도서관 (Capitan Public Library)²⁹⁾

1996년 설립된 캐피탄 공공도서관은 뉴멕시코 도서관 시스템에 가입되어 정부지원보다 거의 민간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이며, 전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도서관이다. Village of Capitan 과 Lincoln County 정부로부터 매년 \$2,100, \$3,000씩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지원금은 일정하지 않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CPL은 매년 시·카운티 정부의 예산결정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뉴멕시코 주 도서관(State Library of New Mexico)으로부터 연간 도서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받고 있다. 1,200권이 넘는 도서, 시청각 자료, 오디오북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자 편의를 위한 무선인터넷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기부 및 자금 조달, 새로 오픈한 thrift shop(second hand merchandise)³⁰⁾의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타 도서관과의 협력은 해당 카운티와 그 인근에 위치한 2곳의 신규 도서관에 도서 및 시설 기부, 정보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근 도시의 Ruidoso 공공도서관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CPL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Ruidoso 공공도서관로부터 기부 및 여러 지원을 받고 있다. 주정부의 도서관청인 State Library of New Mexico로부터는 Web Junction 프로그램 및 무료 인력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을 받는다. 전문인력 없이 운영되는 작은 규모의 공공 도서관도 도서관 시스템 안에 속했을 경우에 다른 민간 도서관들에 비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 이용자를 위한 연령별 단계적 프로그램 운영
- 교육, 컴퓨터 및 예술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어른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강의, 예술,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서반납 장소가 지역 내 레스토랑 등에서 이루어짐

29) <http://www.capitanlibrary.org>

30) Gift shop의 수입이 장래 도서관 건물신축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희망하고 있음.

⑥ 오하이오 주의 델리 메모리얼 도서관 (Dally Memorial Library)³¹⁾

오하이오 주 사르디스(Sardis) 시에 위치한 델리 메모리얼 도서관은 정부관할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민간지원만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도서관이다. DML은 정부기관의 관할로부터 자유로우며, 리버프론트 도서관 협회(Riverfront Library Association)로 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도서관 예산은 평균 연간 \$35,000이며, 그 중 \$8,000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이다. 도서관 전체예산의 50%는 자금조달, 북 세일(Book sale), 도서관 친구들(Friends of Library)과 같은 기부그룹 및 기타 공공·민간기관의 기부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 명의 풀타임 직원, 도서관 보조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며, 풀타임 직원은 오하이오 주 도서관에 소속된 도서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이다.

예산 지출은 전문 직원과 보조직원의 임금, 오하이오 주 도서관과의 멤버십 비용, 도서관 구입비 등으로 구성된다. DML은 독립적 공공도서관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범죄자의 사회봉사활동을 도서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Monroe 도시 검인법원에서 \$300)과 '연방정부 노인직업 프로그램(Federal Older Americans Work Program)' 등과 같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되며, 오하이오 주 도서관 소속 멤버십 도서관들과 도서자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받는다. 그 외에 청소년 범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노인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등이 있다.

3) 기타

미국의 도서관 시스템은 대체적으로 분산형으로 운영되며 민간주도형이 특색으로 각 주법에 따라 도서관의 수 및 운영실정이 다르다. 이렇게 미국의 경우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도서관 지원은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 (IMLS)로부터 각 주에 수여되는 'Library Service and Technology Act (LSTA) Fund'가 유일하며, 대부분 주정부의 지원정책이 지역도서관 시스템 및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도서관위원회(State Library Agency)는 기본적으로 지방공공도서관에 대한 주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기준의 설정, 교육프로그램의 후원, 도서관 상호협력의 증진 등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기구에는 주에 따라 다소 다르나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선출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관장을 임명하고, 도서관을 운영한다. 주도서관위원회는 주법에 따라 도서관의 무료개방, 재산 취득 및 처분, 벌금 및 과태료, 재정관리, 도서관 상호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내 도서관과 관련하여 주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준의 설정, 관장에 대한 인준 등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이런 권한들이 직접적으로 지방도서관에 대하여 행사되는 경우는 드물며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력(협동 또

31) <http://dallylibrary.org>

는 연합도서관시스템)을 행사하고 있다.

지역자치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행정시스템을 가진 미국은 각 주들이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도서관 관련 정보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 주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고 주 도서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도서관 시스템을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주정부가 그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도서관 협력 체계 도서관망은 보통 지역도서관시스템 안에서 주단위의 일정지역을 연계하는 지역(Regional)도서관망과 주(State)도서관망, 지방(Local)도서관망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때 야기되는 문제점들은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서로 다른 관종과 단위도서관이 소속된 법적, 행정적인 시스템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 자관의 정보자원으로 이용자들의 요구를 적시에 충족시키도록 요구받는 전통적인 도서관 조직의 문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얼마만큼 잘 타협하고 조정하여 협동 서비스를 조직 운영하는가는 도서관 협력 프로그램 성공의 열쇠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도서관은 법적, 행정적인 장애를 비롯한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하여 서로 다른 도서관 관종들도 함께 지역을 기반으로 한 협력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만의 협력이 아니라, 한 지역에서 서비스하는 도서관들이 모두 참가해서 모두 연계된 서비스를 담당하며 개별도서관은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영국

1) 개요

최근 2년간 영국의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는 증가해 왔다. 매년 2억 8,500만명을 넘는 이용자가 방문하고 있으며, 1,2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책, 필름, 음악자료를 대출하고 있다. 독서 그룹, 연구 공간, 숙제 클럽, 훈련 과정, 정보, 활동, 사건 및 컴퓨터의 인적 네트워크, 웹 사이트 등이 전국적인 서비스로 행해지고 있다.

영국의 협력시스템을 살펴보면, 1916년에 상호대차제도에 대한 개념을 정착시킨 후, 1931년에 영국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영국 전역에 중앙대출도서관제도를 통한 상호대차제도가 확립되었다. 또한 영국국립도서관문헌종합센터(BLDSC) 등을 설립, 기능강화를 도모하여 국제적인 협력체제로 발전시켰다. 영국의 협력체제 형태는 미국과는 달리 협력체제에 참가를 희망하는 도서관의 합의나 권고 등에 구애됨이 없이 국가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2) 운영 사례 및 서비스

① 캔싱턴 및 첼시 도서관 (Kensington and Chelsea Libraries)³²⁾

캔싱턴 및 첼시 도서관은 6개 분관으로 운영되며, 각각 당관이 소장하지 않은 책은 상호대차를 통하여 약간의 비용을 받아 운영하되 외국 자료까지 서비스하고 있다.

운영 서비스 및 프로그램으로는 상호대차와 동일 대출회원 카드의 사용, 수서업무시 협동 구매시스템 등이 있으며, 자료의 정리와 운영은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특화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광역서비스를 위한 런던도서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항상 시민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그 외에도 이동도서관, 숙제클럽 (Homework Club) 프로그램,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시청각서비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 도서관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방문서비스, 지역의 중심지나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하는 순회서비스 및 전자우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에게는 도서관의 운영과 각종 정보가 수시로 제공된다.

② 하린게이 도서관 (Haringey Libraries)³³⁾

런던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하린게이 도서관은 봉사인구 216,000명의 지역으로 우드 그린 중앙도서관을 중심관으로 9개 분관으로 운영되며 도서관위원회도 9개 도서관들과 협의하여 높은 수준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다.

운영 서비스 및 프로그램으로는 도서와 비도서류의 대출업무, 자동차문고, 장애인 방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아동 버스 서비스는 아동교육에 있어 부모와 부모교육의 비중을 염두에 둔 프로그램으로 5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3주 간격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는 형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4살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4권의 책과 2개의 장난감을 대출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3) 기타

○ 영국의 National Library of Scotland, Lending Services(NLSLS)

NLSLS는 스코틀랜드 국가도서관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도서관 상호대차와 종합목록 작성을 주 서비스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간의 협력체제가 아니라 국가도서관이 각 지역의 도서관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로 이루어진다.

32) <http://www.locallife.co.uk/kensingtonchelsea/libraries3.asp>

33) <http://www.locallife.co.uk/haringey/libraries3.asp>

○ Libraries and Information East Midlands

도서 및 관련된 자료의 상호대차를 통해 도서관 상호협력을 도모하며, 도서관들 간의 도서관 시설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도와주고 있으며, 상호대차 서비스, 공동구입 및 공동보유, 출판사업, 기타 협력사항 등도 담당하고 있다.

다. 프랑스

1) 개요

프랑스에서는 공적 영역인 도서관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 육성하고 있다. 오랜 세월 에 걸쳐 프랑스 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 공공도서관을 계속적으로 지원, 확대함으로써 이 공적 영역의 서비스를 굳이 민간에서 맡아야 할 필요성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없다.

작은도서관의 형태는 아니지만 많은 사설 도서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만족시킬 수 없는 시민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 아랍 문화 도서관, 소장자나 기증자의 이름을 딴 개인도서관 등과 같은 특화된 주제의 도서관들로 되어 있다.

2) 운영사례 및 서비스

① 까샹 시립 도서관 (Bibliothèque de L'ENS Cachan)³⁴⁾

까샹은 파리 남쪽 일드 프랑스에 위치한 인구 24,000명의 도시로 발 드 마르느(val de marne)라는 도(département)에 속해 있으며 파리 남쪽 2km에 위치해 있다. 도서관은 중앙도서관, 라 플렌느(La Plaine) 분관, 라마르틴느(Lamartine) 분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서 수는 약 10만권, 직원 수는 본관 18명, 라 플렌느 분관 3명, 라마르틴느 분관 3명 등이 있다. 2개의 분관은 본관과 비슷한 행사를 개최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2개의 분관은 본관으로부터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사회문화센터(Centre socioculturel)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센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곳으로서 각종 문화활동(춤, 미술, 음악 등의 여가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 두 도서관이 사회문화 센터 내에 위치함으로써 독서 활동이 사회 문화 활동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4) <http://www.bibli.ens-cachan.fr>

<표 74> 자료대출을 위한 연회비

구 분	연 회 비
까상 거주인	연간 9유로 (약 12,000원)
비 까상 거주인	연간 18유로 (약 24,000원)
비 까상 거주 미성년자	연간 9유로
까상 거주 미성년자, 실업자, 생활보호 대상자	무료

운영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중앙도서관은 도서실과 시청각자료실(음반, 오디오 교재, 영화)로 되어 있으며, 도서실은 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나뉘어져 운영되며, 다양한 전시회 및 독서 클럽 등을 운영하고 있다. 2개의 분관도서관은 사회문화 센터 내에 위치함으로써 독서 활동이 사회 문화 활동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단순히 책을 대여하는 차원을 넘어서 각종 행사를 기획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특히 두 분관은 대규모 HLM(정부 지원 공영주택)³⁵⁾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리적 위치는 두 분관의 역할이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아프리카 이민자들 중에는 불어 문맹자들이 많이 있는데 사회문화센터에서 이들을 위한 불어 교육을 실시한다. 라 플렌스 분관의 경우는 인근의 두개의 양로원이 위치해 있어서 이 양로원의 노인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책을 대여해준다. 도서 전시, 작품 낭송회, 독서 클럽, 양로원 책 대여, 인근 학교 학생들의 독서 지도를 하며, 학기 중에 까상 도서관은 초등학교 저학년생 및 유치원생들을 초청해서 전시회 개최, 아동 연극 상연, 동화 및 역사이야기 들려주기 등의 도서관 발견 행사를 갖는다.

② 쏘 시립 도서관 (Bibliothèque municipale de Sceaux)³⁶⁾

쏘(Sceaux)는 파리 남쪽 일드 프랑스에 위치한 인구 19,000명의 도시로 오 드 센느(Hauts-De-Seine) 도(département)에 속해 있으며 파리에서 국철로 20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도서관은 청소년실, 음향자료실, 성인실, 지역고문서실, 전시 및 공연장 등 여러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도서, 오디오 북, CD, DVD 등을 소장하며 140여종의 정기 간행물을 구독한다.

운영 서비스 및 프로그램으로는 매주 수요일 3-5세 아동들과 6-10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두 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시간’이 있으며, 그 외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위한 전시회, 도서관 발견 행사 등이 있다. ‘다양한 소리들’ 프로그램은 콘서트, 강연회 등의 형식으로 다양한 음악가들, 작곡자들, 기술자들, 연출가들을 초청하여 대중과의 만남을 갖도록 하고 있다. ‘과학 행사’에서는 매년 1월 중순과 2월 중순에 청소년들에게 과학적 문화유산을 알게 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전시회, 강연회, 토론, 체험 행사 등을 연다. ‘청소년 문학 작가와의 만남’에서는 작가가 자신의 직업, 작품 세계에 대해 말하면서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35) HLM에는 대부분 서아프리카 혹은 이민자들이나 알제리 등 북아프리카 이주민 등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이 살고 있다.

36) <http://www.sceaux.fr/bibliotheque/>

기회를 마련해준다. ‘음악 발견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개하며 정기 및 연말 콘서트 개최, 어린이 음악 교실을 개최함으로써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여러 명이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체험하게 한다. 또한 13-18세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 모임을 주최하기도 한다.

3) 기타

○ 병원, 요양원, 형무소 도서관

프랑스 복지부는 1947~1948년에 요양원 및 대학 병원에 의무적으로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국가적 지원이나 다른 정부 기관과의 연계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 시설 내의 도서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1992년 프랑스 문화소통부 산하 도서 관리국 (La Direction du livre et de lecture)의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전국 771개의 종합병원 및 요양 시설이 자체 독서실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이 보유한 도서관 수는 1,272개에 달하고 있다. 종합병원 및 요양 시설의 도서관의 경우 파리 및 주요 대도시에 위치한 종합병원들의 도서관들 외에는 전문 사서 없이 민간 자원 봉사자 및 민간 독서 클럽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병원 도서관 중 3분의 1 정도가 인근의 시립 도서관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1999년에 프랑스 문화소통부가 병원 시설에 도서관 등 문화 시설을 확충하고 인근 시립 도서관으로 하여금 병원 시설에 도서를 대출해주게 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병원 도서관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프랑스 주요 병원, 요양시설 도서관 책들의 46%는 구입에, 39%는 기증에, 16%는 공공 도서관의 대여에 의존하고 있다. 낮은 도서 기증률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많은 병원 시설 도서관들이 도서구입 및 관리에 어려움 겪고 있다. 프랑스는 형법에 따라 183개의 형무소에 하나씩의 도서관이 있으며 감옥과 병원 간의 상호 협력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공공도서관의 주력 사업

80여개의 ‘모든 사람을 위한 도서관 및 문화’ 클럽은 1,500여개의 시립 도서관과 연계되어 도서관에 활력을 주고 있으며, ‘레오 라그랑주 연맹(Fédération Léo-Lagrange)’은 농촌 지역 문화 단체인 ‘농촌 가정 연맹(Fédération nationale des foyers ruraux)’이나 건전한 여가 활동과 시민정신 함양을 목표로 활동하는 전국적 조직이다.

빈민 구호 단체인 ‘제4세계 빈민 구제 연합(Association ATD-Quart Monde)’, 우리나라의 전교조와 유사한 ‘교육 연맹(Ligue de l’enseignement)’과 같은 비독서 협회들이 시립 도서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라. 일본

1) 개요

일본의 공공도서관은 메이지 이전까지 문고형태로 운영되다가 메이지 이후 서구의 영향으로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면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공공도서관시스템 형태는 일반적으로 1개의 지역중심관과 복수의 지역도서관(분관, 분실)·자동차도서관으로 이뤄지며, 정촌부(町村府)의 경우 단독관(지역중심관) 및 자동차도서관 서비스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도서관은 건물이 아닌 기능에 따라 본관(또는 중앙관), 지구(지역)관, 분관, 분실, 자동차도서관 등으로 구성되며 각각 그 특색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도서관 조직망 또는 도서관 서비스망, 도서관系라고 정의한다. 일본의 공공도서관은 지역중심관, 지역도서관(분관, 분실), 이동도서관에 따라 담당 역할 및 서비스 내용이 나뉘어져 있으며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표 75> 지역도서관, 자동차도서관, 지역중심관의 서비스 내용

도서관	서비스
지역도서관	- 대출, 예약, 독서안내 - 쉬운 참고서비스 - 집회활동, 행사실시 및 시설제공
자동차도서관	- 인구밀도가 낮고, 지역도서관이 없는 지역 - 서비스 스테이션 설치, 대출, 예약서비스를 시행
지역중심관	- 지역도서관 기능 - 참고서비스, 도서관서비스 망의 운영 및 추진, 이동도서관 사무

<표 76>은 규모별로 도서관의 기능을 분산시킴으로써 서비스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지역계획의 개념을 활용한 것이다.

2) 운영 사례 및 서비스

① 우라야스 시립중앙도서관

시의 인구가 130,000명 정도로 중앙관을 중심으로 분관까지 총 7개 도서관이 있어 시민의 90% 정도가 걸어서 10분 내에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다.

운영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자료의 구입과 정리는 중앙관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며, 분관은 배송을 통하여 자료를 전달 받아 자료의 이용에만 주력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서는 중앙관과 분관의 수서모임을 통해 각자의 맡은 분야를 선정하여 공동수서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자료 납품시 서점에서 목록 반입을 함께 한다. 그 외에도 유아원,

보육원, 학교로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는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이 있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택서비스, 직업정보제공, 상담봉사 등도 있다.

② 오사카 시립 중앙도서관³⁷⁾

중앙도서관, 23개 지역 도서관, 자동차문고 2대로 도서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의 서버를 이용하여 23개 분관이 이용된다. 도서구입은 1주일에 한번으로 현장수서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앙관에서 구입해서 정리하여 지역 분관으로 우송한다.

상호대차, 자료의 폐기가 지역분관과 공동으로 이루어지며, 복본으로 구입한 자료와 시대에 따라 자료적 가치가 소멸된 도서는 중앙도서관 보존서고에 보관하고 지역분관의 자료들은 폐기시킨다. 각종 보존자료 및 홍보자료는 공동으로 중앙에서 제작·보존·홍보하고, 지역분관에서는 학교 등에 자동차도서관 운영과 자료의 대출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분관에서는 공부방과 여가 및 취미활동을 위한 문화교실 등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야기 교실 등 독서관련 프로그램만 운영해서 지역주민의 독서와 정보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그 외에 외국인을 위한 안내관(4개 국어)과 청소년과 어린이 이용자를 위한 도서코너 운영, 도서관 근처에 살고 있지 않은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대의 자동차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내의 각 이동문고 스테이션(지정 정차장)을 월 1회씩 순회하고 있다.

③ 동경어린이도서관³⁸⁾

(재단법인)동경어린이도서관은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며 공적 지원은 전혀 없고 재단법인의 독립 재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재정상황을 보면 찬조회원의 기부가 30-35%를 차지하고 있고, 출판사업의 매상이 45%를 약간 넘으며 그 밖에 강연, 강좌, 강습에 의한 수입이 있다. 특히 찬조회원은 어린이 도서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소액 기부자가 많다. 직원은 풀타임으로 일하는 정직원이 12-13명,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원이 2-3명 있다. 사서자격을 가진 사람은 6명, 임원 중에 자격자가 2명 있어 도서관 전체로 8명의 사서자격자가 근무하고 있다. 도서관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지만 출판업무에서 잡무나 정리 등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고 있다.

운영 서비스 및 프로그램으로는 국제어린이도서관³⁹⁾과의 직원교환교류와 연수나 강습회를 개최하여 지방의 공공도서관의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서비스'는 어린이 대상으로 주 1회 운영되고 있다.

37) <http://www.oml.city.osaka.jp/english/index.html>

38) <http://www.kodomo.go.jp>

39) 국제어린이도서관은 2001년 1월 국립국회도서관의 지부도서관으로서 설립된 일본 최초의 국립아동서전문도서관이다. 그해 5월5일 제1기 개관을 하여 2002년 5월5일에 전면 개관하였다. 기본적인 역할로서는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의 제1선에 있는 국내외의 도서관과 연계, 협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그 활동을 지원하여 어린이의 책과 출판문화에 관한 광범한 조사, 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센터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④ 일본점자도서관

일본점자도서관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은 면세가 되는 법인격으로서 부분적으로 공적지원을 받고 있다. 재정상황을 보면 정부와 동경도의 보조금이 전체 재정의 15%를 차지하며 개인의 기부가 15%, 40%는 맹인용구의 판매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자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수익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자책을 녹음하는 등의 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연간예산은 10억엔)하고 있다. 연간 이용자는 1만1,500명에 달하며 정직원이 60명, 파트타이머가 75명, 그중에 시각장애자는 12-13명 정도가 있다.

운영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자료 상호 대차'가 있으며 전국의 점자도서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자료 상호 대차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직접 점자책을 만들어서 공공도서관에 판매하기도 하며, 우편시스템을 통한 자료 배달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3) 기타

일본의 어린이문고 활동은 '소득증가', '고도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린이를 둘러싼 문화와 자연환경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여 엄마들이 일으킨 운동가운데 하나이다.

'어린이들에게 좋은 책을, 더 좋은 책을!' 이라는 바램을 가진 엄마들의 지역 활동은 공공도서관 건립의 촉구형식으로 나타났다. 초기에 '도서관에 책이 있어야 한다'라는 작은 요구로부터 시작한 엄마들의 운동이었지만, 결국은 '도서관의 설치', '아동서비스의 충실', '운영의 개선'으로 점차 진전되어 1970년대 이후의 공공도서관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종래 시도되지 않았던 아동서비스를 공공도서관의 중심적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마. 덴마크

1) 개요

덴마크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무료 공공도서관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공공도서관과 상호대차시스템은 도서관법령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공공도서관 시스템은 중앙도서관과 분관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중앙도서관의 수는 2005년에는 222개, 분관의 수는 422개, 자동차도서관의 수는 42개로, 분관의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도서관이 보다 커지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추세에 따라 적은 장서와 짧은 이용 시간을 갖춘 작은도서관은 폐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1주일에 4일 정도

개관 운영, 3명 정도의 사서가 근무하며 이들은 시립도서관에서 파견된 사서들이다. 작은도서관은 서비스 포인트 기능을 담당하며 특히 고령자, 아동과 같은 특화된 서비스에 치중하고 있다. 시골과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보다 큰 도서관시스템의 부분인 자동차도서관 혹은 분관에 의하여 서비스되고 있다.

최근 지방공공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부모와 아이들이 쉽게 유치원에 올 수 있음에 착안하여 미디어와 직원의 지원을 통해 ‘유치원도서관(Kinder-garten-libraries)’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2) 운영 사례

덴마크에는 크고 작은도서관들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민간이나 사립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도서관은 없으며 국가의 요구에 따라 도서관시스템을 조직하고 있다. 도서관은 일반적으로 중앙 및 지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기관(실내수영장, 공장, 회사 사무실 등)과의 협력관계 또한 매우 광범위하게 구축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서관 웹-서비스는 큰 도서관뿐 아니라 작은도서관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주고자 국가적 서비스로 조직하였다.

1993년 공공도서관과 연구도서관의 목록이 합병되어 ‘국가서지종합목록(DanBib)’이 만들어졌는데, 이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어떤 자료든지 요청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도서관에서 자료 입수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또한 상호대차가 무료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가적 책임 하에 전국적 배달시스템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운영하고 있다.

지역 사회 운영 시간 연장의 방법으로는 도서관-실내수영장, 도서관-서점 등과의 연계를 지원해줌으로써 전문적인 특화서비스(스포츠와의 특화, 서점연계를 통한 구매가능)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자동차도서관 서비스 이상으로 수요가 증가하였다. ‘집으로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The library is coming service)’는 고령자, 장애자를 위해 이용자의 집으로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이며, 이밖의 on-line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제공되고 있다.

<표 76> 덴마크도서관의 on-line 서비스

영역	서비스 내용
e-ask 사서서비스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56개 도서관이 협력으로 이 서비스가 조직되었으며, 1주당 80시간 사서와의 채팅이 공개되어 빠르고 질 높은 질문서비스가 이뤄짐
도서관 웹 음악 서비스	모든 덴마크의 음악은 디지털화되어 있으며 협약 (가격)은 국가와 저작권자와 이루어짐. 음악-트랙은 하루 혹은 일주일 동안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이와 아울러 스트림 비디오에 대한 서비스를 계획 중에 있음

도서관 웹-안내 서비스	광범위한 주제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웹사이트들을 수집하여 질 좋은 웹사이트 제공
주제 게이트웨이와 포털	예술과 건축 포털, 소설과 저자를 위한 웹-사이트와 같은 여러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주제 게이트웨이와 포털은 많은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으로 숙제, 특히 에세이-쓰기를 위한 웹사이트, 법률 질문을 위한 웹사이트 제공

3. 외국의 작은도서관 운영, 협력지원 및 서비스 분석

가. 작은도서관 운영 유형

1) 예산 확보

① 뉴욕공공도서관의 행정과 민간의 협력관계(PPP : Public-Private Partnership) 사례

민관파트너십이란 공사부문의 개인이나 단체가 상호이익을 위하여 협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협조체계는 정책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정책적 측면은 지방정부의 목표가 분명하게 개발되고 정립되는 것이며, 운영적 측면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민관파트너십의 목적은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상기한 두 측면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뉴욕공공도서관의 행정과 민간 협력 사례는 도서관 신관 건설, 카네기와 뉴욕시에 의한 지역분관, 최근에는 과학산업비즈니스도서관(시블)의 건설 사례가 있다. 시블 건설 총공사비인 1억 달러는 뉴욕시 등에 의한 자금지원과, 나머지 절반은 기업이나 시민 등 민간에 의한 기부금으로 이루어진 PPP의 좋은 사례이다. 뉴욕공공도서관의 지역분관은 뉴욕시에 의한 자금이 대부분이지만, 연구도서관에서는 연간 예산의 반 이상이 민간 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략적으로 자금 조달을 행하는 전문부서(자금모집으로 특화된 사업개발부)를 설치하여 분관에서는 1%에 해당하는 146만 달러, 연구도서관에서는 예산의 5%인 655만 달러라는 금액이 자금 모집 경비로서 계상(計上)되어 있다. 뉴욕 공공도서관은 어디까지나 공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민간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② 도서관의 친구 (Friends of Library) 사례

도서관의 친구란 도서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기금모금, 자원봉사, 홍보 활동, 로비 및 캠페인 그리고 지역주민 연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도서관에 기금을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의 재정 운영에 참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도서관 마케팅에 참여하

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도서관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함으로써 도서관의 지역사회 홍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도서관의 친구’는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의 거의 모든 부분을 지원하고 참여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수행하는 5가지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다.

- 자금 조달 (fund-raising)
- 자원봉사 (Volunteering)
- 홍보활동 (Public Relations)
- 캠페인 및 로비활동 (Campaigning or lobbying)
- 지역주민 연계활동 (Community involvement)

‘도서관의 친구’는 세계에 조직되어 있는데 미국의 3,000개를 중심으로,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스페인, 아이슬란드, 일본, 인도네시아, 칠레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77> 각국의 ‘도서관의 친구’ 활동 현황

국가별	활 동 현 황
미 국	-최초의 도서관의 친구는 공공도서관의 친구에서 비롯됨 -서부 개척시대부터 이어온 봉사활동, 기부문화, 자발적인 참여문화 등과 일맥상통함 -‘도서관의 친구’ 국가조직(1979년 설립)이. ‘도서관의 친구’의 양적, 질적 성장 초래(Friends of Libraries U.S.A. (FOLUSA))
영 국	-최초의 도서관의 친구는 대학도서관의 친구에서 비롯되었으며, 옥스퍼드대학교 보들리언도서관에 1925년에 설립됨 -도서관캠페인 (The Library Campaign [http://www.librarycampaign.co.uk])은 2000년 이후 영국 전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도서관의 친구’들을 조직화하려고 노력함
호 주	-최초의 도서관의 친구는 1932년에 공공도서관에서 시작됨 -호주 도서관의 친구 전국조직’의 탄생이 많은 새로운 그룹의 형성을 가져옴 (Friends of Libraries Australia (FOLA)) -호주 국립도서관에 ‘도서관의 친구’가 1990년에 조직 (The Friends of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됨
캐나다	-최초의 도서관의 친구는 1932년에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 각각 조직 캐나다 도서관의 친구 전국조직’(1998년, Friends of Canadian Libraries), ‘캐나다 국립도서관의 친구 그룹’(1990년, the Canadian National Library’s Friends Group)이 활동함

<표 78> 국가별 ‘도서관의 친구’ 국가조직

국 가	‘도서관의 친구’ 국가조직
미 국	Friends of Libraries, U.S.A. (FOLUSA)
영 국	The Library Campaign
호 주	Friends of Libraries Australia (FOLA)
캐나다	Friends of Canadian Libraries

‘도서관의 친구’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함으로써 중앙 및 지방정부 혹은 교육당국으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식 예산 외에 더 나은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시민사회로부터 추가로 모으기 위해 활동하며, 결과적으로 각종 도서관들은 ‘도서관의 친구’의 도움으로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추가 기금의 확보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도서관의 친구’의 자원봉사자들은 사서가 수행하는 일상적이고 단순한 도서관 업무를 도와줌으로써 사서들이 이들 업무로부터 벗어나 좀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또 도서관홍보, 도서관캠페인 그리고 지역 주민연계 활동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도서관의 친구’는 도서관의 운영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이용자를 도서관으로 끌어들이는데 더없이 중요한 조직체가 되었다.

③ 자금 조달을 위한 도서관의 전략 사례

도서관을 지원하는 시민의 모임인 ‘도서관의 친구’는 기부금액에 따라 단계적인 특권을 부여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79> 뉴욕공공도서관의 ‘도서관의 친구’ 사례

구 분	기부금액에 따른 단계적 특권내용
25달러 회원	- 도서관 내 샵에서 쇼핑할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권
125달러 정도의 회원	- 25달러 회원의 특권 포함 - 저명 작가의 강연회 저자와 함께 출판 전 책의 내람회를 즐기는 이벤트 - 화려한 만찬회, 도서관 무대 속 투어 등에 초대 - 도서관 연차보고서의 기부자 리스트에 이름 기재
2만5천 달러 이상의 회원	- 관장 주최의 평의회 위원이 됨 - 125달러 회원의 특권을 포함하여 극히 한정된 관계자만이 초대되는 특별프로그램에 참가 가능

이외의 자금 조달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도서관 주최의 ‘기부강좌’를 통한 자금 조달을 들 수 있다. ‘기부강좌’는 실용적인 내용을 담은 강좌로써 세제의 구조 및 우대제도를 설명하면서 기부가 자산관리 및 사회적 경제적으로 얼마나 의미있는가를 강연한다. 도서 판매를 통한 자금 조달의 경우, 개정판이 나오면 이전 판은 10% 정도의 금액으로 판매해서 개정판을 구비한다. 규모가 적은 장서 수장 공간 문제와 자금 조달을 위해 오래된 자료나 복본자료, 기증 자료 중 중복 자료인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여 자금을 확보하기도 한다. 그 외에 도서관 공간 대여를 통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전시회, 패션쇼 등의 공간 대여를 통해 도서관의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 도서관 홍보

① 영국의 “사랑해요 도서관(Love Libraries)”⁴⁰⁾

2006년 3월 15일자 ‘사랑해요 도서관’ 캠페인 보도자료 및 3월 22일자 BBC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인 성인 5명 중에서 1명은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했던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인의 42%는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지역의 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성인 절반이 인터넷을 통해 도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성인의 54%가 도서관을 이용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15%는 도서관을 연금 수급자나 추위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도서관 문화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데이비드 라미(David Lammy) 문화 담당 장관은 21세기에 어울리는 도서관 서비스의 새로운 비전을 제안하고, 도서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사랑해요 도서관’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캠페인은 영국 정부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 박물관·도서관·기록관리관 평의회(MLA,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9개의 출판사, 독서협회(The Reading Agency)가 결성한 ‘미래의 도서관 파트너십(Future Libraries Partnership)’에 의해 수행되었다.

‘사랑해요 도서관’의 목적은 영국 도서관의 장기적인 마케팅의 일부로서 신선하고 새로운 긍정적인 이미지를 생산하려는 것으로, 현대화되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독서 서비스의 소개, 의사결정에 대중의 참여, 많은 도서관의 현대화된 독서서비스의 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려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설정, 실시하고 있다.

첫번째 단계로 2006년 3월-6월동안 뉴케이(Newquay) 도서관, 콜드하버(Coldharbour) 도서관, 리치몬드(Richmond) 도서관 등 3개의 도서관을 선택해서 독서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 서비스를 12주간에 걸쳐 ‘극적으로’ 만들어내고자 계획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오래된 도서관 건물의 개조, 웹사이트의 개편, 대중을 위한 도서관 온라인 안내, 온라인 대출의 확충, 장서

40) <http://www.lovelibraries.co.uk/>

의 재평가, 개관 시간을 재고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21세기 독서서비스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도서관의 핵심 독서 서비스의 연구 및 새로운 기준 설정, 24시간 7주 온라인 서비스 지원, 독자 개발 및 독서 그룹 등과 같은 커뮤니티 활동 지원, 직원 훈련 프로그램 개발, 미래의 리더 프로그램 요소의 개발, 독서 서비스를 위한 국가 협력 프로그램 개발, 국가 협력체제 개발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계획하고 있다.

나. 작은도서관 협력·지원

1) 도서관 개발을 위한 지원

외국의 사례는 전문성 강화와 도서관간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도서관 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각 도서관 사서들이 어려움을 가지는 여러 가지 사항을 지원하며 도서관 서비스 전반적인 프로그램 만들기, 도서관 운영시 예산 확보 방안, 도서관 정책 개발 지침 등 또한 지원하고 있다. Arkansas 주 도서관(Arkansas State Library)은 도서관 정책 개발시 문화적인 면(cultural aspects), 디지털화(Digitization)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2) 직원들의 계속 교육 및 훈련 지원

미국 대부분의 주도서관에서는 1년에 1~2회의 작은도서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교육프로그램이나 워크샵, 세미나를 개최하여 참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과 신기술, 신지식 등에 관한 계속 교육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① Texas State Library의 Small Library Management Training Program⁴¹⁾

이 프로그램은 정규과정의 도서관 석사과정 학위가 없는 직원을 위한 계속적이고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1994년 이래 350여 명의 작은도서관 직원이 이 과정을 이수하였다. 1개의 도서관 당 직원 2명의 직원으로 프로그램 참가를 제한하였으며, 프로그램 과정은 기획, 예산, 인사, 자료 주문 및 폐기, 정책 개발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프로그램은 2일간의 일정으로 주의 5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매년 봄, 가을의 2회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아래와 같은 교육과정을 가진다.

41) <http://www.tsl.state.tx.us/ld/projects/slmt/index.html>

<표 80> 프로그램 교육과정

교육과정
과정 I - 관리 I: 경영과 계획
과정 II - 관리 II: 고도 관리 이슈
과정 III - 장서 개발
과정 IV - 참고 서비스
과정 V - 기술 및 자동화

② Idaho's Alternative Basic Library Education (ABLE) Program⁴²⁾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필요하게 되는 기초지식과 기술을 얻기 위한 것으로 도서관학에 공식 교육을 수료하지 않는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수과정은 정규 대학과정이 아니라 기본적인 기술 훈련을 목적으로 하며, 도서관 관리 기술들을 다루고 주 단위 교육 차원의 정기적인 과정을 제공한다. 현재의 교육과정은 장서개발, 기술서비스, 공공서비스의 3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장서개발 과정'에서는 장서개발 정책 작성, 장서 평가, 자료 선정, 폐기 등을 둘째, '기술서비스 과정'에서는 기술 서비스 및 목록 레코드, 주제명 표목, 듀이 분류, MARC 목록 등을, 셋째, '공공서비스 과정'에서는 참고 인터뷰, 참고정보원 평가, 기본 참고정보원, 윤리와 공공서비스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3) 도서관 정책 개발 지원

□ 작은도서관을 위한 도서관 정책(Sample Library Policies for the Small Public Library⁴³⁾)

작은도서관을 위한 정책 사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리 정의된 도구를 효율적으로 편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사명과 목적의 성명
- II. 도서관 이용자
- III. 후원자 책임 및 행위
- IV. 도서관의 서비스
- V. 도서관 위원회의 책임 및 권위
- VI. 자원봉사 및 친구
- VII. 인사 정책
- VIII. 자료 선택/장서 개발 정책

42) <http://libraries.idaho.gov/able>

43) <http://www.owlsworld.info/L4L/policies/sample.asp>

- IX. 대출 정책
- X. 참고서비스 정책
- XI. 프로그래밍 정책
- XII. 홍보 활동 정책
- XIII. 설비 사용 정책
- XIV. 인터넷 사용 정책
- XV. 회의실 정책
- XVI. 디스플레이 및 전시 정책
- XVII. 공지 게시판 위원회 정책
- XVIII. 재해 정책
- XIX. 도서관 정책의 수정
- XX. 부록
 - 형식: 도서관 자원의 관심 성명
 - 형식: 인터넷 사용 협정
 - 도서관 권리 장전

4) 기타 지원

① 기술적인 지원

기술적인 지원에는 주로 도서관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지원과 같은 기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있으며, PC 업그레이드, 메모리 인스톨레이션, TCP/IP 로드, 메뉴 빌더, CRT 텔넷 등을 지원한다.

② 부차적인 지원

대중소설이나 인기 있는 신간 서적 위주의 자료 등의 컬렉션 지원 등을 위해 자동차문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

<표 81> 협력 내용

구 분 카테고리별	상 세 내 용
도서관 봉사 협력	상호대차(ILL), 문헌복사의 상호제공, 공동대출, 레퍼런스 처리의 상호의뢰, 홍보 공동실시, 정보검색기기의 공동이용
자료의 수집, 보존협력	공동선택 및 공동구입, 자료의 분담수집, 분담보존, 자료교환, 자료의 공동보존, 공동제본
자료 정리 협력	집중정리, 종합목록
디지털 서비스 협력	웹 사이트 개발, 데이터베이스 이용, 디지털 자료 접근 등
도서관 관리 협력	인사교류, 직원연수, 도서관 평가, 도서관 조사, 도서관 용품의 공동구입, 도서관 설치 진흥을 위한 협력

5) 협력망 운영 사례

① 미국의 캘리포니아도서관 (Library of California)

도서관 협력을 위해서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구는 서비스 영역을 크게 9개로 구분하고 있다. 서비스 영역 중 목록의 공유, 원문 DB의 이용, 상호대차 등이 활발하게 수행되는 서비스로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상호대차, 참고봉사, 공동수서, 분담수서 등의 자원 공유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도서관간의 커뮤니케이션, 자료전달 및 다른 연결, 주 전체의 커뮤니케이션, 자료전달 및 다른 연결, 서지DB 구축, 인적자원 개발, 운영 및 관리, 자원보존, 이용자관계 및 홍보 등이 있다.

② 미국 뉴욕 주 도서관 (New York State Library)

뉴욕 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협력망은 캘리포니아 주와는 약간 다른 체제를 갖춘다. 뉴욕 주 도서관 산하의 도서관개발과에서 도서관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주도서관이 직접적으로 주 전체에 소재한 다양한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자원 공유와 서비스 향상을 추구한다. 서비스 및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의 중심도서관 지원, 자료보존, 건축지원, 상호대차, 지역서지 DB와 자원공유 교육 등이 있다.

③ 캐나다의 Shortgrass Library Systems⁴⁴⁾

캐나다 알버타주의 7개 도서관 시스템의 하나로 주 남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서비스 및 프로그램으로는 자료 대출, 종합목록, 상호대차, 참고봉사 등이 있으며, 특히 상호대차 서비스는 위 시스템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원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알버타주의 다른 도서관 시스템을 조사하여, 다음 단계로 다른 주에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 작은도서관 서비스의 유형

1) 정보 제공 서비스

작은도서관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정보에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정보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정보, 소비자 정보, 최신 화제와 서적, 일반 정보, 정부 관련정보, 지방 역사와 계보정보 등이 있다. 도서관은 각 정보의 서비스원이 되어 주어야 하며, 각 정보마다 제공을 요하는 정보원은 다음과 같다.

‘기본 정보’에서는 기록된 지식과 오락 목적의 읽기, 듣기, 보기 자료 이용을 위한 정보원과 지역과 가족 역사에 관한 연구를 위한 정보원, 문해와 학습 지원을 위한 정보원을 요

44) <http://www.shortgrass-lib.ab.ca/>

하며, '지역사회 정보'는 지역사회 조직 및 기관과 관련된 정확한 최신 정보원 제공을 요한다. 또 '소비자 정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확한 최신 정보의 제공을, '최신 화제와 서적'은 대중성을 가진 문화적, 사회적인 추세에 관한 지식과 여가를 위한 독서 및 다른 경험들에 관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자료, 프로그램,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원하며, '일반 정보'는 보다 넓은 범위의 주제에 관한 최신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정부관련 정보'는 모든 수준의 정부 관리 및 기구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과 일반인들이 민주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서와 프로그램에 관한 정확한 최신 정보 제공을, '지방 역사와 계보 정보'는 지역의 역사와 가계에 대한 정보와 관련한 요구에 적용할 수 있는 장서와 프로그램 제공을 필요로 하고 있다.

2) 공공장소 서비스

공공장소는 작은도서관의 지역사회 센터 기능을 의미하며, 이용자 편의를 위한 도서 자료 대출 및 반납의 장소로 이용도 가능하다. 이러한 공공장소는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문학적, 예술적, 문화적 문제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장소가 된다. 또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발견 행사의 장소로 이용도 가능하다.

3) 지역경제 지원 서비스

사업과 직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인들은 고용이나 훈련과 재교육의 기회, 직업 정보, 개인 금융과 관련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미국의 밀워키 공공도서관(Milwaukee Public Library, Wisconsin)⁴⁵⁾은 지역주민의 구직을 돕기 위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직업의 선택, 이력서의 작성, 면접 준비 등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수집·제공하며,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여 필요한 정보이용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이력서 작성에 관한 도서와 비디오, 테이프를 이용자용 컴퓨터와 프린터 옆에 놓아 두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신문을 비롯한 관련 정기간행물을 참고로 방대한 취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포괄적인 구인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 미국 세인트 루이스 공공도서관(St. Louis Public Library)⁴⁶⁾에서는 직원 교육용 시청각 자료 및 지방정부간행물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뉴욕 공공도서관의 과학산업 경영도서관 분관(New York Public Library, Science, Industry and Business Library)⁴⁷⁾에

45) <http://www.mpl.org>

46) <http://www.slpl.lib.mo.us>

47) <http://www.nypl.org-research>

서는 경영컨설팅과 유료정보서비스를, 웨스트 미들랜드 공공도서관 (West Midland Public Libraries)⁴⁸⁾은 정보기술의 제공과 지역도서관 협력을 제공하고 있다.

4) 문해(리터러시) 서비스

‘기초 문해’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꼭 수행하여야 할 필수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이는 도서관이 어린이들이 독서를 사랑하도록 격려하고 문해에 장애를 가진 성인이 문해 향상 프로그램에 참가 할 수 있는 장소임을 의미한다. ‘정보 문해’를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이 도서관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숙련된 인력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학습 지원 서비스

도서관은 공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연령의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료, 프로그램, 정확한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평생 학습을 위하여 독학, 비정규 교육을 통해 지적 성장을 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료, 프로그램, 정확한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성인기의 지역주민들에게 대출서비스와 참고봉사, 전시회, 강좌, 강연회,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등의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학습에 필요한 자료제공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독서를 통해 정서적 생활을 위한 학습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숙제 지원을 위해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학습 지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6)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

미국의 자녀 교육의 대부분을 학교, 캠프, 도서관의 아동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정규 학기 중에는 학교교육에, 방학 때는 마을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캠프에 참가하고, 그 외에 시간에 많은 부모들은 아동이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서관은 아동들에게 수동적인 대출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적극적 교육활동으로 이끌어간다. 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 학교교육을 받기 전의 아동이나 초등학생들에게 스토리텔링, 인형극, 방학특별 프로그램, 독서토론, 특집영화상영, 음악회, 전시회, 글짓기 교실, 캠프, 유희와 율동, 권장도서목록 제공 등이 있다.

영국의 북스타트 운동은 0~1세의 영국 영아들에게 책을 나눠주는 운동으로 갓난 아이 때부터 책읽는 습관을 길러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매년 65만 명의 신생아가 모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국가 교육 지침인 ‘내셔널 커리큘럼’도 읽기 교육을 강조해 아

48) <http://www.wmlibraries.org.uk>

이들이 책을 즐기고 평가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길러 상상력과 창조력, 비판적 인식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학교에 요구하고 있다. 또 영국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매일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며 학교는 물론 학급별로도 도서관을 갖추고 있다.

캐나다의 독서운동은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 활동을 지원한다. 거의 모든 도서관에서 또래 아이들을 모아 책을 읽는 ‘이야기 시간’을 운영하며, 혼자 책을 읽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통해 책을 읽어주는 ‘이야기 전화’도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도서관 서비스는 21세기 스쿨 업그레이드 운동으로 ‘생각하는 학교, 공부하는 국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및 확충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를 위해 부모 정보자원 센터를 설치하여 어린이 교육, 청소년과의 대화, 부모를 위한 참고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7) 자동차문고(Bookmobile) 서비스

도서관이 스스로 자동차에 책을 싣고 주민 속에 파고 들어가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봉사 활동이 바로 자동차문고 서비스이다. ALA(미국도서관협회)에서는 자동차문고를 중요한 봉사 수단으로 생각하고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JLA(일본도서관협회)에서는 인구밀도가 낮아서 분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신체장애, 고령 등으로 도서관을 찾아 올 수 없는 지역(주거단지), 도서관을 완성하기 전에 도서관봉사 활동(선전)을 위하여, 시간적 심리적으로 도서관과 거리가 떨어진 지역에 대한 봉사를 위하여 자동차 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미봉사 지역에 대한 도서관 봉사 제공, 항구적으로 도서관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도서관 봉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분관의 적합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자동차문고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동차문고는 도서관 시설이 없는 곳, 저개발지역 주택가, 새로운 아파트단지, 학교 도서관이 없는 학교, 수용시설 등에 읽을거리인 유익한 책을 제공해주며 또한 문화혜택을 고르게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데 있어 효율적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8) 기타 서비스 사례

성인을 위한 서비스 중에서 ‘독자 서비스’는 소설, 정기간행물, 그리고 인문 및 사회 과학을 위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영과 기술’서비스는 경영 및 기술 관련 조회 서비스와 자료 제공 이외에, 요리에 관한 정보와 지원, 차와 작은 엔진 수리, 직업 검색과 기업 정보, 건강과 약물 정보, 식물 식별과 원예, 정부 정보와 법률 참고를 제공하고 있다. 또 ‘예술, 음악, 시청각’ 서비스는 예술, 건축, 기술, 음악, 극장, 춤, 영화, 사진, 골동품 관련 주제와 관련한 인쇄 및 시청각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주회, 예술행사, 전시회를 조직하기도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로는 어린이와 어린이를 동반하는 성인을 위하여 설계된

장서와 프로그램 제공 등이 있다.

이민자들을 위한 서비스로는 각 국가마다 이민자들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지원이나 그 나라 문화에 대한 학습, 컴퓨터 교육 활동, 구직의 지원, 공공기관의 문자이해지원 등의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다. 도서관에서 서비스를 하는 새로운 방법 중에 이민자를 사회에 통합하는데 있어서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인디애나주의 Allen county의 공공도서관(ACPL)과 분관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82> 성인과 어린이 · 청소년 서비스

성인서비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 성인을 위한 여름 독서 프로그램 - 온라인 도서 클럽 - 독서 토론 클럽 - 고전 도서 클럽 - 예술가와 예술 애호가를 위한 포럼 - 홈 스쿨링을 위한 지원 - 컴퓨터 교실 - 작가 포럼 -휴대용 공예작품을 만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예 서클 - 비영리 자원 센터 오리엔테이션 - 지역 역사 전시	-부모와 어린이 컴퓨터 교실 -청소년을 위한 동화 읽기 -온라인 어린이 도서 상 토론 클럽 -10대를 위한 온라인 도서 클럽 -10대를 위한 영화 프로그램 -10대를 위한 만화/만화영화

4. 작은도서관 활성화 프로젝트 및 유인책 사례

가. 도서관 · 사서 교류 커뮤니티

□ WebJunction⁴⁹⁾

도서관 직원들 간의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인 WebJunction은 도서관 직원들 간의 아이디어 공유, 문제 해결, 온라인 학습과제를 위해 모이는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서들의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로 게이트재단에게서 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작은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 마을도서관, 농촌도서관, 지역도서관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도서관들이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및 지침서를 제시하며 이들 도서관 직원들 간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최근 WebJunction이 게이트재단으로부터 스페인어 아웃리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금을 지원받았는데, 스페인어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공공도서관 직원들이 지역사회의 스페인

49) <http://webjunction.org/do/Home>

어 사용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을 제공한다.

○ WebJunction의 커뮤니티 내용

WebJunction의 정책 및 지침을 살펴보면, 테크놀로지 계획, 수용 가능한 이용 정책, 접근성, 마케팅 전략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 줌으로써 도서관들이 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또한 도서관의 모든 측면에 대한 최선의 정책과 지침 제시, 기술 계획, 공간 계획, PAC, 마케팅, 장서개발, 재난 계획에 대한 도움을 제공 한다

기술 자원의 측면에서는 접근성,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인터넷, 보안, 기본적인 컴퓨터 지원, 네트워킹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며, PAC 프로그램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 방법, 정보등을 제공한다.

구매 및 자금 조달을 위해서 기술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과 도서관의 자금 확보를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며,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평가 웹 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적인 구매를 위한 조언, 자금 확보 방법에 대한 지침과 자료를 제공하며, 기부지침도 만들었다.

도서관 서비스로는 특수한 유형의 도서관들을 위한 자료 제공, 특히 도서관이 이민자,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 어린이처럼 특정인을 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후원하였다. 교육센터에서는 도서관 직원의 훈련과 계속 교육을 위한 자료 제공과 도서관 직원들의 온라인 학습 기회 제공,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동향 등 제공, 교육생들을 위한 조언과 방법을 제공한다.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도서관과 관련된 현안 문제 등을 개제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도서관인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나. 우수 작은도서관 유인 사례

1) 최우수 작은도서관 서비스상(Excellence in Small and/or Rural Public Library Service)⁵⁰⁾

1991년에 제정하여, EBSCO Information Services의 후원으로 미국도서관협회 산하 공공도서관협회에서 선정해서 시상한 바 있다. 인구 10,000명 이하를 서비스하는 공공도서관 중 전반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특수한 프로그램에서 눈에 띄는 업적을 가져 모범이 되며 지역사회에 우수한 서비스를 하는 도서관을 선정, 시상하는 것으로, 상패와 \$1,000의 사례금이 수여되었다.

최우수 작은도서관 서비스상의 수상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 프로그램의 독창성

50) <http://www.ala.org/ala/pla/plaawards/excellencesmall.htm>

-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도서관이나 그 지역사회의 미래의 영향 정도

2) 베스트 작은도서관상 (Best Small Library)⁵¹⁾

2004년부터 미국의 Library Journal과 게이츠재단이 공동주최자가 되어 매해 수여하고 있다. 이 상은 모범적인 업무를 하는 작은도서관을 찾아내서 그 도서관을 격려하고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졌다. 인구 25,000명 이하의 지역에서 눈에 띄게 두드러진 서비스를 하는 도서관을 시상하고 있다.

선정방법은 Library Journal 편집위원회 위원, 지역의 사서, 게이츠재단의 대표자가 선정위원이 되서 7개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수상 기관은 현금 \$10,000를 받게 되며, 수상 도서관 대표 2명이 공공도서관협회 연례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일체의 비용을 받게 된다

베스트 작은도서관상 수상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나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타 도서관이 본받을 수 있는 독창성
- 새로 도입된 기술에 대한 소개와 PAC 지원, 이용에 대한 이용자 교육, 기술 이용의 효과 측정 정도
- 도서관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기술 이용의 효과 측정
- 타 도서관과의 협력, 다른 기관이나 기업과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켰는가의 정도
-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증가 정도, 특히 새로운 이용자들의 증가
- 지역사회 센터로써 도서관이 비중있는 역할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증거물

5. 시사점

가. 문고와 공공도서관의 구분 부재

외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문고와 같은 시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처럼 문고를 도서관과 분리하여 명명하는 대신, 이를 모두 공공도서관시스템 안에서 해결하고 있다. 미국이나 덴마크의 경우 우리나라의 문고와 같은 규모의 도서관서비스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도서관과 별도의 명칭으로 부르기보다는 공공도서관으로 명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문고규모 시설에서 전담직원 없이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고와 같은 별도의 용어로 부르기보다는 '000

51) <http://www.libraryjournal.com/article/CA606273.html>

public library'로 명명하고 있다. 이는 문고가 우리나라에서 도서관서비스가 제공되는 독특한 유형의 하나이며 문고와 도서관의 구분 또한 우리나라에 독특한 구별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나. 도서관서비스에 있어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

우리나라 문고의 경우 전체의 70-80%가 민간영역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것에 비해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 문고와 같은 규모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공립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이는 도서관서비스가 정부의 역할이라는 인식에 기초해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도서관서비스에 민간영역의 비중이 이렇게 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덴마크나 미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도서관서비스 초기에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도서관서비스를 하는 시설들이 설립, 운영되기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시설들은 공공 서비스의 영역에 포함되면서 대부분 (중앙 혹은 지방) 정부의 역할로 이전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덴마크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초기에 작은 규모의 도서관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들이 시도되었으나 재정이나 인력 등 제반 여건상 지원이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중, 대규모 도서관으로 편입되고 그 외의 지역은 시설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가 아니라 이동도서관과 같은 형태의 도서관서비스에 의해 흡수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도서관서비스에 있어서의 정부 역할의 중요성과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의 방향이 작은도서관 자체에만 두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 다양한 규모와 프로그램의 작은도서관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작은도서관과 유사한 시설, 조직, 인력을 나타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작은도서관이 앞으로 어떠한 발전 방향을 가져야 할 것 인지를 시사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보여준다.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 규모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다. 외국의 경우 작은도서관의 규모나 이러한 시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다.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그 외형적 구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작은도서관과 유사한 사례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명의 전담직원과 다수의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된다든지, 수천권의 장서로 서비스 하고 있다든지, 재정의 어려움으로 운영에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내용은 우리나라의 작은도서관이 보여주는 현실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것이 그것이 공공도서관인 한에서는 전담인력이나 장서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별다른 문제를 겪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른 도서관과의 상호대차시스템이나 지역대

표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중앙관으로부터의 지원이 기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련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작은도서관이 인력이나 장서, 재정 등에 있어 매우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는 하지만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체계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공고히 구축되어 있는가에 따라 작은도서관이 기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연계체계를 통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이 안정화되면 주민친화적 성격에 기반하여 공공도서관보다 더 다양한 주민수요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절 총괄 시사점

1. 종합 시사점

가. 공공영역의 역할 확대 필요성

외국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도서관서비스는 주로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영역의 역할로 규정되고 있으며 실제로 도서관서비스는 공공영역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이는 도서관서비스가 공공영역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 정책적으로 널리 공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민간영역에서 다양한 문고운동이 일어나고 근래 들어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여러 작은도서관 운동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역으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서비스가 공공서비스의 하나로 분명하고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공공영역에서 담당하여야 할 서비스를 민간영역에서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다. 공공서비스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 민간영역에서 공공영역의 역할을 일부 대신해주는 것은 우리사회의 큰 장점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은 '보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지 '대체'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정부영역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취약한 작은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환경

국내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공도서관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은 현재 매우 취약하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전반적으로 열악한 시설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 자료, 인력, 예산 등

제반 영역에 있어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기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공공도서관 또한 자체 도서관을 운영하기에도 급급한 인력 및 예산 현황을 보여준다. 이런 상태에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은 실효적인 의미를 띠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 다양한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연계 운영 모델의 필요성

작은도서관의 경우 그 유형의 다양성 및 활동수준의 격차는 공공도서관과의 일관적인 연계체계 모델을 구상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으로 작용한다. 공립과 사립 등 운영주체의 문제에서부터, 주민자치센터내, 아파트내, 교회내, 복지관내 등 그 시설이 소속된 모기관 유형의 다양함, 일부 영리성을 띠고 있는 시설에서부터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새마을문고중앙회에 소속되어 모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유형에서부터 전적으로 사재를 투자하여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작은도서관 유형의 다양성은 다양한 유형의 공공-작은도서관 연계 운영 모델이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공공도서관 분관화의 경우, 기존의 대다수 문고가 사립문고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 안으로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그것이 공립문고라고 할지라도 기존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는 형태로서의 분관과는 그 시설 및 규모면에서 동일하게 자리매김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도서관의 공공도서관 분관화는 기존 시스템에서의 본관-분관체계와는 다른 유형의 모델을 필요로 한다.

라. 민간영역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작은도서관 활성화 성패의 관건

국내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활동은 민간영역과의 적극적인 결합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부천시의 사례는 공공도서관과 기존에 민간영역에서 도서관활동 혹은 도서관서비스에 관심을 가졌던 단체와의 효과적인 결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역의 도서관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공공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직접 인력을 투입하여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수 없는 한, 실제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민간영역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민간 단체 및 기관, 개인과 협력하는 것은 작은도서관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협력하는 것은 다양한 유형의 사립 문고가 아니라 대부분 공립문고라는 점이다. 국내 사례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가

대부분 공립문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천시의 경우, 상호 지원관계에 있는 문고는 모두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순천시의 경우도 시립도서관과 민간에 운영위탁된 24개 공립문고간의 협력체계이며, 창원시의 경우도 시립도서관과 7개 공립문고, 25개 사회교육센터간의 연계운영체계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 연계운영체계는 거의 대부분 공공도서관과 공립문고간 연계운영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립 기관간 연계운영 방식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출발하게 된 배경과는 사뭇 맥락이 다르다. 물론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민간영역의 문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고의 대부분이 사립문고인 점을 감안하면, 민간영역의 문고활동과의 직접적인 연계체계 구축에 대한 모델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연계운영을 구상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영역의 작은도서관 활동을 공공도서관의 지원체계에 직, 간접적으로 연계시키는 모델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연계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기준 설정 필요성

작은도서관의 규모와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를 일괄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규모와 유형, 활동의 성격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공공도서관과의 다양한 연계방식을 구상하고 각각의 연계 방식에 따른 일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관시스템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되며 어떠한 내용으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때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에 편입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의 일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규모가 크고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자율적 운영을 중요시하며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에 편입되기를 원하지 않는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지원방식도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분관시스템 편입을 위한 일정한 기준 마련과 함께 시스템에 편입되지 않는 작은도서관을 위한 지원방안이 동시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분관화 관련 시사점

가. 분관 조직

작은도서관의 공공도서관 분관화 방안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이 때의 ‘분관’이 기존

의 분관과는 규모나 기능면에서 큰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전국에 공공도서관은 471개관이 있으며 이 가운데 74개관(15.7%)이 분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용남, 2006: 354). 현재의 분관은 앞에서 살펴본 바, ‘종합 서비스 분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곧, 일정 부분에 대하여 본관의 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제외하곤 규모와 장서, 인력 면에서 본관과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도서관으로서 본관과 유사한 종합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표 83> 공공도서관 본관 및 분관 조직규모 사례

구분	운영주체/ 관장직급	인력 (현원/정원)	2005운영 예산(천원)	인력	장서수	시설규모 (열람석/㎡)
경 기	도립중앙 교육청 (지방부이사관)	34/35	2,165,570	행정4,사서15,기타15	396,601	540/2,216
	평택분관 “(지방사서주사)	11/11	824,730	행정1,사서5,기타5	116,798	500/2,940
	김포분관 “(지방사서주사)	9/9	604,651	행정1,사서4,기타4	91,068	270/560
	포천분관 “(지방사서주사)	6/7	831,943	행정1,사서3,기타2	96,974	341/1,662
	광주분관 “(지방사서주사)	8/8	499,860	행정1,사서4,기타3	102,689	271/690
	여주분관 “(지방사서주사)	3/4	185,499	행정0,사서2,기타1	62,772	104/324
충 남	서산시립 시청 (지방행정사무관)	13/17	2,780,004	행정4,사서4,기타5	139,065	491/10,357
	대산분관 시청 (지방사서주사)	4/0	0	행정2,사서1,기타1	56,070	142/5,865
전 북	김제시립 시청 (지방행정사무관)	21/22	694,659	행정5,사서4,기타12	88,304	700/3,412
	김제시립 만경분관 시청 (지방행정주사)	7/7	251,818	행정1,사서1,기타5	27,696	110/890
	김제시립 금구분관 시청 (지방행정주사)	8/9	274,525	행정2,사서1,기타5	17,565	210/2,413
경 북	경주시립 시군청 (지방행정사무관)	12/13	1,211,082	행정3,사서5,기타4	122,423	500/8,376
	경주중앙 분관 시군청 (지방행정사무관)	3/3	40,000	행정0,사서2,기타1	21,426	200/2,013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에 포함시킨다고 할 때, 포함되는 작은도서관은 규모나 역량 측면에서 기존의 분관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 시스템에 포함시킨다고 할 때는 기존의 분관과 역할과 기능상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에 포함되는 작은도서관은 기존의 분관(Branch)가 아니라 소분관(Sub-branch)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것이 분관이든 소분관이든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동일한 구성요소로 포함된다.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에 포함되는 것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은 소분관 이외에도 자료대출분관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대다수 작은도서관의 실정상 소분관으로서의 역할, 곧 본관이나 분관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역할이나 기능면에서는 이와 유사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 안에 포함시키면서 작은도서관이 종합서비스 기능보다는 자료대출분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가운데 2/3가량이 도서관 기능을 중심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공부방이나 지역커뮤니티 센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도서관의 소분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자료대출분관으로서의 기능은 공부방이나 커뮤니티 센터로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였던 작은도서관의 기존 역할 및 기능을 보존하면서 도서관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소분관이나 자료대출분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기존 도서관시스템에서의 대다수 분관이 지자체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것과는 달리 민간에 의해 설립된 작은도서관도 이 체계 안에 포함할 수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는 ① 지자체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민간에 위탁 운영되는 경우 ② 민간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소유권을 공립화하여 기존 민간 운영진에 재위탁하는 경우 ③ 민간에 의해 설립된 작은도서관에 자료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이 있다.

위의 세 가지 유형은 모두 관장이나 직원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에 의해 운영되며, 특히 ①과 ②의 경우는 인력 및 예산 등의 운영에 있어서 지역의 공공도서관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직영되는 기존 분관시스템과 달리,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 안에 포함되면서 생겨나는 새로운 분관시스템은 이처럼 공립문고를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경우(①)나 민간문고가 공립화되어 재위탁되는 경우(②), 그리고 자료구입비 등의 지원을 통하여 민간 문고라고 할지라도 공공적 성격을 갖고 운영되게 하는 경우(③)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소분관이나 자료대출분관으로 편입되는 작은도서관은 설립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든 민간이든 관계없으며, 지역의 형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나. 시설 기준 및 업무 내용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으로 편입시킬 경우, 편입되는 작은도서관이 소분관 혹은 자료대출분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분관으로서의 일정한 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

다양한 유형과, 규모,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일시에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에 포함되는 작은도서관은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식적인 지역도서관서비스 체제의 일부라는 점에서 일정한 기준의 제시가 불가피하다. 이런 점에서 기준에 도서관서비스와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기준들은 작은도서관의 분관화에 유용한 준거를 제공해 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2006년 작은도서관조성사업 지원신청' 안내에는 작은도서관을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50평 내외의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시설 규모가 50평 내외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2004년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25개 작은도서관중 21개 도서관의 면적을 조사한 결과 조성된 전체 작은도서관의 평균 면적은 45.15평으로 나타난 바 있다.

<표 84>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작은도서관의 면적

번호	면적(평)	번호	면적(평)	번호	면적(평)
1	57.5	8	38.0	15	50.0
2	59.8	9	51.0	16	40.0
3	31.8	10	32.0	17	45.0
4	50.0	11	40.0	18	70.0
5	35.0	12	42.0	19	50.0
6	50.0	13	30.0	20	59.0
7	29.0	14	36.0	21	52.0

작은도서관의 시설 규모에 대해서는 외국의 공공도서관서비스 관련 최소 기준 또한 도움이 된다. IFLA/UNESCO 가이드라인은 저개발국의 공공도서관 운영현실을 고려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공공도서관서비스를 위한 도서관의 최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85> 공공도서관서비스개발을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

구 분	최 저 기 준	비 고
자 료	-최소봉사거점을 위한 최저 장서수준 2,500권 -인구1인당 1.5~2.5권	
시 설	-개별도서관 최저크기 370㎡(112평)이상 -인구 5,000명당 컴퓨터 1대	
직 원	-인구 2,500명당 1명의 상근직원 -직원의 1/3은 사서	cf.전체예산 0.5%~1% 는 훈련비

위 기준에 따르면 IFLA/UNESCO는 공공도서관서비스를 위한 최소조건으로 면적 370m² (112평), 장서 2,500권, 상근직원 1명을 제시한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공공도서관 기준은 근무 시간과 자료구입비 규모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보여준다.⁵²⁾ 이러한 조건은 국내 작은도서관의 운영규모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유용한 준거자료로 평가된다.

<표 86> 미국 위스콘신주 공공도서관기준(Wisconsin Public Library Standards)

구 분	최 소 기 준	비 고
직원	- 상근직원 1명 - 관장(주당25시간 유급근무)	cf.1년에 최소 20시간이상 관장의 계속교육지원
자료	- 장서 8,000권 이상 - 구독정기간행물 30종 이상 - 연간자료구입비 10,000달러	
시설	(면적기준 없음) *주당 최소 25시간 개방	
예산	(2005년 기준 최소액) 연60,000달러(6,000만원)이상 -관장봉급 18,100달러(월150만원수준) -직원임금 7,600달러(주당15시간이상) -사회복리 8,300달러(봉급의 32%) -자료구입 10,000달러(인쇄, 전자자료 포함) -기타비용 16,000달러(사무, 기술, 교육비 등)	참고> 2005년 60,000달러는 매년 2.5%씩 인상하여 2010년에 는 67,900달러 예상

* 지역규모에 관계없이 권장되는 공공도서관의 최소 기준

이러한 기준에 근거해 볼 때,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 안에 포함되는 작은도서관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을 가지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⁵³⁾ 곧, 상근인력 1인을 포함한 최소한의 인력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장서와 시설규모(면적 등)에 대한 기준 또한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분관으로서의 작은도서관 유형을 소분관이나 자료대출 분관으로 구상한다면, 공공도서관 분관시스템 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각각의 유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사례는 분관의 유형이 봉사인구와 서비스 환경, 연간 대출권수를 중심으로 Major branch, Neighborhood branch, Station, 서비스 형식을 중심으로 지역분관(Regional branch), 지역사회분관(Community branch), 소분관(Sub-branch)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 안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분관의 규모와 유형, 그리고 업무를 역량과 규모에 맞게 배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 안에 포함되는 대상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은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52) <http://dpi.wi.gov/pld/standard.html>

53) 여기에서 제시되는 기준은 분관시스템 안에 포함되는 작은도서관이 현재 이러한 규모를 확보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이와 같은 규모를 가져야만 보다 원활하고 안정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내용이다.

기존 본관-분관시스템에서의 분관이나 외국에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분관(major branch)을 사례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경우 소분관(sub-branch 혹은 neighborhood branch)이나 자료대출 분관(book-distributing branch 혹은 station)을 실현가능한 분관시스템 유형으로 고려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공공도서관의 소분관이나 자료대출 분관화할 경우, 각각의 유형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본관-분관시스템에서 분관은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① 인사권만 제외하고 정책 및 주요 의사결정, 예산·회계시스템 운영, 가구와 비품구입 등 제반 관리운영 업무와 자료 선정 및 구입, 분류와 편목 등 자료관리 업무, 기타 열람봉사 등의 업무는 본관과 유사하게 수행하고 있는 경우나 ② 인사, 예산권 등을 본관이 담당하고 자료봉사기능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경우 ③ 시설 및 조직의 관리운영, 자료관리 등 대부분의 권한을 본관에서 가지고 있고 자료의 대출·반납 등 열람봉사에 국한된 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러한 현황을 기준으로 분관화된 작은도서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역할을 구상하면 주로 위의 ②와 ③ 유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곧, 소분관화된 작은도서관에서는 자료 선정, 열람/대출, 교육/문화 프로그램, 참고/정보업무 등 공중 봉사 중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자료대출분관은 제한된 수준에서 공중봉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앙관 자료의 대출, 반납 기능을 중심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 운영 방식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국내 사례, 외국 사례 등은 국내나 국외 모두 작은도서관의 유형과 규모가 매우 다양하며 그 운영 방식 또한 지역이나 기관의 여건에 맞게 융통성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것은 향후 공공도서관 분관시스템에 포함될 작은도서관의 운영 또한 각 시설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탄력적 운영 방식은 인력 운용이나 개관시간 조정, 서비스 프로그램의 내용 등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켄싱턴 도서관의 분관들은 기관마다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서로 달리하며 운영되고 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개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후에만 개관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 6일 개관하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주 5일만 서비스하는 시설도 있다.

<표 87> 켄싱턴 도서관 분관 운영시간

구분	Kensington Central	Chelsia, Brompto, North Kensington	Noting Hill Gate	Kensal
이용시간	9:30am-8:00pm	10:00am-8:00pm	1:00pm-8:00pm	1:00pm-8:00pm
휴관일	일요일	일요일	수요일, 일요일	수요일, 일요일

* 출처: 김혜숙,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분관 활성화에 대한 연구”(2002), 45쪽.

이처럼 여건에 맞게 개관일과 개관시간을 조정하여 지역의 서비스 수요와 시설의 인력 배치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상근직원의 주 5-6일 전일근무가 어려울 경우, 주 2일 혹은 주 3일의 시간제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중앙관에서 사서자격을 가진 전문 인력의 순회지원을 통하여 전문인력 부재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다.

분관의 서비스 또한 공공도서관과 달리 지역적 수요가 높거나 지역적으로 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실태조사와 국내 사례는 작은도서관 운영이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삶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을 때에만이 활성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지역 주민과의 유기적 연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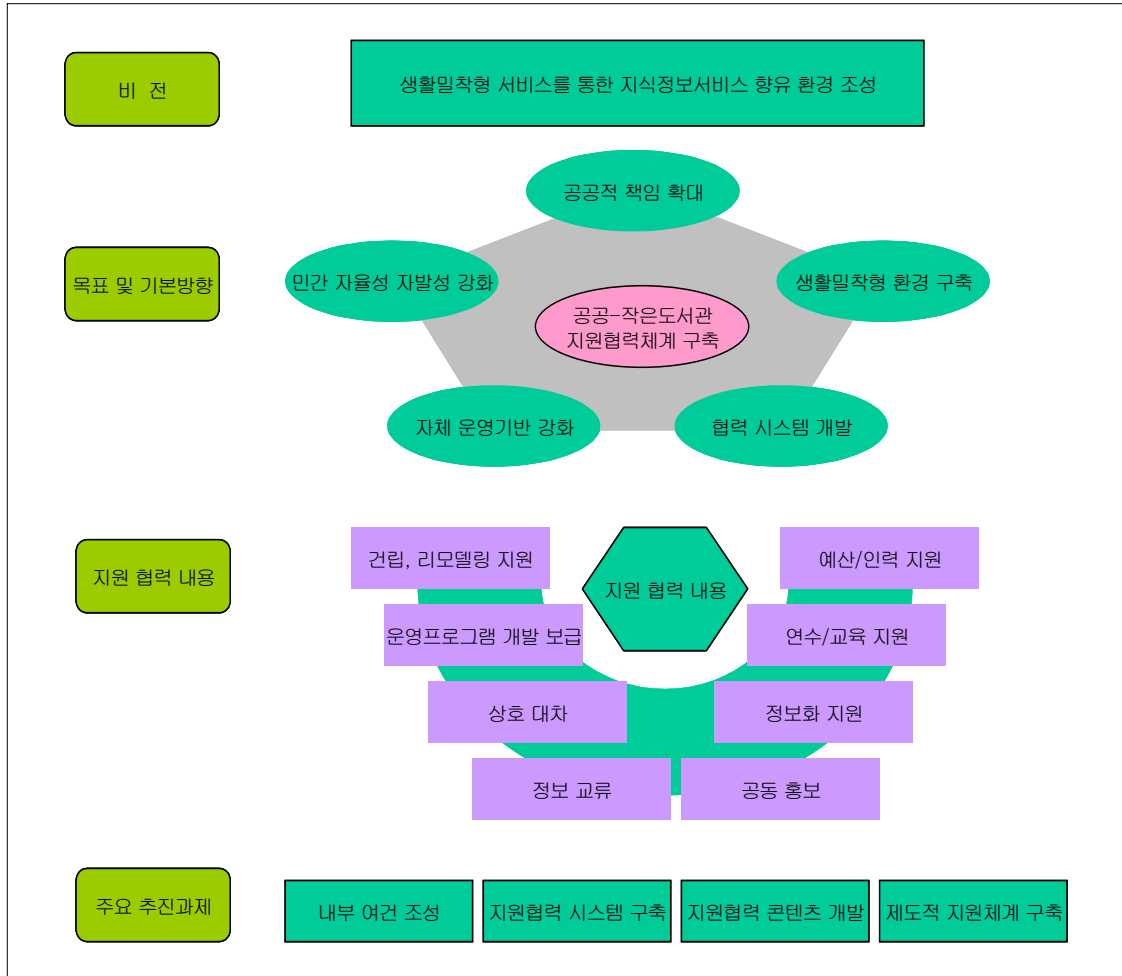
제1절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1. 기본 방향

<표 88> 비전 및 목표

구 분	내 용
비 전	생활밀착형 도서관서비스를 통한 지식정보서비스향유 환경 조성
목 표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지원 협력 체계 구축
기본 방향	도서관 서비스의 공공적 책임 확대 생활밀착형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협력을 통한 자체 운영 기반 강화 민간의 자율성과 자발성 강화 유형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협력 시스템 개발
지원 협력 내용	건립 및 리모델링 자문, 지원 예산, 인력 지원(도서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연수, 교육 지원(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자료정리 교육 등) 정보화 지원(자원공유시스템 구축) 운영프로그램 개발 보급 공공도서관과 상호 대차 등 협력 정보 교류(운영사례 및 가이드라인, 각종 운영 정보 제공 등) 공동 홍보
주요 추진 과제	내부 여건 조성 지원협력 시스템 구축 지원협력 콘텐츠 개발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그림 9>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 기본 방향



2. 추진 전략

가. 종합적 접근

- 공립과 사립을 포함한 다양한 문고 규모의 시설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모두를 포괄하는 지역지식정보서비스 체계 구상
- 작은도서관의 규모와 여건이 다양한 점을 감안, 소분관이나 자료대출분관 유형의 연계체계를 맺을 수 있는 시설과 지역협의체를 통한 연계체계 구축이 가능한 시설, 기타 상시적 지원체계 속에서 연계가 가능한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계운영 체계 제시

나. 단계적 접근

- 현실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여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 체계 구축
 - * 연계체계 구축단계(안)
 - 1단계: 리모델링 및 운영지원을 통한 1차 분관화 시스템 구축
 - 2단계: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위한 문고규모 시설간 상호협의체 구성 지원
 - 3단계: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 상시지원체계 구축
- 민간영역 작은도서관의 경우, 그 여건과 유형에 따라 공공도서관서비스시스템 안으로 편입되기 원치 않는 경우나, 원한다고 할지라도 규모나 특성상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편입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 연계체계 구축 계획 수립
- 일정한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서 공공도서관서비스 시스템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민간 작은도서관은 '지역도서관협의체'(가칭)에 편입 혹은 자료대출분관 기능 수행 → 소분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등으로 단계적 발전을 거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다. 확장적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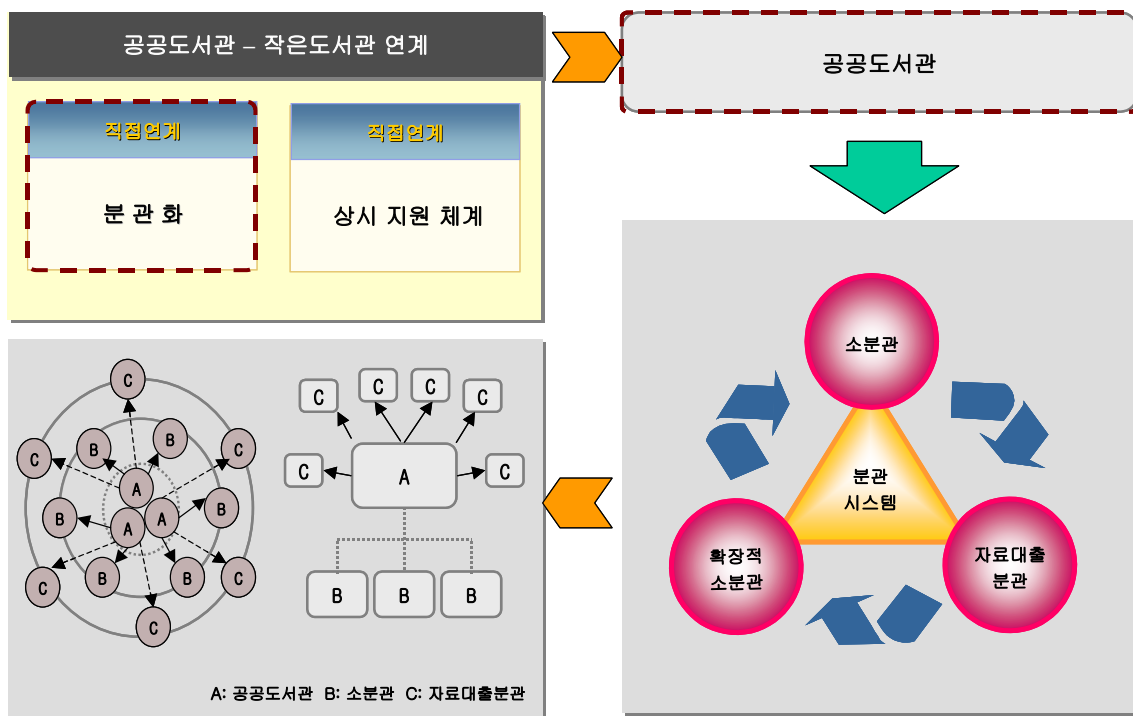
- 현 단계에서는 주어진 예산 규모내에서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연계운영체계를 구축 하여야 하는 만큼 일시에 이러한 방식의 적용을 추진하기보다 모델사례를 개발하여 이를 확산시키는 전략 활용
-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나 구립도서관의 경우 내부 여건이나 현실적 규모로 단기간에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 서비스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기 어려운 만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연계운영을 시범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계운영체계를 확대 구축하는 방안 모색
- 현실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기관 및 시설들을 무리하게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연계운영체계에 합류시키기보다 가능한 시설 및 기관부터 시작하여 추후 그 범위를 확장
- 현재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연계운영시스템에 편입되기 용이한 작은도서관은 공립문고로써 이러한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체계를 우선적으로 모색
- 민간 작은도서관들은 지역도서관협의체를 구성, 운영케 하고 이 기구와 연계체계를 맺는 방식이나 상시지원체계 속에서 연계를 맺는 방식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추후 공

공공도서관과의 직접적인 연계방식으로 확대

제2절 분관시스템 기본 구상

1. 기본 체계

<그림 10> 분관시스템 기본 구상도



○ 지역의 종합적 지식정보서비스 체계 내 분관시스템 의미

- 분관화는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연계시키는 방식 가운데 직접 연계의 방식
- 작은도서관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상시지원체계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간접 연계방식

○ 분관시스템에 포함되는 작은도서관 유형

-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 안에 포함되는 작은도서관 유형은 ① 소분관 ② 자료대출 분관으로 구분하고, 작은도서관들이 모여 구성하는 '지역도서관협의체'(가칭)를 통하여 공공도서관과 연계되는 것은 ③ 확장적 소분관으로 유형 규정

○ 작은도서관 - 공공도서관 연계 방식

- ① 지역내 특정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을 소분관, 자료대출 분관 형식으로 단독 연계하는 방식과 ② 지역내 작은도서관과의 연계를 여러 공공도서관이 공동으로 대응하여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⁵⁴⁾

가. 분관 유형

1) 소분관(Sub-branch)⁵⁵⁾

- ☐ 개념: “공공도서관의 직접 지도·감독 아래 운영되는 공립의 소규모 분관 시설로 공중봉사 중심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기능
 - 주민밀착형 공공도서관 지역사회서비스 시설로서 지역주민의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 매개 통로로 기능
 -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핵심 기능으로 하면서 지역의 생활기반 지식정보수요 충족 담당
 - 생활친화 시설로써 지역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 동시 수행
- ☐ 주요 업무
 - 관리운영: 지역사회 활동 참여
 - 간접봉사: 자료선택
 - 공중봉사: 자료열람·대출, 교육·문화프로그램, 이동도서관 대출문고 운영·관리
- ☐ 운영
 - 공공도서관과의 직접적인 연계관계 속에 운영되는 시설로써 일정 기준 갖춘 공립문고 중심으로 운영(특징: 중장기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직제에 반영)
 - 사립문고의 경우 리모델링 지원 등을 통하여 공립화 추진 후 소분관으로 운영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자료 등은 전액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공공도서관을 통해 지원
 - 인사, 예산, 자료구입 등은 중앙관인 공공도서관에 의해 관리

54) 경기도와 같이 기존에 독립적인 공공도서관이었다가 조직개편으로 본관-분관시스템으로 전환된 경우 작은도서관은 분관 아래 위치할 수도 있고 분관 아래 위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인사권은 본관에서 행사하고 실질적인 운영 지원은 분관에서 주도할 수도 있음.

55) 소분관은 기존 분관시스템 속에서의 분관과 구분하기 위한 개념으로 작은도서관은 현실적인 여건상 종합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의 분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분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확장적 소분관(Extensive sub-branch)

- ☐ 개념: “공공도서관과의 지원·협력아래 일정한 자율성을 유지하며 공중봉사 중심의 공공도서관의 소분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 ☐ 기능
 - 자율성에 기반하여 독립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되 공공도서관과의 협력관계에 따라 운영주체(공립/사립)에 관계없이 공공도서관의 소분관과 유사한 ‘기능’ 수행
 - 공공도서관의 직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서비스 확장 제공에 기여
 - 지역사회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다양한 기능과 함께 도서관서비스 제공
- ☐ 주요 업무
 - 관리운영: 해당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 인력 운영, 예산 및 회계, 지역사회활동 참여, 가구와 비품 구입 등 자율적 운영
 - 간접봉사: 자료선택
 - 공중봉사: 자료열람·대출, 교육·문화프로그램, 이동도서관 대출문고 운영
- ☐ 운영
 -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의 지역내 협의체를 통하여 공공도서관과의 지원·협력관계 구축(특징: 공공도서관의 직제에 반영되지 않음)
 - 시설 운영과 관련된 예산, 자료, 프로그램 등에 대해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일부 지원
 - 공공도서관 시스템 내에 직접 포함되는 소분관과 달리 공공도서관의 정책방향 및 도서관서비스 업무를 지원하지만, ‘상대적 자율성’에 기반하여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기초, 자율적으로 운영

3) 자료대출 분관(Book-distributing branch)

- ☐ 개념: “공공도서관의 지원 아래 공공도서관 자료의 대출·반납 업무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 ☐ 기능
 -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 서비스포인트로써 공공도서관 자료의 대출·반납 업무 수행
- ☐ 주요 업무
 - 관리운영: 지역사회 활동 참여
 - 공중봉사: 자료열람·대출, 이동도서관 대출문고 운영

□ 운영

- 공립문고와 사립문고의 구분에 관계없이 공공도서관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자료 대출·반납업무 수행
- 공공도서관 자료의 대출·반납에 소요되는 예산의 공공도서관으로부터의 지원

나. 연계 대상 및 방식

1) 연계 대상

<표 89> 분관연계 대상

구 분		유 형	대 상	연계 수준
분관화	소분관(Ⅰ)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작은도서관	공립문고	직접 연계
	확장적 소분관(Ⅱ)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자율적 운영을 원하는 작은도서관	공립문고(공립화된 사립문고 포함), 사립문고	직접 연계
	자료대출 분관(Ⅲ)		공립문고, 사립문고	직·간접 연계
상시지원체계(Ⅳ)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자율적 운영을 원하는 작은도서관	공립문고, 사립문고	간접 연계

2) 연계 방식

<표 90> 분관연계 방식

구 분		연계 방식	운영 형태
분관화	소분관(Ⅰ)	- 인력/예산/자료 등에 대한 직접 지원 - 전부 지원, 높은 수준의 연계	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 - 일정기준 충족 필요
	확장적 소분관(Ⅱ)	-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선에서 지식정보서비스 지역협력체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지원 - 일부 지원, 중간 수준의 연계	일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단체들과 공공도서관의 협의 운영
	자료대출 분관(Ⅲ)		개별단체의 자율적 운영
상시지원체계(Ⅳ)		-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 수준의 지원 - 제한 지원, 낮은 수준의 연계	개별단체의 자율적 운영

3) 지원 내용

<표 91> 분관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분관화	소분관(Ⅰ)	건립 지원, 리모델링 지원, 예산 전액 지원, 인력 지원, 교육 지원, 정보화 지원
	확장적 소분관(Ⅱ)	리모델링 지원, 예산 일부 지원, 정보화 지원, 교육 지원, 운영 컨설팅
	자료대출 분관(Ⅲ)	(리모델링 지원), 예산 제한 지원, 정보화 지원, 교육 지원, 운영 컨설팅
상시지원체계(Ⅳ)		교육 지원, 운영 컨설팅

2. 기능 구분 및 추진 방식

가. 중앙관-분관 기능

- 중앙관은 정책 및 주요의사 결정, 인사 및 고용, 예산 및 회계 등을 총괄하며 자료의 주문·구입이나 분류·편목 등을 수행하고 이외 도서관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기능 수행
- 공공도서관의 직접 관리 감독아래 포함되는 소분관은 중앙관으로부터 예산, 인력, 자료 등에 대한 전적인 지원과 관리를 받으며, 확장적 소분관이나 자료대출분관은 기능과 역할에 따라 중앙관으로부터 일부 혹은 제한적 지원
- 소분관이나 확장적 소분관, 자료대출분관 등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 안에 포함되는 작은도서관은 서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되, 유형과 여건에 따라 특정 기능을 강화 혹은 약화하여 수행

<표 92> 중앙관과 분관의 업무 분담비교

업무 분담 내용		중앙관	분관 시스템		
			소분관	확장적 소분관	자료대출 분관
관리운영	해당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	○		○	
	인력 운용	○		○	
	예산 및 회계	○		○	
	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	○			
	지역사회활동 참여	○	○	○	○
	가구와 비품 구입	○		○	

	대외 홍보	○			
	자료 선택	○	○	○	
간접봉사	자료주문·구입	○			
	자료분류·편목	○			
	대출규정 제정	○			
공중봉사	자료 열람·대출	○	○	○	○
	참고·정보봉사	○			
	교육·문화프로그램 업무	○	○	○	
	이동도서관 대출문고 관리·운영	○	○	○(운영만)	○(운영만)

※ 위 표는 기본기능 중심으로 제시한 것으로 상황과 여건에 맞춰 업무 조정 가능

나. 분관화 추진 방식

1) 소분관화

- 규모나 역량 면에서 공공도서관의 소분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지정하여 공공도서관과 연계 체계 구축
 - 이러한 방식은 작은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지원·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민간부분의 작은도서관 활동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인하는 방법으로, 지원·협력의 인센티브를 공개하고, 지원·협력에 참여하기 위해 기대되는 바람직한 운영기준을 권장함으로써, 전반적인 도서관활동의 기본인프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과 연계되어 있음
 - 면적이나 인력, 장서크기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소분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소분관 수준에서 실시할 수 있는 공동회원관리나 순회강좌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이 가능하며, 시설투자 등의 과도한 초기부담을 덜고, 단기에 소분관 수준의 공공도서관 지역거점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구체적으로는 30평 이상의 공립문고를 대상으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가운데 지정할 수 있음
- ※ 이번 조사에서 분석된 2,215개의 문고 중 공립문고는 572개이며, 이 가운데 30평 이상의 문고는 103개소임(사립문고는 1,643개 중 510개가 30평 이상임). 이러한 시설 가운데 지자체의 의지, 문고의 여건과 역량, 지역주민의 수요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소분관화 추진 검토
- 운영주체가 민간인 작은도서관의 경우 일정 기준을 갖춘 시설에 대해 리모델링을 지원함으로써 공립화를 추진하고 소유권은 지자체가 갖되 민간이 이를 재위탁 하는 방식으로 운영
 - 이러한 방식은 민간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 시스템 안에

직접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한편으로 인력, 예산 등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다른 한편으로 민간의 운영의 연속성을 보호해준다는 차원에서 지자체나 민간 모두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짐

- 부천시시의 경우 현재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공공도서관과 지역내 작은도서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운영 중임. 부천시립도서관과 연계운영체계를 맺고 있는 12개의 작은도서관의 경우, 부천시에서 설립한 시설과 최초에는 민간에서 설립하였으나 이후 공공건물예의 무상임주를 통해 그 소속을 공립화한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음. 후자의 경우 최초에 문고를 설립하였던 당사자가 이를 재위탁받는 방식을 통하여 그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음

작은도서관(공립문고)운영 위·수탁 협약서(안)

○○시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기관(이하“을”이라 한다)은 ○○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위·수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도서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외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여 시민에게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서진흥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기작은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하여 협의하고자 함이다.

제2조(운영대상시설) ○○시설 전체 연면적 ○○㎡ 중 작은도서관 면적 ○○㎡의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운영) ①“을”은 지역주민에게 자료의 대출반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독서진흥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을”은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및 대출반납서비스와 연계하여 ○○공공도서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물품관리책임) ①“갑”이 지원하여 구입한 자료 및 물품 등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위탁기간동안 “갑”을 대신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물품관리대장, 도서대장 등을 비치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을”은 위탁운영이 종료될 때에는 “갑”이 제공한 물품 및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등을 “갑”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정산검사, 업무감독등) 작은도서관의 사업내용, 보조금 정산검사, 업무감독등은 ○○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제6조(해약)①“갑”은“을”이 ○○시(보조금관리)조례 및 본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갑”이 위탁을 해약할 수 있으며,“을”은 이로 인한 손실을“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을”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사업종료 1개월 전에“갑”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표 93> 가중치 할당 평가방식(예시)

구분	최소기준(봉사인구5,000명 기준)	가중치	기준 충족 여부	점수
시 설	-면적 100㎡(약30평)	8	기준충족 x 3점 기준미달 x 1점	
	-열람석 30석 이상	3		
	-인터넷검색용 PC 2대 이상	4		
	-별도 8~10명 규모의 모임방	2		
	-어린이 공간 비중 30% 이상	3		
	소계	20		최고60 최저20
자 료	-단행 3,000권 이상	8	기준충족 x 3점 기준미달 x 1점	
	-정기간행물 10종 이상	3		
	-전자책 등 비도서 자료 구비	2		
	-검색 및 대출시스템	4		
	-연간 자료구입비 300만원 이상	3		
	소계	20		최고60 최저20
직원 및 운영	-상근직원 1명이상(*)	8	기준충족 x 3점 기준미달 x 1점	
	-상근직원이 사서자격자	3		
	-상근직원의 임금수준(최저생계비)	2		
	-보조인력(자원봉사) 1명 이상	3		
	-주당 36시간 이상 개방	4		
	소계	20		최고60 최저20

합계(최고180점, 최저60점) 150점 이상

· * 인력부문의 상근직원 1명은 필수조건

- 평가기준은 시설, 자료, 인력 범주별로 5개 항목에 20점 가중치를 배정하여, 합계 최고 180점 부터 최저 60점이 되도록 함
- 항목별 가중치 배분에서는 각 범주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연면적과 단행본 소장수, 상근직원 여부 등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배점하되, 문고와 차별되는 도서관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상근직원의 항목을 필수조건으로 설정
- 선별기준의 최저점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정도와 지원/협력의 예산규모에 맞게 일정수준을 임의로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마다 지원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확장적 소분관화

- 공립문고나 지역사회에서 민간 주도로 펼쳐져 큰 성과를 입증한 사립문고들을 적극 활용하여, 이들을 공공도서관의 지역도서관서비스 확대 협력운영기관으로 제도화하는 동시에 많은 부분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지원해 나가는 방안으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주민요구를 충족하면서 지역 공동체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

- 구체적으로는 일정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상호 협의체를 구성토록 지원하고, 이러한 협의체를 통하여 예산지원과 운영협의를 실시함으로써 자금지원과 협력을 협의체의 자율적 운영에 맡기는 방식을 취함
-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에도 크고 작은 지역 및 전국단위 작은도서관협의체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이들 민간 협의기구들이 활발한 협력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아직 이러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못한 곳에서는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며, 이미 작은도서관 협의체가 구성된 지역에서는 이러한 기구를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자발적 운동단체로서의 작은도서관 운동의 역사성을 유지하며,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을 모색하도록 구상
- 이러한 방식은 민간의 사립문고들이 어느 정도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으로의 직접적인 연계체계에 편입되기를 희망하지 않을 때 민간의 자율적인 작은도서관운동을 간접 지원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협력체제로 유인하는 초보적 단계의 지원, 협력으로 유리

부천시와 민간위탁 작은도서관과의 협약서 체결까지의 과정 사례

■ 준비단계

- 부천시 도서관 현황 조사 시작(공립, 복지관, 사립, 학교)
- 생활권역별 도서관 분포 분석: 부천을 생활권역별로 나누고, 도서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소외지역 조사
- 작은도서관 준비모임 창원지역 도서관 견학
- 작은도서관 추진모델 설정
 - 공간: 50 ~ 100평 정도(이후 30평 내외 이상으로 수정)
 - 운영: 시립도서관의 상호 대차 우선 지원
 - 도서관 운영 실무자 공동 교육등을 통해 인적 자원 능력 배양
 - 문화적 인테리어를 갖춘 보다 쾌적한 환경 만들기

■ 작은도서관 대상선정 작업

- 선정 기준
 - 복지관, 자치센터 등 공공건물에 만든다.
 - 도서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소외지역을 우선 대상지로 한다.
 -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도서관 설립 의지가 있는 곳으로 한다.
- 선정 과정
 - 복지관 등에 도서관 설립에 관한 공문 발송
 - 의지가 있는 복지관 등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회의 참석
- 작은도서관 설립 대상지 선정
 - 복지관 4곳

- 주민자치센터 2곳
- 예산서 통과
 - 변경 사항: 예산 삭감 통과
 - 예산서 재조정: 공립문고 대상지들과 준비모임 간사가 함께 임시 회의를 갖고 예산 재배분
- 공립문고 협약서 체결
 - 협약서 체결까지의 과정
 - 1월부터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분과가 협약서 문구의 조정을 놓고 3차례의 간담회를 가지고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는 과정을 거쳐 3월 협약서 내용에 합의
 - 협약서 체결
 - 3개 복지관 공립문고 협약서 체결(2002. 3)
 - 핵심 내용: 인건비 - 사서 1인과 업무보조 1인
운영시간- 각 복지관의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3) 자료대출분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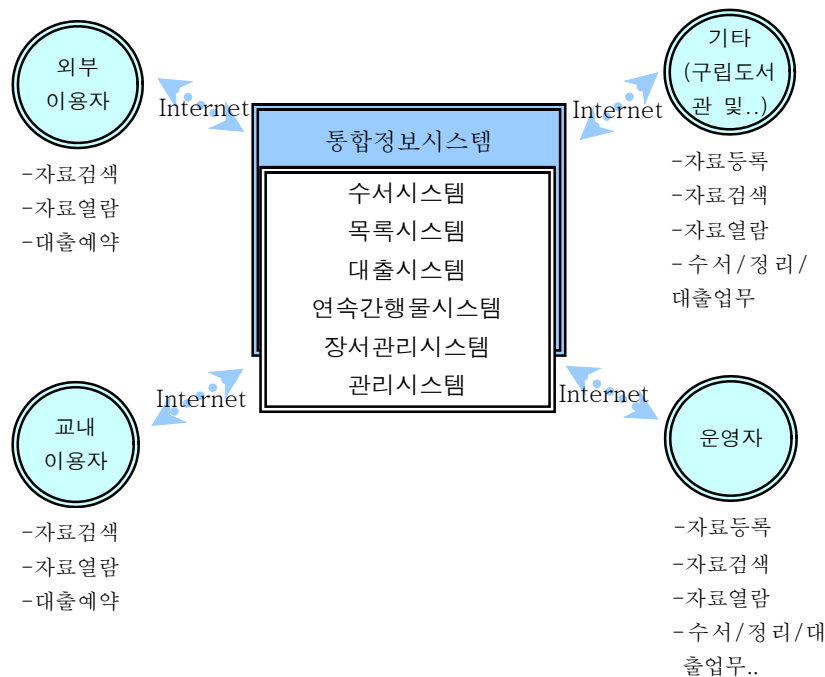
- 소분관이나 도서관협의체 구성의 경우 작은도서관은 일정한 규모와 수준을 갖출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의 작은도서관은 장서, 인력, 예산 등 제반 부문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소분관이나 도서관협의체 구성의 경우와 함께 작은도서관을 자료대출분관 형태로 공공도서관시스템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단기적으로 추진가능하며 광범위하게 적용가능한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음
- 자료대출분관화는 공공도서관의 서비스포인트를 확장하는 방안의 하나로 기존 작은도서관 자료외에 공공도서관의 자료까지도 대출, 반납하는 체계를 갖추어 지역주민에게 서비스하게 함
- 기존 문고의 경우, 전문인력이나 상근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고자체에서 대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례도 많으며 공공도서관의 자료를 대출, 반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곳도 적지 않음. 따라서 자료대출분관화가 가장 낮은 수준의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작은도서관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제반 여건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자료대출분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과의 정보 network 구축이 필수적임
 - 강남구에서는 지역주민의 독서 진흥을 위해 관내 구립도서관(5개) 및 동문고(16개), 초등학교 빈 교실을 이용한 구립 학교도서관(22개)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계, 운영중임

강남구 도서관서비스 통합시스템 사례

○ 모든 구립도서관 및 동문고 자료를 하나의 Network로 연결하는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 제공 기능

- 통합 검색 기능: 관내 도서관의 자료를 하나의 DB서버로 통합. 이용자의 자료 통합검색 가능
- 언제 어디서나 대출예약: 해당 도서관의 도서를 비롯한 각종 자료의 검색에서 대출예약, 본인의 대출내역 검색 가능
- 도서관 정보공유/상호대차: 타 도서관의 자료를 대출해 볼 수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이용 가능



■ 상시적 지원체계에 대한 검토

○ 공공도서관의 소분관이나 확장적 소분관, 자료대출분관으로 편입되기 어려운 지역의 작은도서관들에 대해서는 상시적이며 기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상시적 지원체계는 비록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공식적 서비스 시스템 안으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 지역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고, 무료로 개방되어 독서와 동화 구연, 독서모임 등 동네 사랑방으로서 주민간의 어울림을 조성하여 공동체의 통합을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현재 2000여곳 이상 운영되는 문고 가운데 상당수가 열악한 시설 및 장소, 인력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소분관이나 확장적 소분관, 자료대출분관 등과 같이 규모나 여건상 공공도서관의 체계에 직접적으로 편입될 수 없거나 편입되기를 원하지 않는 시설도 많을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이들에 대한 상시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소규모 작은도서관들을 공공도서관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지 않으면서도 일정 수준을 갖추어 지역사회에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방식에는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보다 내실있고 효과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운영자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운영 매뉴얼을 보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제3절 주요 추진 과제

1. 지원 협력을 위한 내부 역량 조성

가. 작은도서관 내 협력 기반 구축

-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과의 유기적인 연계운영 체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은도서관이 이러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되어 있어야 함
 - 이러한 역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자료관리시스템이란 자료의 수집과 분류, 정리, 대출 등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작은도서관간 정보교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수집, 분류, 관리 방식을 체계화 하는 것이 필요
-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 작은도서관 종사자에게 공공도서관 종사자와 같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할 수는 없음. 그러나 자료관리와 각종 작은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은 영역에서의 기초적인 지식과 경험은 필수적임
 - 현재 작은도서관종사자의 대부분은 도서관리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실질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음

- 따라서 작은도서관 종사자가 관련업무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지식이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나. 공공도서관 내 지원 체계 구축

□ 작은도서관지원팀 구성 또는 전담인력 지정

-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의 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지원업무를 담당할 공식조직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함
 -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학교도서관지원을 위해 서울시내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조직 내에 학교도서관지원팀을 두어 운영한 사례가 있음
 - 학교도서관지원팀이 공공도서관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학교도서관에 대한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학교도서관으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킴
-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지원팀을 공공도서관 조직 내에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현 단계에서 바로 시행하기 어려울 경우, 작은도서관 지원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것 또한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실제로, 작은도서관과 모범적인 연계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천시립도서관의 경우 작은도서관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있으며 비록 전담은 아니지만 이러한 인력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작은도서관 지원업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성패를 가늠함

서울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지원 운영사례

-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5개 공공도서관에 학교도서관지원팀을 두어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정독도서관, 남산도서관, 양천도서관, 동대문도서관, 강서도서관)
- 이 가운데 정독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지원 사례는 아래와 같음
 - 조직구조
 - 독립 부서: 정독도서관내 학교도서관 지원과 설치
 - 학교도서관지원과 업무: 수서,정리 지원/장서관리/정보화사업/관계자연수/독서지도
 - 홈페이지내 독립된 자료공간운영
 - 지원과 안내, 연간지원일정, 지원신청서 및 학교 준비사항, 신간도서목록
 - 2001년 한시기구 운영에서 2004년 상시기구 운영, 학교도서관 지원과로 변경
 - 지원내용
 - 수서, 정리 업무 지원(DB구축에 따른 데이터 수정)
 - 도서목록 DB구축 및 변환, 운영교육
 - 신간도서목록 작성, 배포
 - 장서점검 (시스템 및 교육)

- 방학기간 독후활동 프로그램 운영
- 학교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활성화 지원대상 학교 자문 및 운영지원)
- 운영자 교육 (담당교사, 도서부원, 자원봉사자교육)
- 학교도서관 관계자 연수
- 도서관리 프로그램 운영 교육
- 지원절차
- 지원대상: 서울시 북부, 중부, 성북 교육청 관내 초, 중, 고, 특 338개교
- 지원조건: 구축시스템 준비학교 우선 지원
 - DB구축 여부(도서, 바코드, 바코드키패,레이블, 레이블케퍼, 색라벨구입)
 - DB변환 준비여건(DLSⅡ 아이디, 패스워드 준비)
 - 장서점검용 기자재 준비(노트북, 바코드리더기, MS-WORD, 멀티탭, 디스켓)

○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작성

☐ 교육서비스 제공 등 비예산 지원활동 강화

- 공공도서관이 기존의 조직을 재구성하지 않더라도 작은도서관 종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활동은 현재 시점에서도 가능한 사업임
- 특히 작은도서관 자료 관리 매뉴얼이나 운영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지역의 작은도서관에게 제공함으로써 예산상의 작은 투입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지역내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지역의 작은도서관 활동을 소개하거나 작은도서관의 자료 수집 및 관리 상태를 지도해주는 것도 효과적인 작은도서관 지원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2. 지원 협력 시스템 구축

가. 작은도서관간 운영협의체 구성 지원

- 공공도서관과 달리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지역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보다 가까이 접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공공도서관과는 다른 다양한 요구들이 제기됨
-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에서는 접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는 바, 이러한 정보는 공공도서관을 통하여 얻기 보다는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 지역의 다른 작은도서관들을 통하여 얻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

- 이처럼 지역내 다른 작은도서관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간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경험을 서로 교류하는 것이 중요함
 - 이와 같은 협의체는 일차적으로 작은도서관간 협의체이지만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기구를 통하여 지역내 작은도서관들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도서관이 지역 내 작은도서관들이 상호 운영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유무형의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운영협의체는 작은도서관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역지가 적으나 이러한 협력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도서관이 주도적으로 이러한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거나 유도할 수 있음
 - 부천시는 이러한 운영협의체가 매우 잘 조직, 운영되고 있는 사례로 부천시립도서관은 이러한 운영협의체와의 방향조율을 통해 지역내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연계운영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통합정보시스템은 주거지역내에서 운영되고 생활문화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작은도서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자료관리 시스템이면서, 동시에 지역내에 존재하는 공공도서관의 표준자료관리시스템과 상호연계되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 관리 및 상호대차를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을 의미함
-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 구축은 웹기반의 자료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며 공공도서관의 표준자료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분관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게 하고, 소장 자료 및 각종 대출 관련 통계 작성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음
- 작은도서관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은 2가지 구축 방법론이 필요하며 상호 유기적인 연동이 기반이 되어야 함
 - 웹기반의 중앙 집중 시스템: 기본 개념 및 수단
 - 특정 지역 단위 중심 시스템: 시범 사업 및 보조 수단
- 작은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기본 조사 및 관련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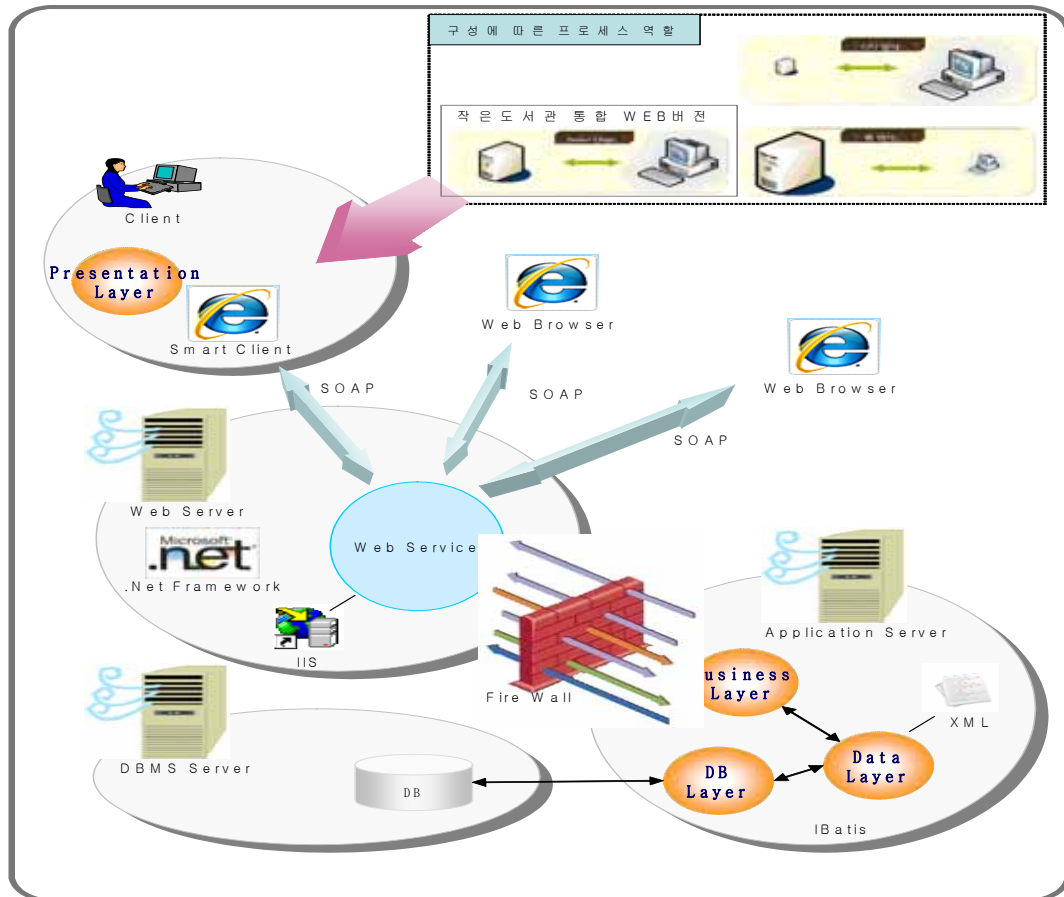
- 일반 원칙: 자원공유, 지역 특성, 비용 연구, 종합 목록 등
- 이용자 연구: 도서관 이용자 정보, 이용자 비용, 접근 요소 등
- 자료 흐름의 양상 연구: 요청 및 대여 절차, 도서관의 책임과 권한, 운송 방법, 관련 도서관 정책 등 연계
- 업무 흐름 및 구조 연구: 관련 인력 구조, 관리자의 연구
- 관련 법, 제도 등의 환경 조사 및 분석: 제한점 제시
- 교육, 문서화, 기술지원 방법론
- 현재 환경 및 미래 기술에 따른 정보기술 및 환경 조사 및 분석

○ 작은도서관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시의 고려 요소

- 국가 차원의 통합 시스템
- 국제 표준의 지원 및 연계: ISO, NCIP, Z39.50, XML 등
- 포탈 시스템 개발
- 작은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 관리를 위한 요소 분석 및 시스템화: 도서관의 책임과 권한
- 이용자 인증: 이용자 구분 및 확인 방법론
- 작은도서관을 위한 목록 및 참여 기관을 위한 여러 유형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Union catalog, Virtual catalog, Hybrid catalog
- 소장사항 관리: 소장사항 표시 및 관련 정보 지원, 복본 및 인기자료 등의 관리
- 검색시스템: 목록 통합 검색, 웹 자원 연계
- 자료의 이전에 따른 상황의 인식 및 추적 방법론
- 물류시스템 연계
- 지역 네트워크 및 도서관 사이의 데이터의 연동 및 통합
- 기존 도서관 자동화시스템과 연동 및 연계
- 디지털 상호대차 분석 및 구축
- 문서전달시스템과의 연계 및 개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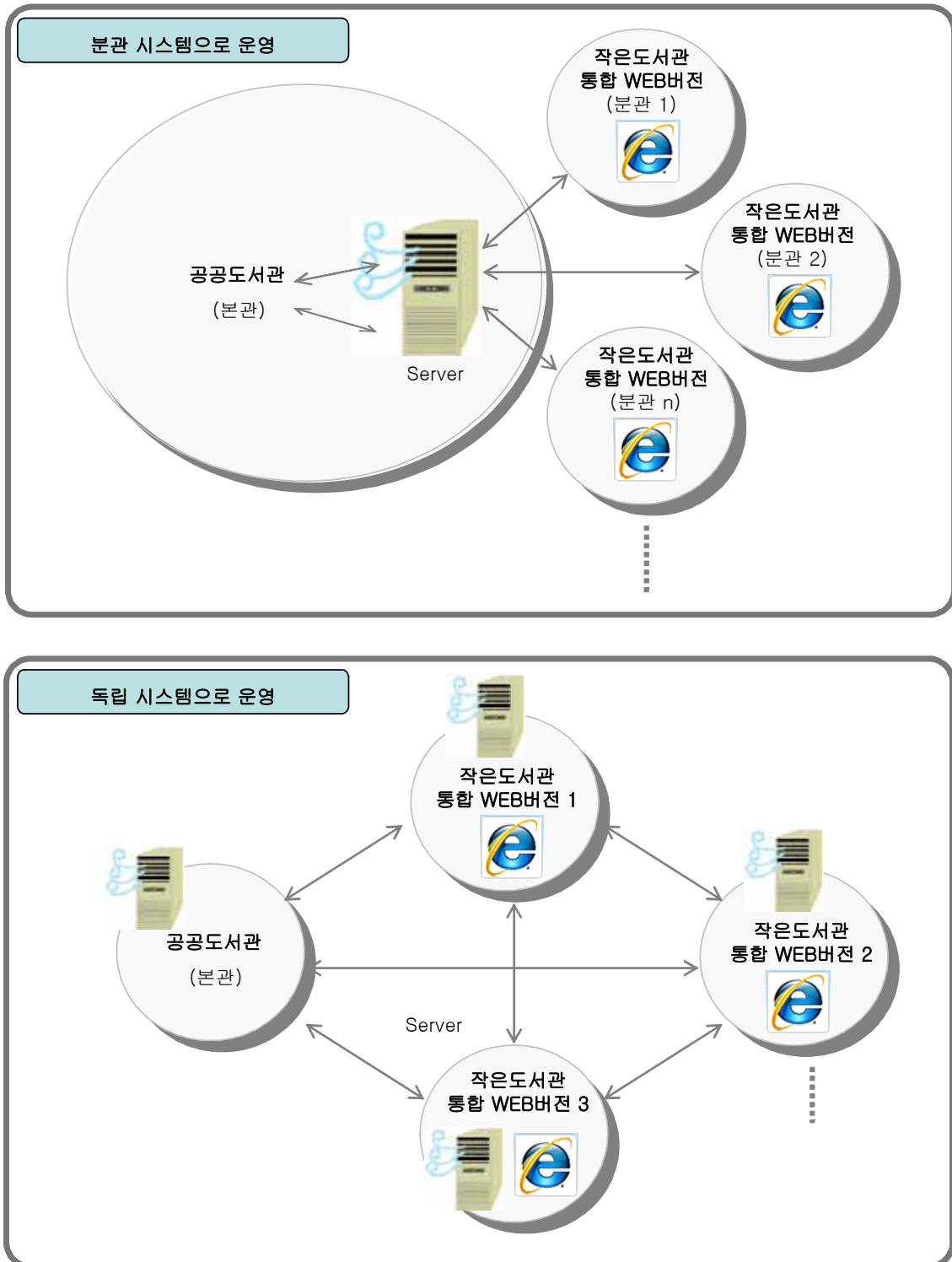
○ 상호대차를 위한 시스템과 운영 형태의 기본 개념(안)은 다음과 같음

<그림 11> 상호대차시스템 구성도



○ 상호대차시스템의 메뉴 구성(안)은 다음과 같이 구상해 볼 수 있음

<그림 12> 상호대차시스템 운영 형태



<표 94> 상호대차시스템 메뉴 구성안

메인메뉴	서브메뉴	설명
장서관리	장서관리	소장 도서에 대한 관리 기능 지원
	희망자료관리	이용자가 희망도서 신청이 가능
	통계	소장 도서에 대한 각종 통계산출/출력
대출/반납	대출/반납	대출 및 반납 기능 지원
	대출자료관리	대출/반납 이력 조회 및 수정 기능
	이용자관리	이용자에 대한 관리 및 회원증 발급
	상호대차관리	상호대차 관리 기능 지원
	통계	대출/반납에 대한 각종 통계산출/출력
자료찾기		다양한 형식의 검색 기능
환경설정	사용자관리	사용자에 대한 관리 기능
	부호관리	구분 부호 및 사용되는 부호에 대한 관리
	번호점검	등록번호, 제어번호에 대한 점검 기능
	대출/반납 환경설정	대출/반납시 각종 환경값을 설정
	이전등록번호관리	이전에 사용되던 등록번호 형식 입력
	마지막번호관리	등록번호 등 마지막 번호에 대한 관리
	메일관리	메일환경 및 발송에 대한 설정 기능
	SMS관리	SMS환경 및 발송에 대한 설정 기능
	도서관정보관리	도서관의 정보 및 휴관일 관리
	공지사항관리	공지사항에 대한 관리 기능

3. 지원 협력 콘텐츠 개발

가. 한시적 콘텐츠 개발팀 구성 운영

- 현 단계에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지원협력콘텐츠는 중앙정부나 개별 공공도서관 차원에서 개발하여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
-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 안으로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구조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기간의 시행착오가 예상됨
- 특히 분관에 편입된 작은도서관의 현실적 수요가 어떤 것이며 이러한 수요들을 어떻

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는 개별 작은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과 현실을 파악하는 것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내포함

- 따라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 지원 협력의 내용을 파악하고, 상호 연계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은,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가진 곳에서 담당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향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될 '지역대표도서관'에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 상호 협력체계와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이 기구의 활동은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시기까지로 한정적으로 운영

나. 정기적 수요 조사 실시

-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 안으로 포함시킬 때, 조직이나 운영체제와 관련된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으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게 하는가 하는 것임
- 이런 점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지원은 '지원자(공공도서관) 중심'의 지원보다 '수혜자(작은도서관) 중심'의 지원이 될 필요가 있음
 - 수혜자 중심의 지원은 기존의 '유형화된'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지원협력 콘텐츠가 개발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러한 필요성에 비해 현재 공공도서관내에는 보다 원활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작은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 안에 포함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청취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협력사항 수요조사 실시

4. 제도적, 정책적 지원 기반 마련

가. 지역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 진흥 계획 반영

- 현재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은 정책적 의지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개념적, 법적, 제도적 지원 근거가 취약하여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작은도서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 제기
 - 작은도서관지원에 대한 업무는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는 방식을 통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는 방안 모색
- 2006. 6. 공포되어 2007. 4.부터 시행예정인 도서관법에서는 중앙정부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하고 있으며 지방도서관위원회는 이에 기준하여 매년 도서관발전시행계획을 수립, 이를 중앙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음
- 이를 위하여 지방도서관위원회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하게 되어 있는 바, 지방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작은도서관 관계자가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작은도서관 진흥계획을 수립케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지원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각종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차원에서의 문화시설 운영이나 문화정책 시행은 이러한 조례에 많은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음
- 작은도서관에 대한 진흥이 개념적 모호성으로 말미암아 도서관법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어렵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음
 - 개정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40조 2항에서는 공립문고가 공립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기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현행 도서관법에서는 문고를 공공도서관의 하위 범주로 포함시킴으로써 문고를 공공도서관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
-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문화시설이나 도서관 등과 관련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관련 조례에 작은도서관의 지원 혹은 진흥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조례를 지자체로 하여금 새로 신설케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

참 고 문 헌

■ 단행본

- 다케우치 노리요시 저 ; 도서관운동연구회 역 (2003), 『우라야스 도서관 이야기』, 한울.
벤추렐라, 키렌 M 저 ; 도서관운동연구회 역 (2002), 『도서관을 통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한울.
스가야 아키코 저 ; 이진영·이기숙 역 (2004), 『미래를 만드는 도서관』, 지식여행.
大澤正雄 저 ; 류현숙 역 (2003), 『공공도서관의 경영』, 한국도서관협회.

■ 학술지

- 권은경 (2005), “일본의 학교도서관 발전에 미치는 문고운동의 영향”,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1호, 한국문헌정보학회.
김영석 (2005),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관의 친구’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4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김영석 (2005), “도서관의 친구’에 관한 고찰: 도서관도 이제 친구가 필요하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1호, 한국문헌정보학회.
양재한, “창원지역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3호
이소연 (2004),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문화 서비스 활성화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3호, 한국문헌정보학회.
이용남 외 (2002), “공공도서관 협력망에 대한 평가”, 『한국비블리아』, 제13권 제2호, 한국비블리아학회.
이용남 (2006),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분관 운영체제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제1호.
이효숙 (1988), 『어린이도서관의 합리적 운영방안』, 『도서관학회보』.
전영순 (2003), 『민간어린이 도서관 현황』, 『도서관문화』.
정동열 외 (2002),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제13권 제2호, 한국비블리아학회.
정정식 (1993), “작은도서관 갖기 운동”, 『도서관문화』.
조찬식, (1997), 『학교도서관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도서관』, 겨울
차미경 (2003),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 봉사의 계획”, 『한국비블리아』, 제14권 제1호, 한국비블리아학회.

한성택 (2004), “국가 통합 도서관 협력 체제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1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 외국자료

- Bowler Roberta 저; 장일세 역 (1969), 『공공도서관운영』, 한국도서관협회
- Chute, A., E., etc. (2002), *Public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 Fiscal Year 1999*.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Washington, D.C.
- Hansen, Eric (2002), "The New Kansas Library Card: Remote Access to Electronic Resources", *Rural Libraries*, Vol. 22, No. 1, pp.25-30.
- Heuertz, Linda, Andrew C. Gordon, Margaret T. Gordon, and Elizabeth J. Moore. "The Impact of Public Access Computing on Rural and Small Town Libraries", *Rural Libraries*, Vol.23, No. 1, pp.51-79.
- Huebert, Joy, 'Practic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for Small Public Libraries', British Columbia Library Association Conference, April 22, 2006.
- Long, Sarah Ann (2005), "Regional library systems: a tale of cooperation that grew America's public libraries", *New Library World*, Vol.106, No.1218/1219, pp.556~558.
- Malzewski, Jim (2006), "Rural Library Sustainability Project Overview", WebJunction [<http://www.webjunction.org/do/DisplayContent;jsessionid=7021624906F0A5709DA0A-DDC0DDC6447?id=11132>]
- Rochell, Carlton (1981), *Wheeler and Coldhor's Practical Administration of Public Libraries*. Rev. ed. New York: Harper.
- Roy, Lorie etc. (2004), "WebJunction.org: where minds meet to support public access computing", *Electronic Library*, Vol.22, Issue 4, pp.314~316.
- Thrasher, Jerry A. (2000), "Branch library development in Cumberland County, North Carolina", *New Library World*, Vol.101, Issue 7, pp.309~314.
- Tokoyoda, R. (1999), "Public library and marketing case of Urayasu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ssociation*, Vol.49; No.2 pp.74-78.
- Walton, Susan P. (2001), "Programming in Rural and Small Libraries: An Overview and Discussion", *Rural Libraries*, Vol. 21, No. 2 pp.7-23.

■ 해외사이트

<http://www.ala.org/ala/pla/plaawards/excellencesmall.htm>
<http://www.bibli.ens-cachan.fr/>
<http://www.capitanlibrary.org>
<http://dallylibrary.org/>
<http://www.gateway-uk.org/>
<http://www.kodomo.go.jp/>
<http://libraries.idaho.gov/able>
<http://www.libraryjournal.com/article/CA606273.html>
<http://www.liem.org.uk/index.asp>
<http://www.locallife.co.uk/kensingtonchelsea/libraries3.asp>
<http://www.locallife.co.uk/haringey/libraries3.asp>
<http://www.lovelibraries.co.uk/>
<http://www.nypl.org/research/sib/1>
<http://www.mlin.lib.ma.us/mbic/regional/index.php>
<http://www.mpl.org>
<http://www.nypl.org/>
<http://www.oml.city.osaka.jp/english/index.html>
<http://www.owlswb.info/L4L/policies/sample.asp>
<http://www.rls.lib.oh.us/>
<http://www.shortgrass-lib.ab.ca/>
<http://www.slpl.lib.mo.us>
<http://www.tsl.state.tx.us/ld/projects/slmtip/index.html>
<http://webjunction.org/do/Home>
<http://www.wmlibraries.org.uk>

■ 부록 1. 설문지

1-1. 지방자치단체용

■ 일반 설문

1. 자치단체명:
2. (도서관/문고) 담당과: _____ 과 _____ 계
3. 담당자 및 연락처:
 - ☐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팩스번호 _____
 - ☐ E-mail주소 _____

■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도 및 일반적 견해

1. 작은도서관 활동에 대한 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높다 ☐ ② 높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낮은 편이다 ☐ ⑤ 매우 낮다
2. 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작은도서관(문고) 현황/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 ① 잘 파악하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
☐ ③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3. 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주민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현재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다 ☐ ② 높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낮은 편이다 ☐ ⑤ 매우 낮다
4. 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주민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크게 증가할 것이다 ☐ ② 다소 증가할 것이다 ☐ ③ 변함없을 것이다
☐ ④ 다소 감소할 것이다 ☐ ⑤ 크게 감소할 것이다
5. 언론보도내용에 의하면 지난 5.31지방선거시 많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작은도서관 조성 공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하는 이와 같은 공약이 작은도서관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이 높아졌다
☐ ②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많아졌다
☐ ③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지원요구가 많아졌다
☐ ④ 별 영향이 없었다
☐ ⑤ 잘 모르겠다

■ 작은도서관 관련 규정 및 제도

6. 귀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서관과 관련된 조례 또는 세부방침이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 ① 있다 (☞있다면 언제 수립하셨습니까? ____ 년) ☐ ② 없다

7. 귀 지방자치단체에는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조례 또는 세부방침이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 ① 있다 (☞있다면 언제 수립하셨습니까? ____ 년) ☐ ② 없다

8. 작은도서관 관련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세부방침이나 계획은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런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9. 작은도서관 관련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작은도서관 사업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 ② 지역주민의 요구가 약하다/없다
☐ ③ 관심은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뒤진다
☐ ④ 기타 _____

■ 작은도서관 관련 지원 실태

10. 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문고나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 ② 없다

10-1. 있다면, 지원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 ☐ ① 조례 ☐ ② 중장기 계획
☐ ③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부서장의 지시 ☐ ④ 사업부서의 발의
☐ ⑤ 민원 ☐ ⑥ 기타 _____

10-1-1. 지원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 ☐ ① 지방자치단체 직접 지원 ☐ ② 공공도서관을 통한 지원
☐ ③ 기타 _____

10-1-2. 지원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 ☐ ① 운영비 지원 ☐ ② 도서구입비 지원
☐ ③ 인력 활용 지원(사서/공익근무요원 파견 등) ☐ ④ 정보화 지원
☐ ⑤ 기타 _____

10-2. 지원 실적이 없다면,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 ☐ ① 지원할 계획이다 ☐ ② 현재는 지원할 계획이 없다

10-2-1. 어떤 내용의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 ① 운영비 지원 ☐ ② 도서구입비 지원
☐ ③ 인력 활용 지원(사서/공익근무요원 파견 등) ☐ ④ 정보화 지원
☐ ⑤ 기타 _____

■ 작은도서관 지원 관련 견해 및 의견

11. 귀 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필요한 일이고 노력을 기울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 ②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
☐ ③ 공공도서관은 자체 운영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귀하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순위까지 적어 주십시오)

- ☐ ①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 ☐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
☐ ③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의 관심과 의지 ☐ ④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 ⑤ 기타 _____

13. 귀하는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귀 자치단체 소관 공공도서관의 여건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좋다 ☐ ② 좋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좋지 않다 ☐ ⑤ 좋지 않다

■ 작은도서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견해

14. 귀 자치단체는 공립문고(동문고, 마을문고 등)가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공립문고활성화를 위해 공공도서관 분관으로의 전환을 적극추진할 필요가 있다
☐ ② 필요하지만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분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③ 필요하지만 제반여건상 분관화 추진이 곤란하다
☐ ④ 공립문고라 할지라도 분관화가 아니라 자체적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기타 _____

14-1. 공립문고를 공공도서관의 분관화할 경우 가장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공공도서관의 서비스접점으로서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역할
☐ ②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및 생활친화적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사랑방 역할
☐ ③ 기타 _____

15. 작은도서관의 열람 및 대출 서비스 향상과 공공도서관 자료의 활용 극대화를 위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 상호대차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상호대차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선진외국에서는 도서관간 상호대차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IFLA에서는 각국의 도서관간 상호대차를 권장하기 위해 상호대차 표준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①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침
☐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 ③ 공공도서관의 적극적인 수용 및 의지

- ☐ ④ 작은도서관의 적극적인 요구와 준비
- ☐ ⑤ 기타 _____

15-1.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대차를 추진할 경우 그 주체는 어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공공도서관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 ☐ ② 분관화를 직접 담당할 공공도서관

1-2. 교육청

■ 일반 설문

1. 교육청명:
2. (도서관/문고) 담당과: _____ 과 _____ 계
3. 담당자 및 연락처:
☐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팩스번호 _____
☐ E-mail주소 _____

■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도 및 일반적 견해

1. 작은도서관 활동에 대한 귀 교육청의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높다 ☐ ② 높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낮은 편이다 ☐ ⑤ 매우 낮다
2. 귀 교육청은 지역의 작은도서관(문고) 현황/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 ① 잘 파악하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
☐ ③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3. 귀 교육청에서는 지역 주민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현재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다 ☐ ② 높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낮은 편이다 ☐ ⑤ 매우 낮다
4. 귀 교육청에서는 지역 주민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크게 증가할 것이다 ☐ ② 다소 증가할 것이다 ☐ ③ 변함없을 것이다
☐ ④ 다소 감소할 것이다 ☐ ⑤ 크게 감소할 것이다
5. 언론보도내용에 의하면 지난 5.31지방선거시 많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작은도서관 조성 공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하는 이와 같은 공약이 작은도서관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교육감의 관심이 높아졌다
☐ ②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많아졌다
☐ ③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지원요구가 많아졌다
☐ ④ 별 영향이 없었다
☐ ⑤ 잘 모르겠다

■ 작은도서관 관련 규정 및 제도

6. 귀 교육청에는 도서관과 관련된 조례 또는 세부방침이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① 있다 (☞있다면 언제 수립하셨습니다? _____ 년) ☐ ② 없다

7. 귀 교육청에는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조례 또는 세부방침이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① 있다 (☞있다면 언제 수립하셨습니까? ____ 년) ☐ ② 없다

8. 작은도서관 관련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세부방침이나 계획은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런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9. 작은도서관 관련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작은도서관 사업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 ② 지역주민의 요구가 약하다/없다
☐ ③ 관심은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뒤진다 ☐ ④ 기타 _____

■ 작은도서관 관련 지원 실태

10. 귀 교육청에서는 지역의 문고나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0-1. 있다면, 지원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조례 ☐ ② 중장기 계획
☐ ③ 교육감 또는 부서장의 지시 ☐ ④ 사업부서의 발의
☐ ⑤ 민원 ☐ ⑥ 기타 _____

10-1-1. 지원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 ① 교육청 직접 지원
☐ ② 공공도서관을 통한 지원
☐ ③ 기타 _____

10-1-2. 지원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운영비 지원 ☐ ② 도서구입비 지원
☐ ③ 인력 활용 지원(사서/공익근무요원 파견 등) ☐ ④ 정보화 지원
☐ ⑤ 기타 _____

10-2. 지원 실적이 없다면,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 ① 지원할 계획이다 ☐ ② 현재는 지원할 계획이 없다

10-2-2. 어떤 내용의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① 운영비 지원 ☐ ② 도서구입비 지원
☐ ③ 인력 활용 지원(사서/공익근무요원 파견 등) ☐ ④ 정보화 지원
☐ ⑤ 기타 _____

■ 작은도서관 지원 관련 견해 및 의견

11. 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한 일이고 노력을 기울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 ②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
☐ ③ 공공도서관은 자체 운영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귀하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별로 2순위까지 적어 주십시오)

- ☐ ①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 ☐ ② 교육감의 관심과 의지
☐ ③ 교육청 소관부서의 관심과 의지 ☐ ④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 ⑤ 기타 _____

13. 귀하는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귀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의 여건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좋다 ☐ ② 좋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좋지 않다 ☐ ⑤ 좋지 않다

■ 작은도서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견해

14. 귀 교육청은 공립문고(동문고, 마을문고 등)가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공립문고활성화를 위해 공공도서관 분관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 ② 필요하지만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분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③ 필요하지만 제반여건상 분관화 추진이 곤란하다
☐ ④ 공립문고라 할지라도 분관화가 아니라 자체적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기타 _____

14-1. 공립문고를 공공도서관의 분관화할 경우 가장 바람직한 작은도서관(공립문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공공도서관의 서비스접점으로서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역할
☐ ②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및 생활친화적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사랑방 역할
☐ ③ 기타 _____

15. 작은도서관의 열람 및 대출 서비스 향상과 공공도서관 자료의 활용 극대화를 위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 상호대차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상호대차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선진외국에서는 도서관간 상호대차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IFLA에서는 각국의 도서관간 상호대차를 권장하기 위해 상호대차 표준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①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침
☐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 ③ 공공도서관의 적극적인 수용 및 의지
☐ ④ 작은도서관의 적극적인 요구와 준비
☐ ⑤ 기타 _____

15-1.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대차를 추진할 경우 그 주체는 어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공공도서관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 ② 분관화를 직접 담당할 공공도서관

1-3. 공공도서관용

■ 일반 질문

1. 도서관명 : (시/도) 도서관
2. 도서관 소속: ☐ ① 지방자치단체 ☐ ② 교육청
3. 작성자 이름 및 연락처
☐ 이름 전화번호 팩스번호
☐ E-mail 주소

■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도 및 일반적 견해

1. 작은도서관 활동에 대한 귀 공공도서관의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높다 ☐ ② 높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낮은 편이다 ☐ ⑤ 매우 낮다
2. 귀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작은도서관(문고) 현황/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 ① 잘 파악하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
☐ ③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3. 귀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 주민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현재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다 ☐ ② 높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낮은 편이다 ☐ ⑤ 매우 낮다
4. 귀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 주민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크게 증가할 것이다 ☐ ② 다소 증가할 것이다 ☐ ③ 변함없을 것이다
☐ ④ 다소 감소할 것이다 ☐ ⑤ 크게 감소할 것이다

■ 작은도서관 관련 규정 및 제도

5. 귀 공공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지원방침이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① 있다 (☞있다면 언제 수립하셨습니다? ____ 년) ☐ ② 없다
6. 작은도서관 관련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지원방침이나 계획은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런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7. 작은도서관 관련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 ②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
☐ ③ 예산이 부족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지침이 없었다
☐ ⑤ 기타

■ 작은도서관 관련 지원 실태

8. 귀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의 문고나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8-1번 설문문항으로) ☐ ② 없다(☞ 8-2번 설문문항으로)

8-1. 있다면, 지원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 [illegible]

8-1-1. 있다면, 지원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 ☐ ① 운영비 지원 ☐ ② 인력 지원(사서 파견 등) ☐ ③ 도서구입비 지원
☐ ④ 정보화 지원 ☐ ⑤ 근무인력 교육 지원 ☐ ⑥ 자료정리 직접 지원
☐ ⑦ 상호대차 지원 ☐ ⑧ 도서 등 자료 지원 ☐ ⑨ 자원봉사자 지원
☐ ⑩ 자료정리 등 컨설팅 ☐ ⑪ 기타 _____

8-2. 지원 실적이 없다면,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 ☐ ① 지원할 계획이다(☞ 8-2-1번 설문문항으로)
- ☐ ② 현재는 지원할 계획이 없다(☞ 8-2-2번 설문문항으로)

8-2-1. 지원할 계획이라면, 어떤 내용의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 ① 운영비 지원 ☐ ② 인력 지원(사서 파견 등) ☐ ③ 도서구입비 지원
☐ ④ 정보화 지원 ☐ ⑤ 근무인력 교육 지원 ☐ ⑥ 자료정리 직접 지원
☐ ⑦ 상호대차 지원 ☐ ⑧ 도서 등 자료 지원 ☐ ⑨ 자원봉사자 지원
☐ ⑩ 자료정리 등 컨설팅 ☐ ⑪ 기타 _____

8-2-2. 앞으로도 운영할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소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의 관심이 적다
- ☐ ② 의지는 있으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
- ☐ ③ 아직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시기가 아니다
- ☐ ④ 우리 도서관내에서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 ☐ ⑤ 기타 _____

■ 작은도서관 분관화 실태

9. 귀 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문고)을 분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 ① 운영하고 있다 (☞ 9-1번 설문문항으로)
- ☐ ② 운영하지 않고 있다 (☞ 9-2번 설문문항으로)

9-1. 운영하고 있다면, 귀 도서관의 분관화된 작은도서관은 모두 몇 개입니까?

총 _____ 개 (공립: _____ 개, 사립 _____ 개)

9-1-1. **운영하고 있다면, 앞으로 더 많은 작은도서관을 분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까?**

- ☐ ① 공사립 작은도서관을 전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 ② 공립만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 ③ 공사립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 ④ 더 이상 확대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9-2.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분관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 ① 가지고 있다 (☞ 10번 설문문항으로)
☐ ② 가지고 있지 않다 (☞ 9-2-1번 설문문항으로)

9-2-1. 앞으로도 운영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소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의 관심이 적다
☐ ② 의지는 있으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
☐ ③ 아직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시기가 아니다
☐ ④ 우리 도서관내에서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 ⑤ 기타 _____

10. 귀하는 작은도서관 분관화가 활성화 되고 있는 타 공공도서관의 사례(예 : 부천시립공공도서관)를 알고 계십니까?

- ☐ ① 사례를 알고 있다 ☐ ② 모른다

10-1. 알고 계시다면, 귀 도서관에서는 타 공공도서관의 분관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이 있습니까?

- ☐ ① 계획이 있다 ☐ ② 계획이 없다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관계

11. 귀 도서관은 지역의 문고나 작은도서관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이건 지원요청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 ② 없다

12. 현재의 상황에서 귀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십니까?

- ☐ ① 매우 가능하다 ☐ ② 가능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어렵다 ☐ ⑤ 매우 어렵다

13. 현재의 상황에서 작은도서관 지원이 어렵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인력이 부족해서
☐ ② 예산이 부족해서
☐ ③ 조직 및 업무상 지원시스템이 부재해서
☐ ④ 도서관내에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 ⑤ 지원 필요성이 없어서
☐ ⑥ 기 타 _____

14. 현재의 상황에서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게 된다면 어떠한 지원이 가능하십니까?

- ☐ ① 운영비 지원 ☐ ② 인력 지원(사서 파견 등) ☐ ③ 도서구입비 지원
☐ ④ 정보화 지원 ☐ ⑤ 근무인력 교육 지원 ☐ ⑥ 자료정리 직접 지원
☐ ⑦ 상호대차 지원 ☐ ⑧ 도서 등 자료지원 ☐ ⑨ 자원봉사자 지원
☐ ⑩ 자료정리 등 컨설팅 ☐ ⑪기타 _____

■ 작은도서관 지원 관련 견해

15.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필요한 일이고 노력을 기울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 ②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
☐ ③ 공공도서관은 자체 운영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 지역의 지식정보서비스활성화를 위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지원시스템은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작은도서관을 책임 지원하는 형태
☐ ②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작은도서관에 일정 부분 지원하는 형태
☐ ③ 지역의 작은도서관 요청에 대해 지원하는 형태
☐ ④ 단계적으로 분관으로 운영하는 형태

17. 귀하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 별로 2순위까지 적어 주십시오)

- ☐ ①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 ☐ ② 자치단체장/교육감의 관심과 의지
☐ ③ 공공도서관 소관부서의 관심과 의지 ☐ ④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 ⑤ 기타 _____

■ 분관화 및 상호대차에 대한 견해

18. 귀 공공도서관은 공립문고(동문고, 마을문고 등)가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바람직하다 ☐ ② 바람직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 ☐ ⑤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18-1. 공립문고를 공공도서관의 분관화할 경우 가장 바람직한 작은도서관(공립문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공공도서관의 현장서비스를 확대하는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역할
☐ ②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및 생활친화적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사랑방 역할
☐ ③ 기타 _____

19. 귀 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과 상호대차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 ① 상호대차를 실시하고 있다(☞ 19-1번 설문문항으로)
☐ ② 실시하지 않고 있다(☞ 20번 설문문항으로)

19-1. 실시하고 있다면, 상호대차를 실시하게 된 근거나 계기(또는 배경)는 무엇입니까?

- ☐ 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상의 문고 등 지도·지원 관련 규정 이행
☐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및 지침
☐ ③ 우리 도서관의 자발적 발의(추진)
☐ ④ 작은도서관의 적극적인 요구와 준비
☐ ⑤ 기타 _____

20. 귀 도서관이 작은도서관과 상호대차를 실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2순위까지 적어주십시오)

- ☐ ①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침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및 의지
- ☐ ③ 공공도서관의 적극적인 수용 및 의지
- ☐ ④ 작은도서관의 적극적인 요구와 준비
- ☐ ⑤ 기타 _____

1-4. 작은도서관용

■ 일반 질문

1. 도서관(문고)명 :
2. 주소 : _____ 시/도 _____ 구/군 _____ 읍/면/동
3. 유형: ☐ ① 공립문고 ☐ ② 사립문고
4. 담당자 및 연락처:
☐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팩스번호 _____
☐ E-mail 주소 _____

■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

1. 주40시간 근무제 확대실시와 초·중·고교생의 주5일 수업제 확대실시, '07년 고교신입생부터 독서활동 내신성적 반영 등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이용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작년 대비 귀도서관 이용률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①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였다 ☐ ② 다소 증가하였다
☐ ③ 변화가 없다 ☐ ④ 감소하였다
2. 언론보도내용에 의하면 지난 5.31지방선거시 많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작은도서관 조성 공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하는 이와 같은 공약이 작은도서관 운영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아졌다 ☐ ② 공공도서관의 관심이 높아졌다
☐ ③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증가하였다 ☐ ④ 자원봉사자나 기부금이 증가하였다
☐ ⑤ 별 영향이 없었다 ☐ ⑥ 잘 모르겠다
3. 귀 도서관(문고)에 대한 소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도서관의 관심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높다 ☐ ② 다소 높다 ☐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낮다 ☐ ⑤ 낮다

■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4. 귀 도서관은 정기적으로 도서 등 자료를 수집합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5. 귀 도서관의 수집된 자료들은 도서분류기호가 부착되어 관리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6. 귀 도서관은 관외(외부) 대출을 하고 있습니까?
☐ ① 하고 있다 ☐ ② 하지 않고 있다
7. 귀 도서관은 다음 중 어떤 유형입니까?
☐ ① 도서 등 자료서비스 기능이 80-90%이상으로 도서관 기능을 주로 한다.
☐ ② 도서자료 서비스와 공부방, 지역센터 등 여러 기능이 섞여 있다

- ☐ ③ 도서 서비스는 우리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아니다
☐ ④ 기타 _____

8. 귀하는 작은도서관 분관화가 활성화 되고 있는 타 공공도서관의 사례(예 : 부천시립공공도서관)를 알고 계십니까?

- ☐ ① 사례를 알고 있다 ☐ ② 모른다

8-1. 알고 계시다면, 해당 도서관(문고)는?

8-2. 알고 계시다면, 귀 도서관에서는 타 작은도서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 ① 계획이 있다 ☐ ② 계획이 없다

8-2-1.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우리 도서관이 더 잘 하고 있다
☐ ② 하고 싶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
☐ ③ 아직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시기가 아니다

9. 귀 도서관의 운영활성화(이용률)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높다 ☐ ② 다소 높다 ☐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낮다 ☐ ⑤ 낮다

9-1. 운영 활성화정도가 높은 편인 경우(위 문항의 ①과 ② 응답),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우선순위별로 2순위까지 적어 주십시오)

- ☐ ① 위치나 장소가 적절하다.
☐ ②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도서관의 관심과 지원이 있다.
☐ ④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다
☐ ⑤기타 _____

■ 공공도서관의 지원 및 협력 실태

10. 귀 도서관은 지역의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지원을 필요로 하십니까?

- ☐ ① 필요 ☐ ② 다소 필요 ☐ ③ 보통 ☐ ④ 다소 불필요 ☐ ⑤ 불필요

10-1. 지원을 필요로 한다면, 어떠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십니까? (우선순위별로 2순위까지 적어주십시오)

- | | |
|------------------|----------------------|
| () ① 운영비 지원 | () ② 인력 지원(사서 파견 등) |
| () ③ 자료구입비 지원 | () ④ 정보화 지원 |
| () ⑤ 근무인력 교육 지원 | () ⑥ 자료정리 직접 지원 |
| () ⑦ 상호대차 지원 | () ⑧ 도서 등 자료지원 |
| () ⑨ 자원봉사자 지원 | () ⑩ 자료정리 등 컨설팅 |
| () ⑪ 기타 _____ | |

11. 귀 도서관(문고)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공공도서관에게 지원이나 협조를 요청해본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 ② 없다

12. 귀 도서관(문고)은 지역의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습니까?

- ☐ ① 있다 (☞ 12-1번 설문문항으로) ☐ ② 없다

12-1. 지원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지원을 받았습니까?

- ☐ ① 자료정리 직접 지원 ☐ ② 자료정리 컨설팅 ☐ ③ 도서구입비 지원
☐ ④ 운영비 지원 ☐ ⑤ 근무인력 교육지원 ☐ ⑥ 인력지원(사서파견 등)
☐ ⑦ 상호대차 지원 ☐ ⑧ 정보화 지원 ☐ ⑨ 도서 등 자료지원
☐ ⑩ 기타 _____

12-2. 지원받은 경험이 있다면, 지원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 ① 만족 ☐ ② 다소 만족 ☐ ③ 보통 ☐ ④ 다소 불만족 ☐ ⑤ 불만족

12-3. 지원받은 경험이 있다면, 지원은 정기적이었습니까? 비정기적이었습니까?

- ☐ ① 정기적이(었)다 ☐ ② 비정기적이(었)다

13. 귀 도서관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함께 논의(혹은 협의)한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 ② 없다 (☞ 13-1번 설문문항으로)

13-1.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없다.
☐ ② 논의를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③ 기 타 _____

■ 운영 개선에 대한 견해

14. 귀하는 작은도서관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는 타 작은도서관의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 ☐ ① 사례를 알고 있다 ☐ ② 모른다

15. 외부적 환경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이 활성화 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2순위까지 적어주십시오)

- ☐ ①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 ☐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
☐ ③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의 관심과 의지 ☐ ④ 공공도서관장의 관심과 의지
☐ ⑤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 ⑥ 기타 _____

16. 내부적 환경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2순위까지 적어 주십시오)

- ☐ ① 신간도서 등 다양한 장서의 확보 및 열람·대여 봉사
☐ ② 이용자들이 찾아오기 편리한 위치(장소)
☐ ③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 ④ 쾌적한 환경조성
☐ ⑤ 공부방·보육시설 등 부대서비스 시설 운영
☐ ⑥ 휴일개관 및 개관시간 연장
☐ ⑦ 기타 _____

■ 상호 대차 및 분관화에 대한 견해

상호대차 제도는 도서관간 자료협력을 통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어느 도서관에서나 이용하고 반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17. 지역의 지식정보서비스활성화를 위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지원시스템은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작은도서관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형태
☐ ②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작은도서관에 일정한 지원활동을 제공하는 형태
☐ ③ 지역의 작은도서관 지원요청 사항에 대해 일부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
☐ ④ 단계적으로 분관으로 운영하는 형태

18. 작은도서관의 열람 및 대출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공도서관과의 상호대차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필요 ☐ ② 다소 필요 ☐ ③ 보통 ☐ ④ 다소 불필요 ☐ ⑤ 불필요

18-1.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 문항 ④번, ⑤번 응답자)

- ☐ ① 상호대차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문헌번호정리 취약, 외부대출제도 없음 등)
☐ ② 상호대차를 운영할 만한 자체 역량이 부재하여(인력 부족, 예산 부족 등)
☐ ③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기관(교회 등)의 고유 활동 영역을 훼손당할 우려가 있어서
☐ ④ 이용자들의 수요가 크지 않아서
☐ ⑤ 기타 _____

19.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문고의 경우 공공도서관 소속(분관화 등)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필요 ☐ ② 다소 필요 ☐ ③ 보통 ☐ ④ 다소 불필요 ☐ ⑤ 불필요

19-1. 공공도서관 소속으로의 편입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위 문항 ④번, ⑤번 응답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소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도서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 ②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특성화를 기하기 어려워서
☐ ③ 사유재산을 투입하여 설립한 작은도서관(문고)이 공립화되는 것이 싫어서
☐ ④ 공립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선입견으로 이용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 ⑤ 기타 _____

■ 부록 2. 설문 통계

■ 지자체 기초통계

지역코드

구 분	빈도	퍼센트
서울	7	9.6
부산	2	2.7
대구	1	1.4
울산	2	2.7
광주	1	1.4
대전	1	1.4
인천	2	2.7
경기	15	20.5
전북	9	12.3
전남	8	11.0
충북	1	1.4
충남	5	6.8
경북	9	12.3
경남	8	11.0
강원	2	2.7
합계	73	100.0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구 분	빈도	퍼센트
매우높다	15	20.5
높은편이다	23	31.5
보통이다	24	32.9
낮은편이다	9	12.3
매우낮다	2	2.7
합계	73	100.0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태 파악 정도

구 분	빈도	%
잘 파악	34	46.6
어느 정도 파악	36	49.3
파악 못함	3	4.1
합계	73	100.0

작은도서관 현재수요에 대한 인지

구 분	빈도	%
매우 높다	7	9.6
높은편이다	21	28.8

보통	24	32.9
낮은편이다	17	23.3
매우 낮다	4	5.5
합계	73	100.0

작은도서관의 앞으로의 수요변화에 대한 인지

구 분	빈도	퍼센트
크게증가	23	31.5
다소증가	43	58.9
변함없음	7	9.6
합계	73	100.0

지자체후보공약이 작은도서관사업에 미친영향 1순위

구 분	빈도	퍼센트
지자체관심증가	25	34.2
지역주민 관심증가	22	30.1
작은도서관운영자의 지원요구증가	12	16.4
별영향없음	13	17.8
잘모르겠다	1	1.4
합계	73	100.0

도서관 관련 조례 및 지원계획 수립여부

구 분	빈도	퍼센트
있다	40	54.8
없다	33	45.2
합계	73	100.0

도서관 관련된 조례 또는 세부방침 수립연도

구 분	빈도	퍼센트
없음	40	54.8
1983	1	1.4
1989	1	1.4
1991	2	2.7
1993	1	1.4
1994	2	2.7
1995	5	6.8
1996	3	4.1
1997	2	2.7
1998	1	1.4
1999	1	1.4
2000	1	1.4
2001	2	2.7
2003	2	2.7
2004	1	1.4
2005	5	6.8
2006	3	4.1
합계	73	100.0

작은도서관 관련된 조례 또는 세부방침 수립유무

구 분	빈도	퍼센트
있다	22	30.1
없다	51	69.9
합계	73	100.0

작은도서관 관련된 조례 또는 세부방침 수립연도

구 분	빈도	퍼센트
없음	53	72.6
2001	1	1.4
2003	5	6.8
2005	5	6.8
2006	7	9.6
매년	2	2.7
합계	73	100.0

작은도서관 관련계획의 이행정도

구 분	빈도	퍼센트
없음	42	57.5
매우그렇다	10	13.7
그런편이다	12	16.4
보통이다	8	11.0
매우그렇지않다	1	1.4
합계	73	100.0

작은도서관 관련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이유

구 분	빈도	퍼센트
무응답	27	37.0
작은도서관 사업필요성 크지않음	9	12.3
지역주민의 요구미비	11	15.1
관심있으나 우선순위 뒤짐	24	32.9
기타	2	2.7
합계	73	100.0

작은도서관 지원실적 유무

구 분	빈도	퍼센트
있다	47	64.4
없다	26	35.6
합계	73	100.0

작은도서관 지원근거

구 분	빈도	퍼센트
없음	21	28.8
조례	8	11.0
중장기계획	1	1.4
지자체장 또는 부서장 지시	3	4.1
사업부서의 발의	19	26.0
민원	4	5.5
기타	17	23.3
합계	73	100.0

작은도서관 지원방식

구 분	빈도	퍼센트
없음	21	28.8
지자체 직접지원	33	45.2
공공도서관을 통한 지원	18	24.7
기타	1	1.4
합계	73	100.0

작은도서관 지원내용

구 분	빈도	퍼센트
없음	23	31.5
운영비지원	10	13.7
도서구입비 지원	37	50.7
정보화지원	1	1.4
기타	2	2.7
합계	73	100.0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유무

구 분	빈도	퍼센트
지원할계획	11	15.1
현재 지원할 계획없음	62	84.9
합계	73	100.0

작은도서관 지원계획 내용 1순위

구 분	빈도	퍼센트
없음	53	72.6
운영비지원	9	12.3
도서구입비지원	9	12.3
정보화지원	1	1.4
기타	1	1.4
합계	73	100.0

작은도서관 지원계획내용 2순위

구 분	빈도	퍼센트
없음	61	83.6
운영비지원	1	1.4
도서구입비지원	1	1.4
인력활용지원	5	6.8
정보화지원	4	5.5
기타	1	1.4
합계	73	100.0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생각

구 분	빈도	퍼센트
모름	4	5.5
매우필요한일이고 꼭 그렇게 해야함	33	45.2
필요하지만 현실적 지원 어려움	25	34.2
공공도서관은 자체운영에 집중해야함	11	15.1
합계	73	100.0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생각 1순위

구 분	빈도	퍼센트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	40	54.8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	21	28.8
지자체 소관부서의 관심과 의지	4	5.5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7	9.6
기타	1	1.4
합계	73	100.0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생각 2순위

구 분	빈도	퍼센트
없음	12	16.4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	7	9.6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	19	26.0
지자체 소관부서의 관심과 의지	3	4.1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31	42.5
기타	1	1.4
합계	73	100.0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여건

구 분	빈도	퍼센트
무응답	1	1.4
매우좋다	3	4.1
좋은편이다	10	13.7
보통	32	43.8
다소좋지않음	16	21.9
좋지않다	11	15.1
합계	73	100.0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의 편입에 대한 생각

구 분	빈도	퍼센트
공립문고활성화를 위해 적극추진	19	26.0
필요하나 여건에 따라 가능한 곳만	22	30.1
필요하나 제반여건상 곤란	11	15.1
공립문고지만 자체적 활성화 지원이 바람직	21	28.8
합계	73	100.0

공공도서관의 분관화할 경우 바람직한 역할

구 분	빈도	퍼센트
무응답	6	8.2
공공도서관의 서비스접점으로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14	19.2
지식정보서비스및 문화사랑방 역할	52	71.2
기타	1	1.4
합계	73	100.0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상호대차를 위해 필요한 사항

구 분	빈도	퍼센트
무응답	1	1.4
국립중앙도서관 지침	7	9.6
지자체장의 의지	15	20.5
공공도서관의 적극적 수용의지	40	54.8
작은도서관의 적극적 요구 및 준비	9	12.3
기타	1	1.4
합계	73	100.0

작은도서관과의 상호대차시 주체

구 분	빈도	퍼센트
무응답	1	1.4
공공도서관을 지원하는 지자체나 교육청	19	26.0
분관화를 직접 담당할 공공도서관	53	72.6
합계	73	100.0

■ 교육청 기초통계

지역코드

구 분	빈도	퍼센트
서울	10	17.9
부산	1	1.8
대구	2	3.6
울산	1	1.8
대전	1	1.8
인천	1	1.8
제주	1	1.8
경기	10	17.9
전북	4	7.1
전남	1	1.8
충북	5	8.9
충남	7	12.5
경북	5	8.9
경남	4	7.1
강원	3	5.4
합계	56	100.0

작은도서관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

구 분	빈도	퍼센트
매우높다	1	1.8
높은편이다	19	33.9
보통	24	42.9
낮은편이다	11	19.6
매우낮다	1	1.8
합계	56	100.0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태파악정도

구 분	빈도	퍼센트
잘파악	9	16.1
어느정도 파악	23	41.1
파악못함	24	42.9
합계	56	100.0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태파악 정도

구 분	교육청	퍼센트
잘 파악	9	16.1
어느 정도 파악	23	41.1
파악 못함	24	42.9
합계	56	100.0

지역주민의 작은도서관 수요정도

구 분	빈도	퍼센트
높은편이다	15	26.8
보통	24	42.9
낮은편이다	15	26.8
매우낮다	2	3.6
합계	56	100.0

작은도서관에 대한 수요변화예측

구 분	빈도	퍼센트
크게증가	8	14.3
다소증가	39	69.6
변함없음	9	16.1
합계	56	100.0

지자체공약이 작은도서관사업에 미치는 영향 1순위

구 분	빈도	퍼센트
교육감관심증대	2	3.6
지역주민 관심증대	23	41.1
작은도서관 운영자 지원요구증대	4	7.1
별영향없음	20	35.7
잘모름	7	12.5
합계	56	100.0

지자체공약이 작은도서관사업에 미치는 영향 2순위

구 분	빈도	퍼센트
무응답	45	80.4
지역주민 관심증대	1	1.8
작은도서관 운영자 지원요구증대	7	12.5
별영향없음	1	1.8
잘모름	2	3.6
합계	56	100.0

도서관관련조례 및 계획수립유무

구 분	빈도	퍼센트
있다	19	33.9
없다	37	66.1
합계	56	100.0

도서관관련조례 및 계획수립연도

구 분	빈도	퍼센트
0	43	76.8
67	1	1.8
76	1	1.8
81	1	1.8
87	2	3.6
88	1	1.8
91	1	1.8
97	1	1.8
99	3	5.4
2002	1	1.8
2003	1	1.8
합계	56	100.0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및 계획수립유무

구 분	빈도	퍼센트
있다	19	33.9
없다	37	66.1
합계	56	100.0

작은도서관관련조례 및 계획수립연도

구 분	빈도	퍼센트
없음	53	94.6
87	2	3.6
2003	1	1.8
합계	56	100.0

작은도서관관련계획 이행정도

구 분	빈도	퍼센트
없음	52	92.9
그런편이다	1	1.8
보통	3	5.4
합계	56	100.0

작은도서관관련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이유

구 분	빈도	퍼센트
무응답	10	17.9
작은도서관 사업필요성 크지않음	7	12.5
지역주민요구 미비	9	16.1
관심있지만 우선순위 뒤짐	19	33.9
기타	11	19.6
합계	56	100.0

지역문고나 작은도서관 지원실적 유무

구 분	빈도	퍼센트
있다	13	23.2
없다	43	76.8
합계	56	100.0

작은도서관 지원 근거

구 분	빈도	퍼센트
없음	43	76.8
중장기계획	4	7.1
교육감 또는 부서장 지시	3	5.4
사업부서 발의	5	8.9
기타	1	1.8
합계	56	100.0

작은도서관 지원 방식

구 분	빈도	퍼센트
없음	43	76.8
교육청 직접지원	1	1.8
공공도서관을 통한 지원	11	19.6
기타	1	1.8
합계	56	100.0

작은도서관 지원 내용

구 분	빈도	퍼센트
없음	46	82.1
도서구입비지원	1	1.8
인력활용지원	1	1.8
정보화지원	2	3.6
운영비지원	4	7.1
기타	2	3.6
합계	56	100.0

작은도서관 지원계획 유무

구 분	빈도	퍼센트
지원할 계획	3	5.4
현재 지원계획 없음	26	84.7
합계	56	100.0

작은도서관 예정지원계획내용1순위

구 분	빈도	퍼센트
없음	46	82.1
운영비지원	4	7.1
도서구입비지원	1	1.8
인력활용지원	1	1.8
정보화지원	2	3.6
기타	2	3.6
합계	56	100.0

작은도서관 예정지원계획내용2순위

구 분	빈도	퍼센트
없음	51	91.1
도서구입비지원	3	5.4
정보화지원	2	3.6
합계	56	100.0

작은도서관지원에 대한 생각

구 분	빈도	퍼센트
매우필요한일	18	32.1
필요하나 현실적 지원 어려움	32	57.1
공공도서관은 자체운영에 집중	6	10.7
합계	56	100.0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위한 중요사항 1순위

구 분	빈도	퍼센트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	35	62.5
교육감의 관심과 의지	7	12.5
교육청 소속부서의 관심과 의지	3	5.4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9	16.1
기타	2	3.6
합계	56	100.0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위한 중요사항 2순위

구 분	빈도	퍼센트
없음	11	19.6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	4	7.1
교육감의 관심과 의지	10	17.9
교육청 소관부서의 관심과 의지	2	3.6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26	46.4
기타	3	5.4
합계	56	100.0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여건

구 분	빈도	퍼센트
무응답	2	3.6
매우좋다	0	0
좋은편이다	8	14.3
보통	18	32.1
다소좋지않다	9	16.1
좋지않다	19	33.9
합계	56	100.0

공립문고의 공공도서관 분관화에 대한 생각

구 분	빈도	퍼센트
모름	2	3.6
적극추진	15	26.8
필요하나 여건에 따라 가능한 곳만	19	33.9
필요하나 제반여건상 분관화 곤란	5	8.9
공립문고 자체활성지원이 바람직	15	26.8
합계	56	100.0

공공도서관 분관화시 바람직한 역할

구 분	빈도	퍼센트
무응답	6	10.7
지식정보서비스	10	17.9
문화사랑방	40	71.4
합계	56	100.0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활성화를 위한 사항

구 분	빈도	퍼센트
무응답	2	3.6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침	6	10.7
지자체장의 의지	21	37.5
공공도서관의 적극적 수용의지	19	33.9
작은도서관의 적극적 요구와 준비	4	7.1
기타	4	7.1
합계	56	100.0

상호대차시 주체

구 분	빈도	퍼센트
무응답	1	1.8
지자체나 교육청	18	32.1
공공도서관	37	66.1
합계	56	100.0

■ 공공도서관 기초통계

지역코드

구 분	빈도	퍼센트
서울	8	5.9
부산	11	8.1
대구	5	3.7
울산	3	2.2
광주	7	5.2
대전	2	1.5
인천	5	3.7
경기	11	8.1
전북	3	2.2
전남	14	10.4
충북	2	1.5
충남	8	5.9
경북	17	12.6
경남	15	11.1
강원	24	17.8
합계	135	100.0

도서관소속

구 분	빈도	퍼센트
지자체	34	25.2
교육청	101	74.8
합계	135	100.0

공공도서관의 관심정도

구 분	빈도	퍼센트
매우높다	19	14.1
높은편이다	28	20.7
보통이다	62	45.9
낮은편이다	19	14.1
매우낮다	7	5.2
합계	135	100.0

공공도서관의 실태파악정도

구 분	빈도	퍼센트
잘파악	26	19.3
어느정도 파악	82	60.7
파악하지 못함	27	20.0
합계	135	100.0

지역주민의 작은도서관 현재수요

구 분	빈도	퍼센트
매우높다	2	1.5
높은편이다	26	19.3
보통	50	37.0
낮은편이다	37	27.4
매우낮다	20	14.8
합계	135	100.0

작은도서관에 대한 미래수요

구 분	빈도	퍼센트
크게증가	16	11.9
다소증가	80	59.3
변함없음	36	26.7
다소감소	3	2.2
합계	135	100.0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방침수립유무

구 분	빈도	퍼센트
있음	23	17.0
없음	112	82.9
합계	135	100.0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방침이행정도

구 분	빈도	퍼센트
매우잘됨	7	30.4
잘되는편	12	52.1
보통	1	4.3
안되는편	3	13.0
합계	23	100.0

작은도서관 지원계획 없는 이유

구 분	빈도	퍼센트
작은도서관 지원사업필요성 크지않음	9	8.0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료 불충분	11	9.8
예산부족	39	34.8
지자체 또는 교육청 지침없음	38	33.9
기타	15	13.4
합계	112	100.0

작은도서관 지원실적 유무

구 분	빈도	퍼센트
있음	51	37.8
없음	84	62.2
합계	135	100.0

작은도서관 지원시 근거

구 분	빈도	퍼센트
조례	6	11.8
중장기계획	1	1.9
지자체 또는 교육청 지시	11	21.6
사업부서 발의	19	37.3
민원	4	7.8
기타	10	19.6
합계	51	100.0

작은도서관 지원내용

구 분	빈도	퍼센트
운영비지원	2	3.9
인력지원	3	5.9
도서구입비지원	9	17.7
정보화지원	1	1.9
근무인력 교육지원	1	1.9
상호대차지원	3	5.9
도서 및 자료지원	25	49.0
자원봉사자지원	1	1.9
자료정리 등 컨설팅	5	9.9
기타	1	1.9
합계	51	100.0

앞으로 작은도서관 지원할 계획 유무

구 분	빈도	퍼센트
있음	12	14.3
현재는 없음	72	85.7
합계	84	100.0

지원할 계획내용 1순위

구 분	빈도	퍼센트
운영비지원	3	13.1
인력지원	1	4.3
도서구입비지원	3	13.1
정보화지원	4	17.4
근무인력 교육지원	4	17.4
자료정리 직접지원	2	8.7
상호대차지원	3	13.1
도서 등 자료지원	1	4.3
자료정리 등 컨설팅	2	8.7
합계	23	100.0

앞으로 분관운영 계획없는 이유

구 분	빈도	퍼센트
소관지자체나 교육청 관심적음	18	25
의지있으나 인력과 예산부족	40	55.6
시기상조	3	4.2
공감대 형성부족	9	12.5
기타	2	2.7
합계	72	100.0

작은도서관을 분관으로 운영하는지 유무

구 분	빈도	퍼센트
운영함	6	4.4
운영안함	129	95.6
합계	135	100.0

총 분관도서관의 수

구 분	빈도	퍼센트
1	4	66.7
2	1	16.6
24	1	16.6
합계	6	100.0

분관도서관 중 공립의 수

구 분	빈도	퍼센트
1	4	66.7
2	1	16.6
17	1	16.6
합계	6	100.0

운영하는 경우,앞으로 더많은 분관 확대 운영계획 유무

구 분	빈도	퍼센트
공사립 작은도서관 확대운영	1	16.7
공립만 확대운영	1	16.7
공사립 단계적 확대운영	2	33.3
안함	2	33.3
합계	6	100.0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분관운영계획 유무

구 분	빈도	퍼센트
있음	10	7.8
없음	119	92.2
합계	129	100.0

운영계획 없는 이유 1순위

구 분	빈도	퍼센트
소관 지자체나 교육청 관심적음	30	25.2
의지있으나 예산과 인력부족	48	40.3
시기상조	12	10.1
공감대 형성안됨	12	10.1
기타	17	14.3
합계	119	100.0

분관이 활성화 된 타 공공도서관의 사례 인지유무

구 분	빈도	퍼센트
안다	66	48.9
모른다	69	51.1
합계	135	100.0

분관화 우수사례 벤치마킹 계획 유무

구 분	빈도	퍼센트
있음	31	23.0
없음	49	36.3
합계	135	100.0

작은도서관으로부터의 지원요청 유무

구 분	빈도	퍼센트
있음	51	37.8
없음	84	62.2
합계	135	100.0

현상황에서 작은도서관 지원할 수 있는 정도

구 분	빈도	퍼센트
매우가능	5	3.7
가능한편	8	5.9
보통	12	8.9
약간어려움	56	41.5
매우어려움	54	40
합계	135	100.0

작은도서관 지원 어려운 이유

구 분	빈도	퍼센트
인력부족	57	42.2
예산부족	33	24.4
조직업무 지원시스템 부재	29	21.5
도서관내 공감대 부재	6	4.4
지원필요성 부재	2	1.5
기타	8	5.9
합계	135	100.0

현상황에서 작은도서관 지원가능분야 1순위

구 분	빈도	퍼센트
운영비지원	4	3.0
인력지원	4	3.0
도서구입비지원	7	5.2
정보화지원	5	3.7
근무인력 교육지원	29	21.5
자료정리 직접지원	7	5.2
상호대차지원	10	7.4
도서 및 자료지원	28	20.7
자원봉사자지원	2	1.5
자료정리 등 컨설팅	26	19.3
기타	13	9.6
합계	135	100.0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당위성

구 분	빈도	퍼센트
매우필요하고 꼭 그래야 함	38	28.1
필요하나 현실적 지원어려움	89	65.9
공공도서관 자체운영에 집중해야함	8	5.9
합계	135	100.0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 및 지원시스템의 형태

구 분	빈도	퍼센트
무응답	2	3.7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책임지원	12	8.9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일정부분 지원	46	34.1
작은도서관 요청에 대한 지원	29	21.5
단계적 분관운영	43	31.9
합계	135	100.0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위한 중요사항 1순위

구 분	빈도	퍼센트
무응답	4	3.0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	66	48.9
지자체장/교육감의 관심과 의지	39	28.9
공공도서관 소관부서의 관심과 의지	7	5.1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19	14.1
합계	135	100.0

공립문고의 공공도서관 분관화에 대한 생각

구 분	빈도	퍼센트
무응답	6	4.4
매우바람직	16	11.9
바람직한편	39	28.9
보통	42	31.1
다소바람직못함	23	17.0
매우바람직못함	9	6.7
합계	135	100.0

공립문고의 공공도서관 분관화시 바람직한 역할

구 분	빈도	퍼센트
무응답	10	7.4
공공도서관의 현장서비스를 확대하는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역할	33	24.4
문화사랑방 역할	90	66.7
기타	2	1.5
합 계	135	100.0

작은도서관과의 상호대차 유무

구 분	빈도	퍼센트
실시중	10	7.4
실시하지않음	125	92.6
합 계	135	100.0

상호대차 실시근거

구 분	빈도	퍼센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상의 관련규정	2	1.5
지자체의 예산지원 및 지침	2	1.5
우리도서관의 자발적 발의	4	3.0
작은도서관의 적극적 요구	2	1.5
합계	10	100.0

상호대차 실시를 위해 필요한 요소 1순위

구 분	빈도	퍼센트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침	15	11.1
지자체의 예산지원및의지	95	70.4
공공도서관의 적극적 수용의지	11	8.1
작은도서관의 적극적 요구	9	6.7
기타	5	3.7
합계	135	100.0

■ 작은도서관 기초통계

지역코드

구 분	빈도	%
서울	72	25.3
부산	16	5.6
대구	6	2.1
울산	1	.4.0
광주	6	2.1
대전	7	2.5
인천	12	4.2
경기	55	19.3
전북	9	3.2
전남	19	6.7
충북	7	2.5
충남	8	2.8
경북	16	5.6
경남	39	13.7
강원	12	4.2.
합계	285	100.0

공사업구분

구 분	빈도	퍼센트
사업문고	221	77.5
공립문고	64	22.5
합계	285	100.0

1) 정책변화에 따른 이용률 변화

구 분	빈도	퍼센트
무응답	1	.4
대폭 증가	31	10.9
다소 증가	183	64.2
변화 없음	65	22.8
감소	5	1.8
합계	285	100.0

2) 공약에 따른 문고운영 영향 (중복응답)

구 분	빈도	퍼센트
지자체 관심증가	71	12.5
공공도서관 관심증가	43	7.5
지역주민 이용증가	51	8.9
자원봉사자맞기부금 증가	7	1.2
별영향없음	156	27.4
잘모름	242	42.5
합계	570	100.0

3) 귀문고에 대한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의 관심

구 분	빈 도	퍼센트
무응답	2	0.7
높다	19	6.7
다소높다	48	16.8
보통	88	30.9
다소낮다	58	20.4
낮다	70	24.6
합계	285	100.0

4) 정기적 도서및자료수집 유무

구 분	빈도	퍼센트
그렇다	232	81.4
아니다	53	18.6
합계	285	100.0

5) 도서분류기호의 부착유무

구 분	빈도	퍼센트
그렇다	188	66.0
아니다	97	34.0
합계	285	100.0

6) 외부대출유무

구 분	빈도	퍼센트
하고있다	252	88.5
하지않고있다	33	11.6
합계	285	100.0

7) 문고유형

구 분	빈도	퍼센트
도서및자료서비스	85	29.8
공부방및지역센터추가	137	48.1
도서서비스가 중요기능아님	14	4.9
기타	49	23.5
합계	283	100.0

분관화 활성화 계획없는 이유

구 분	빈도	퍼센트
무응답	79	27.7
우리문고 더잘함	7	2.5
예산및인력부족	32	11.2
시기상조	10	3.5
합계	128	44.9
시스템 결측값	157	55.1
합계	285	100.0

8) 운영활성화 정도

구 분	빈도	퍼센트
높다	43	15.1
다소높다	88	30.9
보통	103	36.1
다소낮다	35	12.3
낮다	12	4.2
합계	283	99.3
시스템 결측값	4	1.4
합계	285	100.0

8-1) 운영활성화가 높은 이유 1순위

구 분	빈도	퍼센트
무응답	131	46.0
위치나 장소적정	68	24.0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60	21.2
지자체나 공공도서관의 관심	2	0.7
지역주민 관심과 참여높음	18	6.3
기타	6	2.1
합계	283	100.0

8-2) 운영활성화가 높은 이유 2순위

구 분	빈도	퍼센트
무응답	167	59
위치나 장소적정	7	2.4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28	9.8
지자체나 공공도서관의 관심	16	5.6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59	20.8
기타	8	2.8
합계	283	100.0

9) 공공도서관의 지원필요 유무

구 분	빈도	퍼센트
무응답	5	1.7
필요	159	55.9
다소필요	73	25.7
보통	26	9.1
다소불필요	11	3.8
불필요	11	3.8
합계	284	100.0

9-1)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분야 1순위

구 분	빈도	퍼센트
무응답	24	8.4
운영비지원	122	42.8
인력지원	27	9.5
자료구입비지원	54	18.9
정보화지원	14	4.9
근무인력교육지원	7	2.5
자료정리직접지원	2	.7
상호대차지원	3	1.1
도서및자료지원	24	8.4
자원봉사자지원	3	1.1
자료정리등 컨설팅	3	1.1
기타	2	.7
합계	285	100.0

9-2)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분야 2순위

구 분	빈도	퍼센트
무응답	31	10.9
운영비지원	32	11.2
인력지원	32	11.2
자료구입비지원	68	23.9
정보화지원	21	7.4
근무인력교육지원	13	4.6
자료정리 직접지원	6	2.1
상호대차지원	6	2.1
도서및자료지원	50	17.5
자원봉사자지원	10	3.5
자료정리 등 컨설팅	15	5.3
기타	1	.4
합계	285	100.0

10) 공공도서관의 지원 및 협조요청유무

구 분	빈도	퍼센트
있다	141	49.5
없다	144	50.6
합계	285	100.0

11) 공공도서관의 지원유무

구 분	빈도	퍼센트
있다	84	29.5
없다	201	70.6
합계	285	100.0

11-1) 공공도서관의 지원내용

구 분	빈도	퍼센트
자료정리직접지원	4	4.7
자료정리컨설팅	3	3.6
도서구입비지원	30	35.8
운영비지원	7	8.3
정보화지원	3	3.6
도서및자료지원	24	28.5
기타	13	15.5
합계	84	100.0

11-2) 공공도서관 지원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빈도	퍼센트
만족	5	6
다소만족	29	34.9
보통	25	30.1
다소불만족	18	21.6
불만족	6	7.2
합계	83	100.0

11-3) 공공도서관 지원의 정기성

구 분	빈도	퍼센트
정기적	34	39
비정기적	53	61
합계	87	100.0

12) 공공도서관과 문고운영논의유무

구 분	빈도	퍼센트
있다	107	37.5
없다	178	62.5
합계	285	100.0

12-1) 문고운영논의 없는 이유

구 분	빈도	퍼센트
지자체나 공공도서관에서 관심없음	95	60.1
논의해도 도움안됨	23	14.5
기타	40	25.3
합계	158	100.0

13) 문고활성화를 위한 외부요인 1순위

구 분	빈도	퍼센트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	111	38.9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	83	29.1
지자체 소관부서의 관심과 의지	45	15.8
공공도서관장의 관심과 의지	9	3.2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31	10.9
기타	6	2.1
합계	285	100.0

13) 문고활성화를 위한 외부요인 2순위

구 분	빈도	퍼센트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	10	3.5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	66	23.2
지자체 소관부서의 관심과 의지	58	20.4
공공도서관장의 관심과 의지	25	8.8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101	35.4
기타	25	8.8
합계	285	100.0

14) 문고이용률향상을 위한 내부요인 1순위

구 분	빈도	퍼센트
다양한 장서확보 및 서비스	202	70.9
이용자 편한 위치	19	6.7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33	11.6
쾌적한 환경	16	5.6
부대서비스 시설운영	5	1.8
휴일개관 및 개관시간연장	4	1.4
기타	6	2.1
합계	285	100.0

14) 문고이용률향상을 위한 내부요인 2순위

구 분	빈도	퍼센트
다양한 장서확보및서비스	23	8.1
이용자 편한위치	33	11.6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113	39.6
쾌적한 환경	49	17.2
부대서비스 시설운영	45	15.8
휴일개관 및 개관시간 연장	11	3.9
기타	11	3.9
합계	285	100.0

15) 공공도서관과 문고협력시스템의 바람직한 형태

구 분	빈도	퍼센트
무응답	7	2.5
공공도서관이 지역문고 책임지원	51	17.9
공공도서관이 지역문고 일정지원활동	109	38.2
문고지원요청사항에 대해 가능한 지원	85	29.8
단계적인 분관운영	33	11.6
합계	285	100.0

16) 공공도서관과의 상호대차시스템 필요 유무

구 분	빈도	퍼센트
무응답	6	2.1
필요	99	34.7
다소필요	85	29.8
보통	35	12.3
다소불필요	36	12.6
불필요	24	8.4
합계	285	100.0

16-1) 상호대차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구 분	빈도	퍼센트
상호대차준비안됨	13	22
상호대차 운영역량안됨	27	45.7
문고운영기관의 고유영역훼손우려	12	20.3
이용자 수요 적음	5	8.4
기타	2	3.3
합계	59	100.0

17) 공공도서관 소속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구 분	빈도	퍼센트
무응답	9	3.2
필요	61	21.4
다소필요	57	20.0
보통	57	20.0
다소불필요	46	16.1
불필요	55	19.3
합계	285	100.0

17-1) 공공도서관 소속으로 편입이 불필요한 이유

구 분	빈도	퍼센트
소관 지자체및공공도서관의 지시따라야 함	35	35.3
특성화 기하기 어려움	51	51.5
사유재산인 문고가 공립화되는 것 싫음	6	6.0
공립에 대한 선입견으로 이용률 저하우려	2	2.0
기타	5	5.0
합계	99	100.0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

2006년 11월 4일 인쇄

2006년 11월 4일 발행

연구처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발행처 :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산60-1

(<http://www.nl.go.kr>)

전 화 : (02)590-0543

전 송 : (02)590-0689

인 쇄 : (주)계문사 (02)725-5216

ISBN : 89-7383-163-1 93020

<비매품>

※ 이 자료집의 저작권(부차적 저작권포함)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www.nl.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